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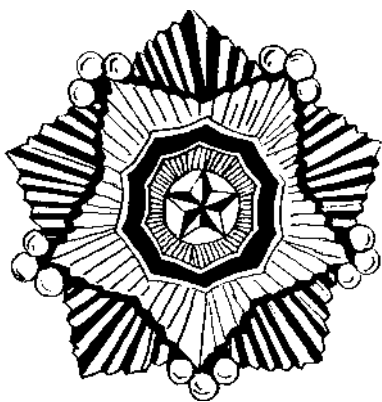


12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12호

(루계 제782호)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정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김 정 은

차 례

김정일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 | |
|--------------------------|-----------|
| 12월에서 다시 12월(시) | 리 명 근(4) |
| 그리움의 날과 같은 영원히(시) | 황 명 성(5) |
|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도 흐르네(가사) | 문 기 창(8) |
| 오늘도 백두령장 빨찌산군마우에 계신다(정론) | 백 성 근(6) |
| 단편소설 붉은 눈보라 | 리 희 남(9)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16) |
| 절절한 그리움, 절대불변의 신념(평론) | 박 춘 택(17) |
| 주체문학의 대강 | (21) |
| 조선의 새벽 | 류 민 호(22) |
| 그리움의 세월은 영원하리(가사) | 조 영 일(25) |
| 이해를 보내는 마음 | 한 원 희(26) |
| 불라는 설경 | 김 선 화(32) |
| 시 시간과 천사이야기(답시) | 박 웅 전(32) |
| 영광의 이날이 있어 | 장 혜 명(35) |
| 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우다! | 리 찬 호(36) |
| 12월의 흰눈아 외 1편 | 박 현 철(36) |
| 고맙습니다(가사) | 박 철(22) |
| 12월의 노래는 영원하리(운문평론) | 리 정 웅(27) |
| 영원한 수경흙모의 송가(혁명일화) | (23) |
| 이 하늘 이 땅에서...(수필) | 정 철 학(24) |
| 12월에 피는 꽃들(단상) | 원 현 철(34)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서 높이 올리신
야전철차의 기적소리가 대고조의 승전포성으로 온
강산에 메아리치게 하자!

—공동구호에서—

| | | |
|---------------|--|------------------|
| 단편소설 | 영원한 자리 | 동 의 희(39) |
| | 동지들을 위하여 새우신 한밤 (혁명설화) | (38) |
| | 고향집 샘물 (시) | 김 연(33) |
| | 고키한 생애앞에 (시) | 김 정 삼(48) |
| 단편소설 | 아버지의 모습 | 리 명 호(49) |
| | 꽃피는 시절에 | 엄 호 삼(65) |
| ◇가사◇ | 생이란 무엇인가 | (59) |
| |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 (59) |
| |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 (단평) | 김 해 월(59) |
| | 나의 한해 (시초) | 최 남 순(62) |
| | 푸른 산 메아리 (시) | 서 봉 제(73) |
| | 대변에 경이 든 처녀 (단평) | 윤 룡 수(74) |
| ①소 | 시인 박세영의 창작활동과 서정시 《산재비》 | 최 경 희(78) |
| ②개 | 시인 월트 휘트먼 | 오 경 남(80) |
| 편집부의 말 | 위대한 추억의 해 주체101(2012)년을 보내며 | (76) |
| | 상식 | (31), (61), (75) |

표지3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톡톡히 틀어쥐고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선전화)

12월에서 다시 12월

리 명 근

한해

12월에서 다시 12월...

온 강산이 피눈물에 잠겼던
잊지 못할 그 12월에서
어언 벌써 한해가 흘러
다시 찾아온 이 12월

장군님을 찾고 부르며
몸부림치던 그 메아리가
이 심장을 짝 채우는 속에
흘러간 한해의 날과 날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장군님의 유훈을 안고
삶이 격동으로 차있던
땀젖어 흘러간 낮과 밤
그날들은 진정
변함없이 장군님슬하에서
뜨겁게 맞고보낸 세월이었다

제일 큰 아픔을
억세게 눌러딘고
거연히 일떠서신 강철의 인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천만군민이 하나같이 일어서
발걸음을 맞춘 그 나날

눈물과 땀속에 새해도 맞았고
그리움의 첫 광명성절도
환희로운 4월의 태양절도 성대히 경축한 땅
이렇게 조선은 이 한해를
장군님과 함께 보냈더라

눈물겹게 온 나라가 맞이한
소년단명절의 티없는 웃음도
태양기축복속에 꽃피웠더라
전승의 열풍에 휩싸였던
온 나라 로병들의 힘찬 노래도
태양기빛발속에 우렁창더라

만수대의 해빛이 언제나 밝은 이 땅
그 해빛속에 청춘들의 화불은 환희로웠다
9월을 맞아 10월을 맞아
변함없이 우주의 공간에 차흐른
원수님께 드리는 축원의 전파들...

쉬임없이 전진하며
부강번영의 나날을 수놓으며
세차게 달음쳐온 이 강산에
장군님은 언제나 앞에 계셨다
자신께서 바라시고 념원하신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시며—

거대한 창조물앞에 서면
저도 몰래 타오르는 소원
장군님께서 보시었으면...
온 나라 곳곳에 모셔진
위대한 태양상의 밝은 빛발과 더불어
장군님은 원수님과 언제나 함께
진군의 발걸음을 나란히 찍으셨다

정녕 한시도 한순간도 헤어짐없이
조국과 함께
인민과 함께
언제나 함께 계신 아버지장군님!
그래서 이 한해는 이 땅에 길이 남아
장군님의 영생을 노래한다

오, 12월에서 다시 12월
우리는 그 나날에
아버지장군님을 태양으로 더 높이 모셨다
천만의 마음속에 인류의 가슴속에
장군님을 길이 모시고 살
천만년세월에도 이어준 너는
력사의 한해로 영원히 남았다

아, 한해여
12월에서 다시 12월은...

그리움의 날과 달은 영원히

황 명 성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내 문득 걸음 멈추고
창전거리살림집을 봐도
맑은 물 출렁이는 대동강기슭
릉라인민유원지를 보아도
밀물처럼 가슴에 짝 차오르는 그리움

—우리 장군님 보셨으면
그 얼마나 기뻐하시었으랴
간절한 이 하나의 마음속에
더해만지는 그리움

생각하노니
눈물에 젖어 눈송이도 녹아내리던
12월의 그날로부터
그리움의 가슴에 불을 달고
우리 달려온 낮과 밤 류다른 날과 달이어

그 길우에 계시었더라
수령님탄생 100돐 뜻깊은 해
장군님 구상하신 그 념원 그 리상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울 결심을
송고한 도덕과 의리로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신 원수님

장군님의 선군의 그 길 이어
방선천리 하늘 땅 바다초소를 찾으시고
창전거리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신 그 자욱

인민들이 누리며 살 행복과 락을 위해
바람세찬 강바람도 다 맞으시며
완공을 앞둔 유원지의 물놀이장도
봄빛안고 해빛안고 찾고 또 찾으시였나니

걱정의 눈물 머금고 바라보노라
불장식 황홀한 창전거리여
공원의 소박한 나무의자여
특색있는 류경원과 잇닿은 인민야외빙상장이여
그 어디나 다심하신 그 손길 어려있어

감사의 정을 안고 우러르노라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12월의 언덕넘어 온 한해
사랑과 헌신의 길에 계신 그이

그이의 그리움이 펼친 총정의 바다우에
우뚝 솟아 웃음 넘치는 멋쟁이곰등어판
너는 인민사랑의 빛나는 탑이더라
동서해 외진 섬 북변의 먼 산촌에도
그리움이 떠맡든 은정의 하늘우에
행복의 노래 메아리치는 락원의 선경
너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안아온것이더라

우리는 자랑하노라
삶의 젓줄기처럼 품고사는 그리움이
아버이장군님의 정이 되어 열이 되어
강성하는 내 조국에 만복의 씨앗을 움틔우고 자
래워
인민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사회주의무릉
도원이 꽃피어나거니

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끄시는
태양의 위업으로 전변의 혁명실록을 수놓은
그리움의 날과 달은 영원히
인민의 마음속에서 가지 않으리라
천세만세 위대한 장군님 모시고 길이 살리라!

오늘도 백두령장 빨찌산군마우에 제신다

백성근

12월이 또다시 왔다.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고 장군님 우리에게 오신 2월은 있어도 우리를 두고 가시는 12월은 없다고 목메여 부르짖던 그때가 엇그제같은데 또다시 12월이 왔다.

우리를 두고 절대로 못 가신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영결의 연도를 막아나서던 수도의 시민들에게, 장군님 다시 일어나시게 하는 불사약은 왜 만들지 못했는가고 어른들을 원망하며 울음을 터뜨리던 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또다시 12월이 왔다.

늘 인민, 인민 하시며 언제한번 편히 쉬지 못하고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더니 이렇게 인민을 울리자고 그리도 무리하셨는가고 수천만의 피절은 웨침이 울려퍼지던 이 나라 강산에 또다시 12월이 왔다.

심장을 찢어발기는듯 한 조포소리가 울리고 조기가 무겁게 드리웠던 이 나라 하늘에 또다시 12월이 왔다.

사무치는 그리움 누를길 없어 우리 오늘 경건히 옷깃 여미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빨찌산군마우에 계시는 곳으로 다가선다. 그리고 삼가 우러른다.

그러면... 그러면 들려온다.

백두의 말발굽소리가 들려온다.

번개를 치며 우리를 치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빨찌산군마우에 위엄있게 앉아계시는분들은 과연 뉘신가.

삼도왜적이 존함만 들어도 벌벌 떨던, 제국주의 때무리가 허세를 뽐내다가도 정작 마주서면 단번에 오금이 저려 쫄무니를 사리던 천하제일의 명장 **김일성** 장군님과 **김정일** 장군님이시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장군봉에 빨찌산군마를 타고 오르시여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삼천리조국강토를 굽어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들이 울리는 말발굽소리가 온 천하를 퇴성처럼 뒤흔든다.

감히 우리를 어찌보려고 고립압살의 봉쇄환을

이른 적진을 삼시에 무너뜨리는 백두령장들의 천재적인 지략과 담력이 력력히 비낀 근엄한 그 모습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고 적들의 염통을 서늘케 한다.

쌍안경으로 나타난 정황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신 후 필승의 작전방안을 내놓으시는듯 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은 조선혁명의 오늘만이 아니라 머나먼 앞날까지, 인류자주위업의 종국적인 승리까지 천리혜안의 예지로 내다보시는 걸출한 대성인의 불멸할 모습이다.

수령님 가리키신 혁명의 길을 따라 조선을 이끌고 광활한 미래를 향해 온 세계를 앞서나가시려는듯 빨찌산군마의 고삐를 힘차게 당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패기에 넘치신 모습!

보라! 박차를 가한 천출명장의 령을 받고 힘찬 투레질을 하며 쏜살같이 내달리려고 몸을 솟구는 빨찌산군마의 형상에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이 그대로 비껴있고 용을 쓰며 산악같이 일떠서는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다 어려있지 않는가.

팽팽히 당겨진 저 고삐에서는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주체의 한길로 폭풍쳐 내달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과 기백, 진취성이 느껴지고 그이의 보폭에 발맞춰 쉬임없이 온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해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숨결이 거세차게 맥박친다.

귀기울여 들어보라! 훗날리는 말갈기, 나뭇기는 코트자락에서 백두광야의 눈보라소리가 금시 울려나오고있지 않는가.

나뭇기는 코트자락은 그대로 천고밀림의 생눈길, 나라를 되찾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실 때의 백포자락을 뒤흔들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단긴깃옷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실 때 입으시던 그 인민행전투복이다.

우리들의 눈에 너무도 익은,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바쳐오신 고뇌와 심혈, 추억의 만

단사연이 진하게 습배인 백두산장군들의 야전복이다.

절세의 위인들의 안광에서 뿜어져나오는 빛은 조선이 나갈 앞길을 밝히는 예지의 빛발이며 원수들을 기절초풍케 하는 백두산번개의 번뜩이는 섬광이다.

우리의 전진을 막아나서는 온갖 역풍을 쓸어버리며 오직 앞으로만 내닫는 공격정신을 지니신 백두령장들의 무비의 담력과 장군남아다운 드센 배짱이 안겨오고 혼비백산한 적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올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우리 천만군민의 세기적념원을 담아 만수대창작사에 정중히 모신 백두령장들의 기마동상앞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심장의 박동이 이전보다 더 세차게, 더 박력있게 쿵— 뛴을 느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래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기마동상앞에서 우리는 튼튼한 감정의 격랑을 받아안는다.

그 격랑을 안아 우리는 심장이 더 커지고 자세가 더 의젓해지고 난관극복의 정신이 더 억세어진 심정이다.

안도의 밀림에서 첫 사열을 받던 그날의 투사들처럼 오늘날의 빨찌산대원들로 된 심정이다. 오늘날 적들의 아성을 짓부시기 위한 공격출발진지에서서서 백두산천출명장들의 령을 기다리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선용사들로 된 심정이다.

그렇다. 우리는 오늘도 빨찌산군마를 타시고 백두령봉에 계시는 두분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앞에 빨찌산시절의 옛 전사들마냥 엄숙히 정렬해 서 있다.

우리의 눈앞에 어려온다.

강도 일제를 쥐락펴락하시던 빨찌산 김대장의 호랑이같은 기상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기시고 그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던 강철의 령장의 백전로장다운 모습이.

부패무능한 리조봉건통치배들탓에 락후해질대로 락후해졌고 나중에는 망국의 구름장들이 뒤덮었던 이 나라에 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셨고 인민을 천리마에 태워 영웅인민으로 내세워주시고 태양조선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신 사회주의조선

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공적들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온다.

창조와 건설로 이 땅에 세기적인 기적을 이룩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발자욱소리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봉쇄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승리의 통장훈을 부르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힘찬 발걸음이.

이 땅은 그 어디나 백두령장들이 작전을 펼치시는 전투지휘소였고 우리 전사들과 함께 서계신 최전방진지였다.

이 땅은 그 어디나 절세의 위인들이 인민을 위해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누벼오신 자욱자욱이 무수히 새겨져있는 사랑의 대지였으며 원수들을 전멸케 하는 천하무적의 백두산장군들이 심혈을 기울여 축성해오신 불패의 보루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있어 것처럼 오래동안 갈망해온 강국의 력사적념원이 실현되는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멸족의 위기에 처했던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세계에 대고 가슴을 짝 펴고 나설수 있게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두분!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고 그 인민을 위해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일하시다가 생의 마지막박동까지 깡그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얹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망국의 비운을 가셔내고 강국의 터전을 닦아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김일성**동지와 그 터전 위에 최악의 조건속에서 강국의 체모를 갖추어주신 강성부흥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김정일**동지!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기마동상을 모신것을 가장 긍지스럽게 생각하며 온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한다.

대원수님들께서는 항상 야전복을 입고계셨고 늘 빨찌산군마에 올라 줄곧 빨찌산식강행군을 해오시었다.

인민이 탄 비약과 혁신의 천리마, 최첨단돌파의 준마앞에는 언제나 빨찌산군마를 타신 백두산장군들이 거연히 서계시었다.

대원수님들의 한평생 그자체가 영웅적인 서사시였고 그분들의 태양의 모습 그자체가 불멸의 기념비이며 그분들의 불굴의 기상 그자체가 우리 삶의 영원한 활력소이다.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는 우리 수령들의 위대성이 바로 이 땅을 거대한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짝차게 하였다.

력대로 기념비적창조물은 그것을 창조한 창작가나 창작집단의 명성과 함께 자기의 가치를 떨쳐왔으며 창작가들의 창작활동이 공통적인 주제분야를 이룰 때 하나의 시대도 그들에 의해 탄생된다고 보아왔다.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 문예부흥이라 불리우는 시대가 인문주의를 지향한 당시의 유럽나라 문예창작가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에 의해서 도래하였다.

하지만 20세기 문예부흥은 바로 우리 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들에 의하여 도래하였다.

우리 다시 숭엄한 눈길 들어 백두령장들의 기마동상을 경건히 우러른다.

백전로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곁에 빨찌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셨듯이 오늘은 두분의 천출명장들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팽팽히 감도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와 무도의 섬방어대를 찾아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자그마한 목선으로 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인담대한 모습을!

그 배포유하면서도 원쑤격멸의 기상이 서리발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빨찌산군마에 올라 적진을 향해 내닫는 백두령장의 용맹한 기상을 다시금 보았다.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적들이 코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을 향해 달리는 그이의 야전차동음에서 빨찌산군마의 힘찬 투레질소리를 다시금 들었다.

그렇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두분의 대원수님들과 함께 언제나 빨찌산군마우에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심장의 박동소리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느끼며 인민을 위한 그이의 음성과 발걸음에서 위대한 두분의 음성과 발걸음을 우리 느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삶의 희열과 보람을 찾는 **김일성**민족의 병사들로 우리 서있는것이 아닌가.

오늘도 빨찌산군마우에 함께 계시는 백두산장군들이시여! 어서 명령을 내리시라!

원쑤들에게 절대로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총대를 정의의 보검으로 억세게 들어친 우리 수호의 전사들 최후결전의 전망진지를 차지했다.

자력갱생의 마치고 낮, 붓도 서리발총점마냥 함께 들고 우리 창조의 전사들 내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섰다.

수호와 창조의 두 전선에서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내 나라 위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인 우리 육탄되어 나가리라!

적의 아성을 짓부시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모한 공세를 들부시며 강성부흥의 평마루에 최후승리의 기발 휘날리는 그날까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용감무쌍히 내달리리라!

가슴후련히 승리의 축배를 들 그날을 위해, 온 세계가 **김일성**조선을 경탄의 눈길로 우러러보게 될 그날을 위해 《단숨에》노래 높이 부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원수님 만세! 우렁차게 웨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전우들인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장병들답게 총돌격하리라!

가 사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도 흐르네

문 기 창

동트는 전선길을 오늘도 가시는가
해저문 구내길에 오늘도 계시는가
김정일장군님 조국위해 바치신 한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흐르네

세월은 흘러가도 그 미소 따사롭고
삶의 길 돌아보니 그 사랑 뜨거워라
김정일장군님 인민위해 바치신 한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흐르네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한평생은
태양의 력사로 빛나게 이어지네
흐르는 해와 달에 새기신 위대한 한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흐르네

아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시여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빛나리



리 희 남

1

넓고도 높다란 층계였다. 마치도 천상의 경지에 이르는듯 아스라하니 올라다보이는 층계였다.

방금 전선길을 다녀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의 층계를 조용히 오르고 계시었다.

정초부터 설달그믐날에 이르기까지 온 한해 줄창 최전선길을 이어오신 장군님이시었다.

그 나날에 몸소 넘어오신 산발은 얼마였고 전느신 강은 또 얼마였던가.

그이를 우리러 병사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총포탄》, 《결사옹위》를 웨치곤 했다.

시련의 해였던 1996년은 이렇게 흘러갔다.

지금은 1997년 새해 0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곧장 이 층계를 오르시었다. 오늘따라 어쩐지 수령님을 만나뵈고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시었다.

지난해에 2만 5천리장정도 헤쳐왔지만 이제 넘어야 할 심각하고 어려운 고비들이 또 얼마나 많은것인가.

조선반도를 뒤덮고있는 봉쇄와 압살과 고립의 검은구름은 아직 흩어지지 않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계단한계단 력점을 찍듯이 천천히 계단을 오르시여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정중히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지그시 누르고 발걸음소리를 죽이시며 수령님곁으로 다가가시었다.

승업하고 고결한 상봉의 순간은 왔다.

《수령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고요히 주무시는것만 같던 수령님께서

무엇인가 은근히 속삭여주는듯 한 표정을 짓고계시는것이였다. 봄날의 바람결처럼 부드럽고 푸른 하늘처럼 기쁨에 겨웁고 한줄기의 해빛처럼 밝고 따스한 표정이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분명 최전선의 눈보라를 헤쳐온데 대해 치하를 주시고 새해의 결심을 묻는것만 같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을 가다듬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새해에는 만경대혁명학원부터 찾아볼 결심이라고 속으로 조용히 말씀올리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웅심깊으면서도 따스한 표정을 지어주시는것이였다.

(나의 결심을 지지해주시는구나!)

장군님께서서는 불시에 뜨거운것이 가슴에 그득해지시었다. 세상의 온갖 아름답고 귀중한 감정들이 일시에 터지는듯 도저히 견잡을수 없는 심정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빼근해진 가슴을 안으신채 금수산기념궁전을 나서시었다.

잠시 어둠에 잠긴 사위를 둘러보시고는 광장의 한복판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으시었다.

광장은 어슴푸레한 불빛속에 잠겼는데 밤하늘에서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발목까지 폭폭 빠져드는 솟눈을 헤치시며 걸어가시었다.

광막한 공간에서는 수억만개의 눈송이들이 춤추는듯 아물거리고 사위엔 푸릿하고 기묘한 빛발이 운무처럼 흐르고있었다.

날이 새도록 음미해보고싶으신 새해의 설경이였다.

한갈피, 두갈피 덧쌓여지는 눈우에는 그이의 발자국이 깊이 찍혀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야전승용차는 만경대를 향해 달리고있었다.

수원들은 눈보라가 터질것 같다고 몹시 걱정들했으나 장군님께서서는 그러한 만류를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시었다.

수령님께서 한평생 헤쳐오신 눈보라를 자신이 어찌 마다할수 있단 말인가.

파란맑은 이 우주에 위대한 고고성을 터치던 그 순간에 그이의 귀에 처음으로 메아리쳐온것도 천지를 들부시는 눈바람소리였다.

그이께서는 요람가에 울린 그 눈바람소리를 장가처럼 들으며 성장하시었다. 봄바람이나 썩여 마른 땅이나 끌라디디는것은 그이와 아무러한 인연도 없으시었다.

(력사의 온갖 비바람을 다 맞자!)

이것이 장군님의 변함없는 각오가 아니었던가.

야전승용차는 장군님의 이러한 의지를 따르는듯 홀날리는 눈발속을 헤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하늘은 점점 더 낮게 드리우는데 거리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야전승용차를 뜨거운 걱정속에 바래우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히시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었다.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만경대로 향한 길에 들어서니 류다른 감회가 가슴을 파고드는것이였다.

(아, 만경대...)

장군님께서서는 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었다.

문득 언제인가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가시던 때가 생각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만경대의 풍경을 바라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해마다 설날이 오면 만경대의 원아들이 날 기다리곤 하오. 내가 만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지 않는다면 그 애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원아들을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던 수령님의 그 자애로운 음성을 다시한번 들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옛시절은 저 멀리 가버렸건만 왜 이다지도 그리워지는것일까.

어느덧 팔골과 칠골을 지난 야전승용차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앞에 이르자 스르르 멎어섰다.

차마 그대로 지나칠수 없는 뜻깊은 집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자도 쓰지 않으신채 뒤집을 지시고 휘뿌리는 눈발속에 뿌듯하게 드러난 거대한 품을 형상한 궁전을 오래도록 부감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마다 이 궁전에서 학생소

년들과 함께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시었던가.

수령님을 모신것이 너무도 기뻐 일년 열두달 매일 설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노래부르던 행복동이들, 기쁨의 노래로 밤가는줄 모르던 그 모든 옛 추억들이 반갑다고 소리를 치며 막 내달아오고있었다.

그런데 간밤에는 건잡을수 없는 눈물로 설맞이 공연막이 열리지 않았는가. 수령님을 모시지 못한채 벌써 세번째로 진행된 공연이였다.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부르던 어린이들이 눈앞에 삼삼히 어러온다.

장군님의 안팡이 흐릿하게 젖어드시었다.

불현듯 어느해 설날 만경대원아들의 노래이야기를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던 수령님이 생각한다.

그 노래이야기는 부모가 없는 자기들이 왜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게 되였는가를 보여준 훌륭한 작품이였다.

《아버지의 사랑은 저희들의 젖줄기였어요. 자애로운 아버지를 모셨기에 저희들은 이리도 행복하답니다. 친근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천년만년 모시고싶은 아버지! 부디 젊음속에 계셔주십시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역을 담당했던 눈빛이 류달리 다감해보이는 그 총각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었다.

《저 애들의 감정이 얼마나 절절하오. 난 저 애들이 날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옛일이 생각나곤 하오.》

수령님께서서는 분명 유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여주시던 그때를 회고해보시는것만 같으시었다.

그것은 해방직후의 어느날 새벽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발밑에서 휘휘 감도는 새벽안개를 무겁게 헤치시며 정원을 거닐고 계시었다. 이슬에 젖은 나무잎사귀들을 살뜰히 만져도 보시고 여기저기서 지저귀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다정히 들으시다가는 한숨을 토틀기도 하시었다.

《유자녀들때문에 정말 마음을 놓을수 없소. 술한 동지들이 나한테 자식들을 맡기고갔는데 난 지금 그 애들을 다 찾아내지 못했소. 어디서 뿔뿔하며 헤매고 다니는지... 생각하면 새벽이슬도 그 애들의 눈물같고 새들의 울음소리도 아버지를 찾는 그 애들의 목소리같소.》

그때 그토록 갈리시던 수령님의 음성과 그토록 흐려지던 수령님의 안색을 장군님께서서는 잊을수가 없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신문에 손수 사람을 찾는 광고도

내도록 하시고 여기저기에 일꾼들을 파견하시여 방랑하는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살길을 잃고 사방천지에 흩어졌던 유자녀들이 수령님의 품으로 구름같이 모여드는 전설같은 사연들이 생겨나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과 유자녀들의 눈물겨운 상봉을 곁에서 수없이 목격하시였다.

험벗고 굶주린 유자녀들은 수령님의 품에 안기자 앙상한 어깨를 떨며 서럽게 울기만 했다.

《됐다, 됐어. ... 울음들을 그쳐라. 인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를 대신할테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꼭 부둥켜안은채 뜨거운 눈물만 소리없이 짓군 하시였다.

눈물로 묻고 눈물로 대답하던 그러한 상봉이 과연 얼마나 많았던가.

세상이 처음으로 알게 된 유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는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이 결심하신것처럼 유자녀들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였다.

이러한 아버지를 모셨기에 이 궁전에 깃든 그 모든 추억들이 그처럼 아름다와지지 않았는가.

별안간 전대미문의 전화를 안겨주는것만 같은 예리한 메아리가 가슴에 쩌 올려온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 서거하신 날 만수대언덕에서 비를 맞으며 아버지를 찾던 만경대원아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때린것이였다.

그때로부터 3년세월, 자애로운 아버지는 결코 가시지 않았다고 원아들은 한결같이 말할 하겠지만 마음속의 상처야 어찌 가실수 있겠는가.

게다가 설날이 왔으니 아버지수령님이 오죽 그립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엔 어느덧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지고 그이의 존안에 달라붙었던 눈송이들이 줄줄이 녹아내리고있었다.

3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윽하여 만경대쪽으로 돌아서시였다.

눈이 어찌나 퍼붓는지 사방을 분간할수가 없으시였다. 백설의 천지는 푸근하고 아늑한 정서를 풍기고있었다.

《눈이 온 강산을 메우는구만. 설날에 눈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걸 확실히 좋은 징조요.》

장군님께서서는 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야전승용차에 오르시였다.

야전승용차는 뒤바퀴에서 슛눈을 쉬임없이 튕겨 올리며 천천히 미끄러져나갔다.

운전사가 그이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될수록 차를 천천히 몰고있었던것이다.

뿌연 장막에 가리워진듯 한 어지간히 먼 저 앞쪽에 봉긋이 솟아오른 검스레한 룬팍이 드러났다. 만경봉이였다. 무수한 사연들을 품고 눈발속에 조용히 서있는 저 웅건한 자태, 신비롭고 조화롭고 우아하면서도 숭고한 봉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무엇인가를 웨치고싶으신듯 입술을 가볍게 떠시였다.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잊지 못할 추억의 분화구가 터져오른 것이였다.

그것은 진달래꽃이 한창이던 어느해 봄날이였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그날도 원아들은 눈물겹게 아버지라 부르며 수령님께 왁 달려가 안기였다.

그런데 꽃다발을 드리는 그 원아가 낮익어보였다. 언젠가 노래이야기의 주역을 담당했던 눈이 다감하게 생긴 바로 그 총각애였다.

《오 너로구나, 영철이! 그새 무척 컸구나. 인젠 사내대장부가 다 되구... 허허...》

그런데 영철이는 전보다 머리칼이 더 희스해지신 수령님을 뵈옵자 그만 입술을 떨며 가슴을 들먹이고말았다.

《오, 됐다, 됐어. 영철이네의 노래이야기를 또 한번 봐야 할텐데 자꾸 올면 어쩐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살뜰한 애무와 깊은 자애가 비낀 미소를 지으시며 영철의 어깨를 다독여주시였다.

그이의 생애에 원아들과의 수많은 상봉이 있었지만 그날의 상봉은 류달리도 인상적이고 정겨운 것이였다.

영철은 노래이야기에 출연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꾸밈없이 보여 주었다.

특히 영철의 마지막대사가 인상적이였다.

《저희들은 사랑속에서 혁명을 배우며 자라났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저희들도 장군님을 따라 수령님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킵니다.》 하고는 한쪽의 붉은기를 펼쳐들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박수를 쳐주시였다.

《보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철이 들었소. 이래서 내 이 애들과 함께 있는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하는거요.》

수령님께서서는 상반신을 꺾히시며 몸시도 만족해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원아들의 한결같은 요청을 받아주시어 그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동상앞에 경건히 마주서시는 순간 감회깊은 생각을 금할수가 없으시었다.

수령님을 언제나 뵈고싶어하는 원아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어머님께서 내 조국땅에 제일선참으로 모시도록 하여주신 동상이기때문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앞에서 얼마나 많은 원아들이 마음속에 신념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놓곤 했던가.

그것은 학원과 더불어 길이 빛날 어머님의 업적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기시어 오래도록 학원의 운동장을 거니시었다.

《여기에 오면 어쩐지 발길이 쉬이 떨어지지 않소.》

걸고 또 거니시는 발걸음소리.

한동안이 지나서야 수령님께서서는 운동장을 나서시었다.

이제는 떠나시는가고 생각하시었는데 수령님께서서는 만경봉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는 것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시었다.

봄빛이 짙은 만경봉에는 해빛과 꽃들의 조화로 하여 신기한 정체가 비껴있었다. 마치도 그윽하고 아름다운 옛 추억을 그림처럼 펼쳐는것만 같았다.

《**김정일**동지와 함께 학원에 오구보니 어쩐지 만경봉에 오르고싶소.》

무엇인가 간절한 소망이 비낀 그이의 음성이 장군님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왔다.

《원아들이 왜 그렇게 우는지... 아마 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탓이겠지.》

만경봉을 향해 얼마간 걸으시자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저려나 견딜수 없으시었다. 자연은 푸르러지건만 수령님의 머리에 왜 흰서리만 내리는것인가.

《오늘 **김정일**동지와 함께 나온게 참 잘된 일갈소. **김정일**동지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밝아 지더라 말이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길옆에 피어난 진달래꽃 송이들을 살뜰히 만져도 보시고 애무가 어린 눈길로 주위를 둘러도 보시며 천천히 걸으시었다.

해묵은 덤불밑에서 새파랗게 얼굴을 내민 햇풀

들이며 물오른 나무가지들이며 통통하게 배가 부른 나무순들이 얼마나 호뭇한 정취를 자아냈던가.

어디서나 고즈넉이 깔려있던 옛 추억들이 바빠바빠 문을 열고 반기는것만 같은 만경봉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봉의 소나무아래에 서계시었다.

아득히 흘러간 그 옛날 김형직선생님께서 어리신 수령님을 곁에 앉히시고 지원의 뜻을 새겨주시던 바로 그 자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뜻깊은 지점에 다시 서신것을 단순한 력사의 반복으로만 보고싶지 않으시었다.

이 땅에 흘러온 력사와 다가올 래일의 력사를 다시한번 안아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았는가.

력사의 증견자인 소나무는 웅심깊은 명상에 잠긴듯 조용히 서있었다.

《할 일이 많다나니 여기에 올라와보기도 쉽지 않소.》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추억깊은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만경봉에는 파스한 해빛이 깃들고 저기 발아래에서는 대동강이 은비늘처럼 반짝거렸다.

가슴을 활 열어젖히고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는 광활한 대지, 끝없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무한대한 우주.

《사향가》에 답아 그렇게도 절절하게 불러보시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빛이 재글거리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시었다.

방금 떠나오신 그곳에서는 원아들이 즐겁게 뛰놀고있었다.

유서깊은 이 땅에 얼마나 의의깊은 생활들이 수놓아지고있는것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몇걸음 오고가시었다.

그이의 발치에서는 새파랗게 살아난 잔디풀들이 그 무슨 간절한 사연을 속삭이는듯 쉬임없이 하늘거리고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내려다보니 참 생각이 많아지오. 옛일도 생각나고 지원의 뜻도 다시한번 새겨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멀리를 내다보고 세운 학원이었소.》

수령님께서서는 새삼스레 지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지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20성상 수령님께서 새겨안으신 지원의 사상은 그 어떤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

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관이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조국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였다.

《...그래서 나는 백두산에서 돌아오자마자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만경대혁명학원부터 세웠던 거요. 만일 우리가 학원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 술한 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소. 개원식날 투사들이 날 찾아와서 눈굽을 적시며 하던 말들이 생각나오. 이제 우리들이 혁명앞에서 떳떳해지게 됐다고...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경대혁명학원의 창립을 선포했겠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먼 곳을 바라보시였다.

어머님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의 개원식을 목격하시였던 그 충격적인 날이 새로운 의미로 안겨오는 것이였다.

그날 담청색하늘에서는 밝은 해빛이 넘치고 학원의 운동장에는 수많은 원아들이 대오를 짓고 엄숙히 서있었다.

바지에 친 붉은 줄과 붉은넥타이가 류달리 눈길을 끌고있었다. 수령님께서 깊은 의미가 깃들었다고 말씀해주신 붉은 줄이였고 붉은넥타이였다.

바로 그러한 복장때문에 한결같이 희한하고 림름해보이는 그들은 러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그 어떤 굉장히 큰것을 안고있는듯 했다.

력사의 축복을 받게 될 행복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순간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단에 나서시여 엄숙한 목소리로 만경대혁명학원의 개원을 선포하시였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나는 동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념원을 담아...》

커다란 긍지를 안으신듯 류창하면서도 저력있게 울리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갑자기 갈리시며 이어지지 못했다. 후에 알고보니 수령님께서서는 눈물이나 연설을 제대로 할수가 없으셨던것이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이였다.

원아들은 자기들의 림름한 모습을 온 세상에 떨치듯 소리높이 《만세!》를 웨치며 수령님앞을 행진해갔다.

칙칙 지축을 울리는 발걸음소리, 한결같이 씩씩해보이는 자랑스러운 모습들.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잇기 위한 새 조선의 대오가 붉은넥타이를 날리며 세차게 굽이쳐가고있는 것이였다.

아, 얼마나 고대하던 시각이였는가.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철들이 백두산야를 붉게 물들이

였는가.

대오를 바래주시던 어머님의 안광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히였고 그이의 곁에 서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원아들의 대오를 향해 오래도록 답례를 보내주고계시였다.

그때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력사적인 순간을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넣고계시였다.

《내 여러번 말했지만 우리가 혁명학원부터 세운건 단순히 동지들에 대한 도덕적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였소. 혁명의 피줄기를 이을 골간들을 키우자고 세운건데 은을 낸단 말이요. 한때 리승만은 우리가 만경대에서 술한 호랑이들을 키운다고 비명을 지르기까지 했겠소. 그렇소, 우리는 세상에 보기드문 이 원종장에서 호랑이들을 키워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대를 이어가며 승리해나갈것이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커다란 흥분을 안으신듯 허리를 젖히시며 하늘과 땅이 맞붙은 곳을 바라보시였다. 건들건들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에 그이께서 입으신 봄의투자락이 가볍게 날리였다.

명상에 잠긴듯 조용하게 서있던 소나무가 심호흡을 하는듯 웅글은 소리를 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색도 감정도 한껏 넓어지시였다. 거창한 격랑을 몰아오는것만 같은 그 음조, 그 숭고한 의미와 확신, 그것이야말로 력사앞에 하고싶으셨던 수령님의 말씀이 아니였는가.

혁명의 흐름우에 은하수처럼 그어진 하나의 뚜렷한 지향선이 절절하게 강조된 잇을수 없는 순간이였다.

혁명에서 혈통문제란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사활적인 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바로 이때문에만도 만민이 수령님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있는것이다.

자신께서도 어린시절부터 수령님의 만세를 부르시지 않았던가.

그것은 지나온 세월의 저 기슭에 남겨두시였던 추억이였다.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안고 뜻깊은 첫 설명절을 보내던 때 어머님과 함께 만경대를 찾으신 장군님앞에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생가에 귀중히 보관되어있는 한자루의 붓과 벼루를 내놓으시였다.

김보현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 이 붓과 벼루로 《지원》이라는 필적을 남기시였고 수령님께서도 역시 이것으로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쓰시었다는것이다.

《그래 우리 증손자는 이것으로 무슨 글을 쓰겠나?》

김보현선생님의 권고를 받으시자 장군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붓에 먹물을 듬뿍 찍어 드시고 서슴없이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필적을 백지우에 남기시었다.

그 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귀찮해준것도 아니었다. 생가에 깃들어있는 거룩한 님이 그리고 거기에서 풍기는 형용할수 없는 성스러운 분위기가 그이의 심장에 미친것이였다.

만경대의 일가분들은 어리신 장군님의 생각에 분명 운명이 준 그 어떤 숭고한 련관이 있다고 한결같이 찬탄을 금할수가 없으시었다.

《과시 네가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광명성이 분명하구나. 반만년력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에 대통운이 텃어, 대통운이!》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연거퍼 가슴을 두드리시며 속깊은 기쁨을 터치시었다....

《혈통이란 속일수도 없고 꾸밀수도 없는것이요, 또 강요한다고 해서 혈통이 이어지는것도 아니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머리에 드리운 소나무가지들을 올려다보시었다. 양춘을 맞아 생생해진 푸른 잎사귀들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보시는것이였다.

(혈통이란 얼마나 숭고한 개념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뇌리에는 문득 이러한 충격적인 의식이 번뜩이시었다.

《**김정일**동지가 있기에 지금 우리의 혈통은 굳건히 이어지고있소. 난 우리 혁명의 앞날에 대해서도 마음을 푹 놓게 되오. 저 원아들이 **김정일**동지를 아버지처럼 따르는걸 보니 이런 확신이 더욱 생긴단 말이요. 래일이 담보되기에 이 땅에 이처럼 해빛이 밝고 꽃들도 다투어 피어나고 산천도 이렇게 아름다와지는게 아니겠소. 정말 한평생 혁명을 해온 보람이 크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심중이 뿌듯해지시는듯 뒤집을 지시고 몸을 한껏 젖히시었다.

자연의 도처에서는 바야흐로 봄빛이 짙어가고있었다.

숙연한 빛이 어리던 그이의 안광이 즐겁히 젖어 드시었다.

아마도 속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계시는 모양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해묵은 술임을 쥐어뜯으시며 속에서 치미는 용암같은것을 간신히 참아내시었다.

그 화창한 봄날은 이렇게 흘러갔다.

그런데 그것이 수령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만경봉에 오르게 된 날로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가슴속에 안고계시던 비애의 상처가 다시금 툭 툭 터지며 진하다진한 피눈물같은것이 봄물처럼 넘쳐나는것이였다. 혁명의 운명과 미래를 두고 말씀하시던 그 절절한 음성, 그 뜨거운 눈물을 천만년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야전승용차는 허연 눈발이 아니라 그 잊지 못할 추억의 심연속을 헤가르며 나가는것 같았다.

만경봉이 가까와지자 대하와 같은 눈보라가 허연 갈기를 날리며 맞받아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눈사태가 쏟아지는것만 같은 장쾌한 눈보라였다.

심장을 뚫게 하는 격동적인 순간이 기어이 다가온것이다.

사품치는 강물처럼 땅위에 태를 치기도 하고 솟구쳐오르기도 하는 눈보라, 맹수처럼 우우 울부짖는 그 함성, 그 기상이 얼마나 장판인가.

(만경대의 눈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었다.

보면 볼수록 만단사연을 불러일으키는 눈보라였다. 얼마나 많은 길들이 이 눈보라를 거쳐 장구한 미래로 뻗어갔는가.

처음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뜻을 안고 일어나가시였고 그 길을 이어 수령님께서 주체의 기치높이 헤쳐오신 길.

그 길을 따라 지금은 자신께서 헤쳐나가신다.

지원은 여전히 정당한 진리로 남아있다.

대를 이어 전진하는 그 숭고한 력사를 상징하는듯 저기 뿌연 눈발속에 만경봉의 소나무가 우람하게 솟아올랐다.

어제도 오늘도 양춘을 그리는 저 푸르른 기상, 만경봉에 깃든 그 숭고한 뜻을 만천하에 펼치는듯 소나무는 무수한 자기 잎새들에 부딪친 눈보라를 사방에 백발처럼 흩날리며 이 나라의 자연과 더불어 장엄하게 울부짖고있다.

넋을 울리는 자연의 교향곡이였다. 만경대의 자연은 이 세상의 모든 선물들을 포괄한 장중하면서도 미묘한, 아직까지 들어본적이 없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있었다. 그 음악속에 투쟁과 전진을 갈망하는 비상한 열정이 있고 이 땅의 눈보라와 어차피 길동무가 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대한 호소가 울리고 대를 이어 안아와야 할 장구한 미래가 펼쳐지기도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토록 장엄한 만경대의 음악을 다시한번 마음속에 담아보시었다. 그이께서 지니

고계시는 그 천재적인 음감이 만경대의 음악과 조화되고 융합되면서 더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해내는 것이었다.

4

만경봉을 지나자 길옆에 눈을 뒤집어쓰고 서 있는 장령이 야전승용차를 향해 정중히 경례를 드리고 있었다. 어찌나 눈을 많이 뒤집어썼던지 길가에 굳어진 눈사람을 방불케 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장이었다.

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 그는 원아들의 실태를 알아볼데 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번 만경대혁명학원에 찾아와 당시 학원에 계시던 장군님을 만나뵙곤 했다.

그때마다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안부를 묻고 또 자신의 생활과 학습정형을 수령님께 보고드리도록 그에게 정중히 부탁하곤 하시었다.

정말 지난날의 추억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원장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은 지금...》

원장은 차에서 내리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정보로 걸어가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아, 뻔했습니다, 뻔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몹시도 차거웠다.

《오는 길에 좀 지체했더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학원까지 같이 걸읍시다. 눈내리는 이 설날에 로투사와 함께 걷는다는게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장령은 감격한듯 신음소리와 같은 거치른 숨소리를 토했다.

만날 때마다 눈물부터 앞세우는 그였다.

자신과 남다른 연고관계를 가지고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늘은 원장동무의 밝은 얼굴을 꼭 볼줄 알았는데 또 틀렸구만.》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장군님을 우리 학원에 모시게 되니 자꾸만 산에서 싸울 때 생각이 나서... 마치 왜놈들을 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아동단학교부터 찾으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을 다시 뵈는것만 같습니다.》

원장은 가슴속에 간직했던 가장 중요한것을 말씀드렸다는 그릇듯 경건하고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장군님의 뒤를 따라걸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다만 눈보라속을 응시하시는 그이의 안광에 질은

감회가 어려있을뿐이었다.

눈보라는 쉬임없이 몰아치고있었다.

《정말 력사가 깊은 학원입니다. 아동단학교로부터 시작한다면 벌써 반세기가 넘는 로정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간 만경대혁명학원에서는 우리 혁명의 골간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났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의 전선길에서 만나 보시였던 만경대혁명학원의 졸업생들을 하나하나 그려보시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골간을 이루고있을뿐아니라 돌격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있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 믿음직한 세대들을 이어 오늘은 또 새로운 세대들이 준비되고있지 않는가.

후비군의 성장은 어제 또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계속되고있는것이다.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은 멀리를 내다본 위인이시였습니다.》

윙윙 울부짖던 눈보라가 잠시 숨을 죽이였다.

대지는 그 무엇인가를 깊이 음미해보는듯 했다.

《원아들속에 앓는 애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건강합니다. 원아들은 지금 설날에 장군님을 모시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들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전에 원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나를 자나깨나 손꼽아 기다린다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격으로 원아들을 만나 보자고 합니다.》

푹 젖어들고 떠는듯 한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함께 걷고있는 사람들의 귀에 미치였다.

원장은 목이 꼭 잠기여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 했다.

사색에 잠긴듯 한 자연은 다시 눈보라를 일쿠며 설레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무슨 운명적인 녀이 대지의 심층을 세차게 격동시킨 모양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아들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안으신채 만경대혁명학원의 운동장에 들어서시었다.

그러자 온 학원구내에 천리전선에 메아리치던 병사들의 함성과도 같은 장엄한 소리가 터져올랐다.

운동장에 펼쳐나와 눈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기다리고있던 원아들이 두팔을 머리위에 높이 쳐들고 《아—버—지—》 하며 밀물처럼 밀려오고있었던것이다.

몇해전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곳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이었고 그가 걸어온 인생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주었다.》

《동지들과 공동위업에 대한 헌신성, 이것은 김정숙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이였으며 또한 그가 지니고있는 인간적매력이기도 하였다.》

《김정숙은 사람들을 공작대상이나 교양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순수한 보통인간으로 대하였다. 설사 공작상 필요로 쟁취하지 않으면 안될 인물과 교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를 피교양자의 위치에 놓거나 자기를 교양자의 위치에 놓지 않고 정든 이웃을 대하듯이 레스롭게 대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인민들의 신임을 받는 딸이 되고 이웃이 되었다. 이것이 지하공작원으로서의 김정숙의 중요한 특징이였다.》

《만일 김정숙이 인민에게 참다운 사랑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을것이다.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인민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수가 없다. 김정숙은 인민에게 사랑을 바친것만큼 자기가 그 처럼 아끼고 품어준 인민들로부터 응당한 보답을 받은것이다. 그러고보면 500명의 인장이 찍힌 람민보증서는 그가 인민의 참된 충복임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서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에 찾아오셨을 때 《아버지-》 하며 수령님께로 달려와 안기며 울던 바로 그 원아들이다. 자신을 따라서 수령님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맹세다지던 바로 그 원아들이다.

엎어질듯 달려오는 원아들의 가슴팍에서는 붉은 넥타이가 기폭처럼 펄펄 나뭇기고 바지에 찢 무수한 붉은 줄들이 눈발속에서 얼른거렸다.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조화가 일어났다.

흘날리는 눈발이 온통 붉게 물들었던것이다.

아, 붉은 눈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설레이는 밀림을 대하실 때와 같은 벽찬 감정을 느끼시였다.

우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시작되였던 주체혈통의 흐름이 오늘은 얼마나 거대한 폭으로 굽이쳐오고있는것인가.

혈통의 흐름이란 세월이 가고 시련이 거듭될수록 더욱 장엄해지는것이다.

《아-버-지-》

저마끔 제나름대로 웨쳐대던 애어린 목소리들이 차츰차츰 하나로 합쳐지며 그이의 가슴을 연방 쿵 쿵 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시였다.

《보시오, 동무들! 붉은 눈보라가 몰아쳐오고있습니다.》

별로 높지는 않으나 아름답한 걱정을 담은 음성이시였다.

그렇다, 다시 보아도 달리될수 없는 붉은 눈보

라였다.

《만경대의 눈보라는 애초부터 붉은 눈보라였습니다. 우리의 혈통도 붉은 혈통입니다. 우리 혁명의 근본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혈통에서 언제나 힘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내 이해에 수령님부터 만나뵙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눈물을 흘치는 원장을 띠여보시였다.

문득 김형직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였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쓰러지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비상한 의지와 굳건한 결심이 파도처럼 굽이치시였다.

이해의 진군은 이렇게 붉은 눈보라를 펼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21세기는 붉은 눈보라를 펼쳐가는 우리의것으로 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높이 드시였다.

그러자 저기 하늘중천에 태양처럼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영상이 환하게 비끼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속에서 세차게 일어나는 환희의 종소리를 들으시였다.

승고한 자욱이 새겨진 어제와 오늘과 래일에 대한 감정들이 일시에 내달아오는 커다란 정신적인 승화를 느끼신것이였다.

주체87(1998)년

절절한 그리움, 절대불변의 신념

—추모설화집 《백두산에 지동이 일다》, 시집 《장군님세월은 영원하리라》,
작품집 《선군태양은 영원하다》에 대하여—

박 춘 택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70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애국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그 비통한 12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피눈물의 그날로부터 날과 달은 흘러 어느덧 이 땅위에 또다시 12월이 왔다.

류레없는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엮여온 지난 1년간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보는 오늘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뜨겁게 사무쳐오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굽을 적시며 걱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지난 1년은 결코 레사롭게 흘러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 나날에 절대불변의 신념과 도덕의리로 력사의 페이지에 영원한 태양의 력사,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실록을 아로새겼다.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청천벽력같은 비보로 산천초목이 비분에 떨고 이 땅에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던 그 12월과 애도 100일간에 온 나라 작가들과 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들속에서는 절절한 그리움과 불타는 충정으로 충만된 수많은 추모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문학예술출판사에서는 수많은 추모작품들중에서 그 일부를 묶은 작품집 《선군태양은 영원하다》와 시집 《장군님세월은 영원하리라》, 애도의 나날 나타난 기이한 자연현상들과 인민들의 충정의 세계가 반영된 이야기들을 수록한 추모설화집 《백두산에 지동이 일다》를 출판하여 내놓았다.

작품집들에 수록된 작품들에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령도자를 잃은 가슴터지는 비통함과 절세의 위인이신 장군님의 고결한 품모, 불멸의 업적에 대한 격찬,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과 장군님령전에서 다지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맹세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것은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애도 전기간 수도 평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땅 먼 한끝까지 그 어디서나 터져오르던 남녘로소의 애절한 곡성, 이 나라 강산에 강물처럼 흐르던 눈물, 그것은 결코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판의 눈물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영원토록 심장속에 모시고 살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였고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더 잘 받들 어모실 드림없는 맹세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위대한 현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충정의 세계를 다양한 문학형식으로 보여준 작품들을 묶은 작품집 《선군태양은 영원하다》는 어버이장군님을 잃은 커다란 상실의 아픔으로 가득찬 추모의 나날이 땅에 굽이친 민심이 어떤것인가를 펼쳐보이고 있다.

작품집에 실려있는 추모작품들가운데는 수기, 수필, 단상도 있고 실화, 실화문학, 방문기, 현실 체험기도 있으며 일기, 단편소설들도 들어있다.

수필 《눈의 정서, 눈의 철학》(정기종)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의 상징인 백두의 흰눈, 가장 정겹고 아름다운 노래로 불리우던 따뜻한 설눈과 축복의 눈송이들, 철의 도시 밤하늘에 내리던 붉은 눈, 빨찌산이야기로 잠 못드는 불밝은 창가에서 속삭이던 눈, 그리고 2월의 정일봉에서 회오리치던 흰눈,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던 눈이 오늘은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크나큰 아픔에 겨워 흐느낀다고 우리 인민의 비분의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손을 내밀어 내리는 눈송이를 받으면 손바닥에 내려앉자마자 녹아내리는 차디찬 눈은 그저 눈이 아니라 차디찬 눈물이라고, 하늘이 쏟아내는 그 눈물이 비통한 슬픔과 아픔에 얼어붙어 흰꽃이 된것이 아닐가고 쓴 수필은 목놓아 흐느끼는 저 하늘의 조의를 담아시고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듯

깊은 하얀 눈꽃들이라고 피터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뼈를 바수는 절통함과 비분에 호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고있다.

작품집에는 이밖에도 흰눈에 대한 여러편의 수필이 있는데 그중 사상정서적으로 이채로운것은 수필 《흰눈》(김영희)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멎는것과 같은 커다란 상실의 아픔으로 가득찬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수필은 가슴터지는 슬픔에 태질하며 어버이장군님과 영결하던 12월 28일, 수도의 거리와 광장을 짝 메운 이 나라 상제들의 머리우에도 흰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고, 그날 종일 내린 눈은 28일 당일의 일기로는 78년만에 가장 많이 내린 눈이라고 하면서 이 영결의 날에 내린 눈을 맞으며 느낀 감정정서를 토로하고있다.

수필에는 필자의 느낌이 진실하고 깊은 사색과 풍부하고 생신한 사상감정이 담겨져있다.

눈오는 계절에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여 평생 눈보라길 많이 걸으시다 눈보라를 헤가르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결을 떠나가시는 마지막날까지도 찬눈을 맞으시며 눈길을 가셔야 한단 말인가고, 하늘도 어찌면 저리도 무심한가싶어 내리는 눈을 쏘고 또 쏘며 가슴을 친 우리들이였다고 수필은 우리 인민의 심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광장에 쏟아지던 저 눈, 새해에 들어와서도 자꾸만 내리는 저 눈을 어찌 하늘도 슬픔을 이기지 못해 쏟는 폭설이라고만 하랴. 내리고 또 내리는 저 눈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나서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앞길에 내리는 수령님의 축복이다. 이 나라 자손들에게 내리는 축복이다. 수필에서 작가의 사색은 이렇게 깊은 세계로 이어지고있다.

수필 《집》(강문혁)은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크나큰 행복의 집, 백두산총대로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이라는 위대한 집을 위하여 야전차, 야전렬차를 집으로 삼으시고 한생을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신의 세계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우리 장군님의 집—야전렬차에 대한 필자의 느낌을 감명깊게 펼쳐지고있다.

누구나 집은 삶의 보금자리이고 행복의 요람이며 생활의 터전이라고 정을 담아 말한다. 필경 지구상에 발을 붙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집과 인생을 떼어놓고 행복을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군님의 마음속 깊은 곳의 심혈과 로고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다. 우리는 절통한 눈물속에 빙산도 녹아내리던 12월의 그날에야 비로소 우리 장군님의 한생이 담긴 집에 대

한 철학을 피눈물로 가득찬 가슴속에 새롭게 받아안았다. 수필은 바로 사람들의 이런 심정을 대변하여 어버이장군님의 야전렬차에 대한 깊은 사색과 절절한 느낌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오래동안 현지지도의 길에서 야전생활을 하다나니 인젠 야전렬차가 집이 되었다고, 이렇게 사는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평양의 집은 려관이나 같은 느낌이 든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결연히 야전렬차에 오르신 장군님.

야전렬차가 집!

수필은 얼마나 우리 인민들을 사랑하시였으면, 자신의 친혈육으로 아끼셨으면 야전렬차가 그이의 집이 되었으랴고 걱정을 터뜨리고있다. 그러면서 작품에서는 대고조승전가를 울리며 지구상에 떠도는 온갖 불의를 사르며 폭풍치는 집, 장군님의 집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달리는 강행군렬차였고 조국수호전의 최전방, 최고사령부의 선군혁명렬차라는 필자의 주정토로가 감동깊게 형상되어있다.

정녕 이 나라 집집의 창가에 흐르는 불빛은 어버이장군님의 야전렬차의 불빛에서 밝아왔고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이 나라 인민은 행복의 단잠에 들었다고 주정을 터뜨리는 한편의 아담한 서정시와 같은 이 수필에는 필자의 남다른 얼굴이 보이고 깊은 사색과 풍부하고 생신한 사상감정이 담겨져 이채롭다.

슬픔과 비애의 12월, 눈물을 쏟으며 조의식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누구나 체험하는 또 하나의 큰 아픔이 자리잡고있었으니 그것은 아직 이 땅에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사실이였다.

작품집에는 수필 《인민의 마음》(장선홍)을 비롯하여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오늘 어버이장군님의 동상도 모시지 못하고 기념비 하나 세우지 못한 자책감으로 가슴을 태운 우리 인민의 마음과 동상을 모시는것을 엄하게 만류하신 장군님의 한없이 겸허하시고 고결하신 풍모에 대한 절절한 느낌들을 담은 수필들도 편집되어있다. 수필들에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천세만세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이의 동상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왔으나 수령님 한분만을 높이 모시려는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한없는 겸손성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동상을 절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불허하신 사실을 두고 걱정을 금치 못하는 필자들의 사상감정이 펼쳐지고있다.

작품집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피눈물의 맹세안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태양조선으로 만대에 빛

내어나갈 불타는 맹세의 감정을 담은 수필들도 수록되어있다. 수필 《우리 아버지》(문상봉), 《눈보라치는 철령의 새벽에》(조인영) 등이 바로 이 주제에 바쳐진 작품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애를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겨울날 인민들이 추위에 떠는것을 보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고 일깨워 주시며 애도기간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 호상을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보장대책과 더운물봉사조직을 철저히 따라세우고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해야겠다는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작품들은 격정에 넘쳐 토로하고있다.

12월의 강추위속을 달리던 야전철차에서 순직하신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면 눈보라속에서 홀로채로 열밤, 백밤을 새워도 가슴에 웅어리진 슬픔을 가시어낼길 없는 우리들인데 손발이 차지거나 귀가 좀 시린것이 무슨 대수이라. 그런데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추위에 몸이 얼세라 넘려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어 포근하게 온몸을 녹이도록 하시니 우리 인민의 가슴은 뜨거움에 한껏 젖어드는것이다.

피눈물속에서 주고받은 정은 영원히 식을수 없으며 가장 엄혹한 속에서 맺어진 정은 끊을수 없는 혈연으로 이어지기마련이다.

수필 《우리 아버지》는 걱정의 진실한 목소리를 이렇게 터치고있다.

《강철의 령장이기 전에 그지없이 뜨거운 인간, 절출한 령도자이기 전에 인자한 아버지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인민은 그 모습에서 또 한분의 **김정일**동지를 뵈옵게 되었다. 천하를 품어안은 열화같은 사랑도, 준엄한 난국을 여유있게 타개하는 강인담대한 기상도, 천만대적을 눈아래로 굽어보시는 배짱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시였다.》

필자는 호상을 서시며 슬픔을 억제 못하시던 모습, 령구차에 손을 얹으시고 눈이 쏟아지는 영결식장의 숫눈길을 무겁게 걸으시던 그 모습에서 세상사람들은 인민을 책임지고 수령의 영생위업을 빛내이는데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을 신념과 의리의 드팀없는 기동을 보았다고 썼다. 그리고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상실의 참지 못할 아픔을 묵새기며 거연히 서계시던 그 모습, 대국상을 당한 인민을 모독하는 원쑤의 머리우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려는 령장의 담력에서 인류는 무적필승의 드팀없는 기동을 보았다고 신심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격찬하였다.

수필들에서는 장군님과의 영결을 부정하며 폭설 쏟아지는 거리에 엎어지면서 통곡하던 인민의 억한 심정, 장군님께서 지나가실 영결의 길우에 내리는 눈을 막자고 자기 솜옷은 물론 집집의 담요마저 내여다 고이 덮었던 우리 인민들의 순결한 마음을 보여주고 피눈물에 잠겼던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어떻게 보란듯이 솟구쳤는가를 세계는 보게 될것이라는 뜨거운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작품집에 수록된 《붉은 꽃》(강철), 《천품에 대한 생각》(주상준), 《눈물의 무게》(최현국), 《영원한 그리움의 노래 부르며》(김경일) 등 단상들은 취급한 생활은 서로 다르지만 작품들에 흐르는 주되는 감정은 더욱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는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다.

실화문학 《생명》(리라순)은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누구보다도 상실의 아픔이 크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민들에게 신신한 동해의 물고기를 실어다 공급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고 추운 겨울날 호상을 서는 인민들한테 사랑물도 끓여주고 발열불임피도 보내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는 어버이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화폭을 펼치고있다. 단편소설 《영원한 품》(김하늘)에서도 가장 비통한 눈물을 쏟으시면서도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그대로 이으시어 천만자식들을 품어안아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 가득찬 우리의 조국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어머니조국은 피눈물에 잠긴 이 순간에도 무엇을 사색하고 어떤 결심과 실천을 하고있는가를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준데 이 소설의 사상미학적성과가 있다.

시집 《장군님세월은 영원하리라》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그 나날에 우리 작가들과 인민들이 창작한 시들이 수록되어있다.

아버이자장군님의 영생에 바쳐진 시가작품들에 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민족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절감하는 걱정과 그이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격찬 그리고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선군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르리라는 신념이 깊이있게 새겨져있다.

추도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전에》(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천만사연이 깃든 야전철차에서 우리 장군님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슬픔의 감정, 백옥같은 충정의 눈물, 불같은 애국의 눈물을 공장과 일터마다 거세찬 비약의 불이 되어 흐르게 하

러는 불같은 맹세의 감정, 슬픔을 박차고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억척같이 앞으로 나갈 철의 의지를 구가하고있다.

시 《추모의 낮과 밤》(변홍영)은 위대한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너무도 절통해서 터치는 인민들의 처절한 울음은 인민의 행복이 필생의 락이어서 온 심신을 그 행복을 위해서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께서 겪으신 그 천만고생을 생각할수록 찢어지는 가슴에서 솟구쳐나오는 피눈물이라고 비애의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슬하의 천만자식들을 잘살게 하시려 자신의 신상은 돌보지 않으시면서 그렇게도 겹쌓인 로고를 안으시고 초강도 강행군길을 씩없이 이어가신줄 너무도 뒤늦게 알게 된 죄책감에 너무도 억울해서 터치는 피울음이라고 상실의 절통함을 터뜨리고있다.

위대한 그이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일터마다에서 그이를 기다리며 그리움의 날과 달을 보내던 우리 인민들, 대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가장 애통한 비분의 울음을 아프게 터치는 모습은 시 《땅우에는 곡성이, 하늘에는 찬눈이》(장혜명),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김명철), 《영원한 태양》(문동식), 《12월의 하늘과 땅이여》(김영일), 《눈물에 젖지 않은 시》(박상민) 등에서도 형상되고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뜨거운 조국애로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것처럼 뜨겁게 안고계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가시지 않으셨다. 것처럼 자애로운 그이의 미소는 억만년 무궁할 이 조선의 햇빛속에 영원하고 그이의 불멸의 존함은 이 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리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런 신념의 감정은 시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백의선), 가사 《우리의 영원한 **김정일**동지》(현승남), 시 《태양은 영원하리라》(장윤길),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허수산), 《영생하시라》(정동찬), 《천세만세 모시리라》(럼형미) 등 여러 작품들에서 형상되고있다. 그리고 설화시 《조선은 일떠섰다》(집체작), 시 《우리에게 눈물의 맹세가 있다》(리명옥), 《우리는 일떠섰습니다》(홍원철), 《태양이 솟았노라》(리학현), 《우리의 마음속엔 2월의 봄날만 있다》(리춘란), 《세월이여 새기라》(채성휘) 등의 작품들은 피눈물 흐르는 이 땅을 거인처럼 딛고 조선혁명앞에 나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호흡에서 우리 장군님의 영생의 숨결을 듣고 그이의 억센 발걸음에서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을 그

대로 보며 조선은 일떠섰고 그이따라 불굴의 조선은 나아간다는 시대적감정을 토로하고있다.

한 시인은 《세계여 피눈물의 바다에서/솟구쳐오를 조선을 보라/우리의 눈물은 물이 아니다/피보다 더 진하고 더 뜨거운/불이다 단결이다 맹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민족대국상의 나날에 100년을 성장한 새 모습으로 이 행성을 뽕뽕 울리며 력사우에 용감하게 나섰다고 격동된 감정을 내뽐고있다.

작품집에 수록된 시들은 피눈물의 바다에서 무엇이 우리 인민을 일떠세웠고 과연 무엇이 슬픔에 잠겼던 이 나라 민심에 불을 지피 장군님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힘껏 떠밀었던가를 예술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시들은 그리움이였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무한한 공지와 영광, 바로 이것이 추모의 나날 이 땅에 굽이친 민심이었고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로 하여금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게 한 무한대한 정신적원동력이었음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슴을 치고 땅을 두드리며 곡성을 터치는 인민의 슬픔이 하늘에 닿고 땅을 진감할 때 크나큰 상실과 절통한 몸부림을 말해주는듯 한 놀라운 자연현상들이 나타났다. 애도기간 련이어 나타나는 신기한 자연현상들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갖가지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낳았다. 작가들은 이 특이한 자연현상들에 기초하여 장군님의 위인상을 전하는 추모설화들을 수집정리하여 추모설화집 《백두산에 지동이 일다》에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신 아버지장군님을 잃은 우리 인민의 비통한 감정과 그이를 칭송하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편집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인 백두산에 지동이 일고 천지의 얼음장들이 갈라터지며 련이어 우뢰와 같은 소리를 냈다는 설화 《백두산의 곡성에 우뢰울고 천지변화가 일어났다》, 사시장철 마를줄 모르고 수정같은 맑은 물이 넘쳐흐르던 샘터에서 진흙물이 솟구쳐올랐다는 자연현상을 담은 《땅이 피눈물을 쏟고 샘터가 말라버리다》, 12월 한겨울에 대홍팡에 다문다문 소담하게 고운 버들개지들이 피어난 신비경을 담은 《대홍팡의 버들개지》, 룡남산에서 12월 20일 밤 꿩들이 갑자기 구슬프게 울어 호상을 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비통한 마음을 더해주었다는 이야기 《룡남산

주 체 문 학 의 대 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 인민이 사회력사의 주체로서 누리고있는 금지높고 보람찬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낼것을 요구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야말로 누구나 다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적리념에 맞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주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이다. 문학예술에서는 마땅히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성장한 우리 인민의 금지높고 보람찬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의 신기한 조화》,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일이 거의나 없는 산매 17마리가 18일 무리지어 날아와 굴지의 대기계공업지구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둔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영상작품을 중심으로 맺고 패 돌고는 모자이크영상작품이 모셔진 곳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이한 현상을 담은 《락원땅에 날아온 17마리의 산매》, 78년만에 쏟아진 2011년 12월 28일의 폭설, 류달리 이상하게 쏟아지고 참으로 신기하게 벗은 이날의 기이한 일기상태를 담은 《장군님과 흰눈》...

애도의 나날 낮에 밤을 이어 계속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은 우리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위대한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더 크게 하였다. 추모설화들은 백두산지구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전국각지의 공장과 농촌, 산과 강들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을 보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굽을 적시면서 하는 목격자들의 말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추모설화로서의 격을 높이고 정서적감화력을 크게 하였다.

추모설화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선군혁명위업완성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듯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수도와 지방의 곳곳에 무지개가 곱게 비끼고 엄동설한에도 꽃들이 피어나는 신기한 자연현상들을 담은것들도 있다.

세포군 후평리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날이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날인 12월 24일 오후 4시경에 뿌옇던 하늘이 갑자기 맑아지더니 뜻밖에도 한끝은 이웃마을 발전소쪽에 뿌리를 박

고 다른 한끝은 서쪽 평양방향으로 뻗은 아름다운 세쌍의 무지개가 비꼈다는 자연현상을 담은 설화 《세쌍의 무지개》, 정일봉상공에 거대한 기폭이 드리운듯 진하게 타는 노을이 비낀 현상을 담은 설화 《영원한 태양이 주는 봄빛》...

12월 25일 아침 장자산혁명사적지가 자리잡은 장자천의 길게 뻗은 버들가지마다에 햇숨같이 하얗고 보드라운 털에 싸인 버들꽃들이 피어난것을 본 녀강사들은 《난 눈속에서 피어난 이 버들꽃을 보니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것 같아요.》, 《웁아요. 나도 이 버들꽃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추위를 이겨내며 피어났다고 생각해요.》, 《난 이 버들꽃들이 장군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시였으나 그이의 념원은 이 땅우에 반드시 꽃피난다고 속삭여주는것만 같아요.》라고 걱정예 목메여 말하였다.

12월의 흑한속에 피어난 장자천의 버들꽃! 그것은 정녕 슬픔에 잠긴 우리 인민들에게 장군님 그 대로이신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여 이 땅우에 강성국가의 봄, 조국통일의 봄은 기어온다는 확신을 안겨주려고 유서깊은 장자산이 피워낸 희망의 봄맞이꽃이 아니겠는가.

기이한 자연현상들과 인민들의 충정의 세계가 반영된 추모설화들에는 아버지장군님을 끝없이 그리며 영원히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 장군님께 못다 바친 충정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 바치려는 불타는 맹세가 어려있다.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고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같은 신념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선군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결의를 담은 추모작품들은 선군조선의 진군길에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되어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조 선 의 새 벽

류 민 호

동녘하늘이 흰히 들리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새벽도 이른새벽
바로 이런 시각이 아닙니까

이 나라의 산천을 깨우시며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여시고
인민들을 찾아 떠나시던
아버이장군님

오늘도 새벽이면
소문없이 찾아오실것 같아
야전차의 경적소리 울리며
우리를 찾아 들어서실것만 같아
서둘러 구내길에 나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새벽잠도 없다 하시며
동트는 새벽길을 떠나시던
장군님 그 모습 사무치게 어려와
더더욱 그리워지는 마음

—잘 있었소?!
환한 미소 지으시며
우리들을 그날처럼 한품에 안아주실것만 같은
자애로운 그 모습
가슴속에 안고사는 마음입니다

새벽
생각도 많아지는 새벽
이런 새벽이 아닙니까
찾아가신 초소의 병사들 단잠을 깨울가봐
찬이슬 맞으시며 기다려주시던 장군님

그렇게 하루일을 시작하시어

가 사

해빛같은 미소속에 우리들을 품어안고
심장의 정과 열을 아낌없이 주시는분
장군님 꾸려주신 대가정을 꽃피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산을 넘고 파도 넘어 전선길 걸으시며
언제나 병사들과 한전호에 계시는분

긴긴 열두달 휴식도 없이
그 어딘들 안 가셨으랴
인민들 다 깊이 잠든 밤
잠시 쪽잠에 드셨다가도
문득 깨어나 현지도의 길에 오르시고

일군들이 너무도 안타까와
잠시라도 쉬실것을 권고하면
인민들이 잘살 때 꼭 쉬시겠다고
밤이 없으시던 장군님의 헌신이어

아, 세월간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지난 한해
우리들이 새벽잠을 잊고
동트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하면
장군님 모시고 일하던 나날
우리 더 일찍 깨어나고
장군님 지새우신 그밤들을
우리가 다 안고 지새웠더라면...
이렇게 이 가슴에 자책이 크면 클수록
그리움도 더 커지는 우리의 마음

새벽이면 오십니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의 붉은 노을과 함께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오시어
강성부흥의 새날의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천만군민이 우러러 받들어모신
김정은원수님과 함께 오시어
천만년 무궁할 이 땅의 미래를 축복하시나니
아, 조선의 새벽은
장군님품에서 하늘이 열리고 동이 뜹니다

고 맵 습 니 다

박 철

장군님 사랑어린 삶의 요람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운 그이앞에
동지되고 전우가 된 참된 의리 다하리라
장군님 뜻 받들어 내 조국 빛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영원한 수령 흠모의 송가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국보적작품들중에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 불리워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 있다

이 명작이 창작되기까지에는 참으로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주체60(1971)년 10월말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창작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태백산병동장면에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충정심을 높은 형상으로 잘 보여줄데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극에서 주인공을 텅 빈 태백산병동자리에서 그저 안타까와하는 모습으로 형상하였는데 그러지 말고 아버지수령님을 그리며 끝없이 흠모하는 주인공의 절절한 심정이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인공인 강연옥이 갖은 고생을 다 하며 태백산병동을 찾아왔을 때 방창으로 극적정황을 펼쳐보이고 주인공이 장군님을 그리워하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어데 계실가, 내가 이렇게 울고있는것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라고 말을 하고 장군님은 어데 계십니까라는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장면의 기본형상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순간 창작가들은 너무도 훌륭한 형상안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가들에게 이 장면을 살리는데서 제일 중요한것이 주인공이 부를 주제가라고 하시며 주제가를 잘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며칠밤을 새우며 수백편의 가사를 창작하였다고는 하지만 종내 주제가라고 할만 한 가사는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11월초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조현장에 몸소 나오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한편한편의 가사를 다 보아주시였다. 하지만 선택할만 한 가사가 없었다.

깊은 밤 집무실로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끝없는 사색을 펼쳐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인공의 심정을 그려보시였다.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오직 수령님 한분만

을 그리며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고 수령님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주인공의 그 마음은 수령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신념이였다는것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확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흰 종이에 한자한자 적어나가시였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리웁니다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장군님
자나깨나 뵈고싶은 우리의 장군님
머나먼 적후에서 복벽하를 우러러
전사들은 아침인사 드리웁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사람을 전하며
아침해빛 전사들의 길을 밝히네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기어이 기어이 찾아가리라

어느덧 새날이 밝아올무렵 가사를 다 쓰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협주단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자신께서 친히 창작하신 가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가사를 받아안은 그 일군은 걱정에 넘쳐 보고 또 보았다.

불수록 자기 수령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오게 하는 명가사중의 명가사였다.

그날 아침 인민군협주단 창작가들도 가사를 받아안고 뿔어오르는 감격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명가사에 곡을 붙여 혁명가극의 주제가를 형상하게 된 창작가들의 영광과 기쁨은 그대로 가극을 훌륭히 완성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끓게 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조국강산에 영원한 수령흠모의 송가로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이 하늘 이 땅에 서...

정 철 학

일년은 길던가, 짧던가...

가슴어이는 슬픔과 피갈은 맹세, 거세찬 힘의 분출이런듯 세인을 놀래우는 대변혁의 나날들이 흐르고흘러 이 땅에 12월이 왔다.

12월의 이날을 맞아 만수대언덕을 찾는 사람들의 흐름에 끼워 나도 평양의 거리를 걷는다.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가는 사람들이며 눈앞에 펼쳐진 거리의 전경 하나하나가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시며 키워주신 인민들이고 지금 걷고있는 이 거리가 1년전 인민의 통곡소리가 진감하고 흘리는 피눈물에 흰눈도 녹아내리던 영결의 그 거리가 아니던가.

이 나라 천만자식들이 상제가 되어 위대한 아버지와 영결하던 그날이 어제런듯 눈앞에 떠올라 우리의 마음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쳐있다.

옛글에 자식이 효도를 하려니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이 말은 부모가 돌아간 후에야 부모의 수고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못다 바친 효도를 후회하며 한탄한데서 지어진 말이라.

하다면 우리모두가 그러한 불효자식들이 아닐가.

우리는 매일 신문과 텔레비존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소식에 접하면서 흥분속에 격동되고 기뻐하면서 그이의 천만고생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이도 인간이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 강철의 의지와 열화같은 인간애를 지니신 절충한 위인이시였으나 휴식도 하셔야 하고 건강도 돌보셔야 할 인간이시였다.

하지만 그이는 슬하의 천만자식들을 돌보시느라 언제 한번 편히 쉬실 때가 없으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줄 미처 다 몰랐다.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해, 우리 인민의 천만년 무궁한 행복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던 우리들이었다. 그이의 건강하고 정력에 넘치는

모습에서 기쁨을 찾고 힘을 얻으며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온 우리 인민이었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과 함께 그이께서 오래동안 치료를 받아오셨다는 사실앞에 너무도 놀라와 가슴어이는 슬픔을 안고 땅을 치며 오열을 터뜨리지 않았던가.

불편하신 몸이였건만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애국의 불타는 열정으로 사업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을 하시다가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으니 우리는 모두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볼수 없는 큰 죄를 지은것이 아니라.

나는 평양의 거리를 걷는다. 그날의 영결의 거리를 추억을 더듬으며 걷고 또 걷는다.

어느덧 평양체육관앞에 이르니 영결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령구차앞을 막아서며 쓰러져 목청껏 장군님을 찾고 부르던 그때의 광경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가슴을 저리게 한다.

아버이를 목메여 부르며 가시면 안된다고, 가지 못한다고 막아서던 그날 우리의 가슴을 짝 채운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그이 계시는 그때엔 왜 이렇듯 앞을 막아서지 못했던가 하는것이였다.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을 떠나실 때도 칼벼랑아스라한 오성산과 철령, 눈보라 휘몰아치는 북방의 공장들을 찾으실 때 가시면 안된다고, 가지더라도 잠시라도 쉬시고 좋은 날 좋은 길로만 가시라고 그이의 야전복자락을 잡고 간청하지 못한 우리들이다.

초소마다, 일터마다 장군님 모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이 오실 길을 쫓고 또 쫓며 그리움에 날과 날을 보내던 우리들이건만.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무릎꿇고 그이 오시는 길에 막아서며 울며 아뢰리라.

이제 더는 험한 길을 헤치시며 오시지 말아달라고, 말은 일 더 잘 하려니 찬눈길을 걷지 마시고 찬눈비를 맞지 마시라고 눈물속에, 맹세속에 아뢰고아뢰리라.

아, 아버이의 모진 고생 헤아리지 못하고 응석만을 부려온 천만자식들의 뼈저린 회한이 그대로 피눈물이 되어 눈발과 함께 날리던 12월의 그날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우리 장군님의 한생에는 봄, 여름, 가을은 없이 오직 눈보라 사나운 준엄한 겨울만이 있을듯 하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인민을 안아일으키시고 고난의 시기 그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그이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을 끝끝내 행복의 만리가 눈앞에 펼쳐진 리상의 언덕에 세워주시고 그렇듯 가시였으니 우리의 가슴에 가득찬 절통함과 회한이 한해가 지났다고 덜해지며 백년, 천년이 흘렀다고 가셔지랴.

누구나 경탄을 금할수 없으리만큼 현대적이고 화려한 창전거리의 전경이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눈뿌리를 끌며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인민의 행복을 안고 하늘높이 솟아오른 몇쟁이거리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구차가 이 거리를 지날 때 그이께 완공된 거리를 보여드리지 못한 절통함을 안고 건설자들은 가슴을 치며 오열을 터뜨렸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전거리를 찾으시여 집집마다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시며 행복을 축복해주실 때 우리 인민은 그 환하신 태양의 모습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더더욱 장군님이 그리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나는 마음도 송엄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계신 만수대언덕으로 오른다.

대국상의 그 12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했던것을 두고 얼마나 통탄하며 가슴을 쳤던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이 소

원을 헤아리시여 전국도처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여기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시도록 하여주시였다.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반겨맞아주신다.

뜨거운 격정속에 서있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지난날에도 당과 수령에게 충직했던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잘 받들어모셔가라고 태양의 미소속에 당부하신다.

우리는 꽃다발을 드린다. 절세의 위인들의 당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천만마디 말로도 다 담지 못할 목숨같은 맹세를 붉은 꽃송이우에 얹어 삼가 드린다. 그리고 우러른다. 수령님 가리키시는 그곳, 강성국가의 령마루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목메여 우러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으로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꽃피나는 이 나라 강산을 굽어보시며 대원수님들께서는 만시름 놓으시고 환하게 웃고계신다.

만수대언덕을 내리는 우리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락원의 거리로 일떠선 창전거리며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전변된 룡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등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전경으로 우뚝이 바라보인다.

그 전경에서 더욱 아름다와질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우리는 확신한다.

이 하늘, 이 땅에서 태양의 세월은 영원히 흐르리라...

가 사

그리움의 세월은 영원하리

조 영 일

동터오는 아침이면 이 가슴속에
간절한 그리움이 노을처럼 불타네
우리 일터에 오셨던 장군님모습
저 하늘의 노을속에 어려웁니다
아 그리움의 세월은 영원하리

눈내리는 저녁이면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리움은 깊어만 가네
찬눈길에 새겨진 장군님자욱

밤하늘 저 별빛에 그려봅니다
아 그리움의 세월은 영원하리

그리움에 날이 밝고 해가 저무는
이 땅엔 그리움의 세월이 흐르네
자나깨나 못 잊는 태양의 모습
인민들은 심장속에 모시고 사네
아 그리움의 세월은 영원하리

이해를 보내는 마음

한 원 희

천만심장이 높이 추켜들고 달려온
우리 당의 붉은기와 같이
너는 하늘가득 장엄하게 불타누나
노을아 저무는 이 한해의 저녁노을아

가는 해를 붉은기로 소중히 감싸안고
가지가지 못 잊을 추억을 불러내며
온 나라 강산을 물들이는 네 모습
눈시울 뜨겁게 안겨와 진정할길 없구나

아버이자군님을 잃고 맞이했던 새해
그이의 유혼을 목숨바쳐 관철하리라
천만국민이 터치던 그 맹세를 안고
총진군길에 불타올랐었지

내 나라 내 조국의 하늘땅 끝까지
너는 숭엄하게도 비껴왔더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뜻깊게 경축하던
그날
폭풍같은 환호성을 안고
인민의 다함없는 마음을 안고

아, 천금과도 바꾸지 못할
이해의 하루하루를 축복하며
아침에 저녁에 불타던 노을아
너는 보았더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이 땅에 강성부흥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루하루를

일년 열두달 그 어느 하루인들
걱정의 바다를 펼치지 않은 날 있었던가
떠오른다 떠올라 가슴을 친다
소년단원들은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라고
6.6절은 조선소년단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인민의 소중한 명절이라고 하시던
원수님의 그 모습 그 환하신 미소
소년단벚타이 매신 그이를 우러러
온 나라가 감격의 눈물을 쏟았었지

어이 잊으랴 잊을수 있으랴
전쟁로병들을 혁명의 선배로만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대한다고
전승절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던 그 은정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이라고
청년절을 나라의 큰 명절로 펼쳐주신 그 마음

너의 붉디붉은 빛발속에 어려오누나
한척의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놈들의 함선들을 파도멀리 쫓아내시며
서해의 외진 섬초소를 찾으시던 그날이
감나무중대의 마지막녀병사까지
한사람 한사람 가까이 세워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모습이

전선에서 돌아오신 그 걸음으로
친근한 동지처럼
허물없는 전우처럼
성냥을 가지시고 선물을 가지시고
창전거리새집들이한 로동자가정을 찾으시던
그날은 또 얼마나 전설같은 사랑을 베푸시었던가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이
이 땅에 눈부신 전변을 안아왔구나
숨결높은 공장들 제철지구들...
산악같은 언제들 선경거리 선경마을들...
부강변영하는 조선의 위용이...

아, 이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빛내주신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해
병사들과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위대한 사랑의 정치가 기적을 창조한 해

이 한해를 붉은 빛으로 소중히 감싸안고
온 나라 강산에 불타는 노을아
말로는 다 할수 없는 진정을 담아
2012년을 떠나보내는 인민의 마음
네가 다 안고 장엄하게 불타는구나

불타라 불타라
꺼질줄 모르는 노을아
흐르는 세월속에 이해는 가도
인민의 마음속에 이해는 영원히 가지 않으리라
우리 조국의 력사속에 찬란히 빛나리라!

12월의 노래는 영원하리

리 정 응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억한 마음
가슴이 미어지는듯 한 절통함을 안고
12월의 그날에 울리던 노래 다시금 돌이켜보며
아버이장군님의 명언을 새겨본다
《시는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아버이장군님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이 나라 강산에 메아리치던
우리 시인들의 목소리 오늘 또다시 되새겨보자

1

민족의 아버이를 잃은 그 나날
우리 시인들 상상이나 했던가
피눈물의 곡성 터치는 인민의 감정
운물에 담아 시줄에 옮겨야 할줄
펼쳐본다 한편의 뜨거운 불덩어리
언젠가는 우리 장군님 소식이 그리워
《아침보도는 짧았다》고 걱정 터치던
시인 문용철의 노도치는 시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
시인의 감정은 처음부터 격렬하다
《하늘이여
땅이여
듣느냐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이를 찾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피눈물의 곡성 피타는 저 부름을》
시인은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노래한다
꾸미지도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맥맥히 굵이치는 인민의 감정을 그대로 담았다
그래서 시의 운물에 나래치는
서정의 격류는 파도친다 폭풍친다
《하늘이여/땅이여/듣느냐》
《아버지를 부르는/아버이를 찾는》
《피눈물의 곡성/피타는 저 부름을》
첫련에서부터 고조된 감정을 타고
시인은 격조높이 피눈물의 노래를 부른다
《홀러홀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된
피눈물 피눈물》이며

《조용히 벗어선 야전렬차》의 기적소리를 불러
《슬픔에 짓눌린 이 심장
또다시 갈가리 찢길지라도》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부르는
아버이의 그 목소리를 실어
다시 울려달라는 시인의 웨침은
우리 인민의 애절한 소원을 담은
피끓는 심장으로 웨치는 진정의 토로
우리 장군님께
너와 나 우리가 무엇이어서
《심장의 마지막박동
생의 마지막숨결을
우리의 천만심장에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가시였던 말인가》
그렇다 내 심장 우리의 심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어주신
《심장의 마지막박동/생의 마지막숨결》을
그대로 받아안고 뉘뉘는 것이었구나!
아버이를 부르고부르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마음을 안고
이어지는 시인의 목소리
《사랑하는 인민에게 남기신것은
자신을 깡그리 불태워
그 한생 뿌리되어 받드신
만복이 꽃피는 이 땅 이 강산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무적의 대강국》
우리는 시의 구절구절에서
알면서도 모르고있던것을 느끼고있다
평범한 속에서 비범한것을 발견하는것
이것이 바로 시인의 몫이 아닌가
시인은 우리 아버지께 대한 크나큰 감정을
보석같은 세부를 찾아쥐고 구체적으로 노래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을 위해 남기신것은
전호가에 혼술이 다슬고
전선길의 눈비가 스민
야전복 한벌뿐인 우리 아버지》
아,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붓이 떨린다
수령님을 잃고 17성상
수령님 맡기고가신 조국을 지키시려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선군혁명천만리가
《전호가에 혼술이 다슬고

전선길에 눈비가 스민
 야전복 한벌...》
 이 짧은 시줄속에 다 담겨져있거니
 우리 그 의미를 심장으로 다시 새겨보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전선에서 사신 백두령장의 거룩한 모습을
 하기에 시인은 인민의 심정을 대변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순직하신 곳은
 《조국과 인민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 행복과 번영을 위한 최전선에서
 자신의 심장을 바치신것》이라고 노래했다
 더 높이 솟구쳐오르는 시인의 격정
 시인은 자신의 심장을 터치며
 《**김정일**장군의 영웅한 병사들》과
 《장군님품에 자란 충직한 인민》들을 다 불러
 《비애의 눈물이 아닌
 피같은 맹세의 눈물로
 군기의 기폭을 물들이라
 백승의 총대로
 승리의 노을을 삼천리강토에 펼치라》고
 《백옥같은 충정의 눈물
 불같은 애국의 눈물
 공장과 일터마다 거세찬 비약의 불이 되어
 흐르고흐르게 하라》고 격조높이 웨친다
 그해야만이 반드시 그해야만이 그 눈물이
 《장군님의 자옥어린 이 땅에 스미고스며
 봄이면 그이 펼쳐주신 새 과원에
 그 사랑 꽃바다로 설레이게》 할수 있고
 《그 방울방울 접점이 불씨가 되어
 그이 심장으로 지퍼주신 함남의 불길이
 2012년의 찬란한 봄노을》을 펼칠수 있다고
 바로 이것이 슬픔과 비애에 찬
 피눈물의 바다우에서 터친 시인의 격정이거늘
 그렇다 시인은 슬픔과 비애
 그리고 절통함만을 노래한것이 아니다
 시인의 격동된 웨침을 들어보자
 《슬픔을 박차고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엔
 또 한분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이 서계시거니
 조국이며 인민이며 일떠서라
 발걸음 척척 앞으로! 앞으로!》
 또 한분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
 슬픔과 비애의 감정은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힘과 용기 광명과 미래로 이어진것!
 우리는 정녕코 다시 말한다
 이 시는 결코 눈물의 시가 아니다
 이 나라의 천만자식 장군님의 아들딸들을
김정은동지따라
 《발걸음 척척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자고 부르는 투쟁의 시이거니
 《세기를 밝혀준
김정일동지의 사상
김정일동지의 신념은
 불멸의 기치로 역사를 이끄는
 선군의 기관차우에 펄펄 나뭇긴다
 오, 선군의 태양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의 머리우에 빛발치리라》
 시인은 시대의 부름과
 인민의 지향을 담아
 이렇게 웨치고있다

2

얼마나 많은 시들이 그 나날에
 우리의 심장을 울렸던가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는 전하였다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대로 시어가 되고 운율이 되어
 《야전차는 멎지 않았다》
 《병사들은 장군님을 못 잊습니다》
 《백두산은 솟아있다》 등
 수많은 시가작품들이
 애도기간에 창작발표되였다고
 그렇다 피눈물의 바다에 붓을 적시여
 우리의 시인들 심장의 노래를 불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전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인민이며 우리에게 **김정은**대장이 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굽이쳐흐르리라》
 (리창식, 리태식)
 《위대한 상봉》(최남순)
 《12월의 맹세는 불란다》(김영남)
 ...
 짧고 더 짧아도 세일수없이 많은 작품들
 그 어느 작품을 보아도 한눈에 안겨온다
 시인의 격정에 흐르는 시대의 주도적감정
 그것을 토로하며 나타난 하나의 특징
 《하늘을 가리우는 조기와
 심장을 어이는 저 추도곡을

정녕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것처럼 인자하신 우리 운명의 아버이를
 피눈물속에 이렇게 바래워드려야 한단 말입
 니까》
 (추도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평전에》 중
 에서)
 《가슴이 찢긴다
 눈보라이는 이 하늘이
 강추위에 얼어든 이 땅이
 피눈물에 녹아내릴줄
 우리 상상이나 했던가》
 (시 《인민이여 우리에게 **김정은**대장이 계
 신다》 중에서)
 《영결이란 말인가
 정녕
 온 나라 인민이 상제가 되어
 아버이의 마지막길을 바래우자고
 비애의 거리에 나섰단 말인가》
 (시 《위대한 상봉》 중에서)
 《천년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대국상의 이 아픔
 영결의 거리거리에
 피눈물을 뿌리며 선 인민이여
 우린 왜 이런 날을 맞이해야 하는가》
 (시 《12월의 맹세는 불탄다》 중에서)
 더 실례를 들지 않은들 모르랴
 매 시의 첫편에서 반복되는
 시인들의 피라는 절규
 누구에게라없이 물어보는 시인의 걱정이며
 민족의 아버이를 잃은 아픔에
 믿을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가
 말문이 막힌 곳에서
 수사학적물음은 똑같이 하나!
 단순한 물음이 아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물음은 더욱 아니다
 억한 시인의 심장에서
 달리는 나을수 없는 하나의 목소리
 표현수법만 같은것이 아니다
 시적계기도 하나같다
 피눈물의 바다위에 서서
 온 나라 인민을 향해
 전세계 진보적인류를 향해
 심장의 문 활짝 열어젖히고
 시인들은 웨치는것이다
 자기 교유의 목소리로
 우리의 장군님은 영생하신다는 진리를
 추도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평전에》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한평생 바람찬 한지에 계시며
 인민들에겐 행복의 락원을 안겨주시고
 우리결을 떠나실 때조차
 눈보라속을 달리는 야전렬차에》 계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을
 추도시의 장중한 양상으로 되새겨보며
 아버지장군님은 인민을 남겨두고
 절대로 걸음을 멈추신것이 아니라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우에
 영원한 태양으로 빛나며 영생하신다는
 심오한 철학적진리를!
 시 《위대한 상봉》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인민이 통곡하는 거리에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는 시적화폭으로
 강렬한 극적대조를 주면서
 이 세상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와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인민에겐
 영결이란 없다
 위대한 상봉만이 있다는 시적발견을!
 장시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굽이쳐흐르리라》는
 《수령님 열어주신 승리의 길을
 백년천년 만대에 이으실 의지》
 《승리의 길》 그 노래에 실으시고
 2012년의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시며
 장군님께서 폭풍치는 대고조전선들을 이끌어
 초강도의 강행군을 하신 나날들을
 장시의 풍격에 맞게 펼쳐보이며
 2011년 이해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가 아니라고
 우리의 **김정은**동지 폭풍쳐몰아가시는
 선군혁명의 기관차에 실려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흐른다는 시적발견을!
 매 시편에서는 서로 다른 독특한 시적발견!
 여기서 시인마다의 고유한 목소리 들려오고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이 안겨오는것이다
 ...시인들은 시적세부와 시문장을 탐구했다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에는
 장군님의 한별뿐인 야전복세부
 추도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평전에》에는
 이 나라 인민의 심장을 에이는 세부가 있다
 《장군님의 나라에
 수천만의 자식들이 살면서도
 아버이의 동상이 없다니 웬말이냐》고
 장시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굽이쳐흐르리라》는
 눈물없이 볼수 없는 세부들로 이어진다

가고가신 그 길이 너무도 멀고 험해
 자주 무릎을 두드리시며
 무거운 발걸음 힘겹게 짚으시며 찾아주신
 대흥과 룡양의 긴긴 광구길이며
 희천과 룡림의 언저리
 평양제1백화점의 하많은 층층계단세부
 탐스런 사과가 무르익는 가을날
 룡전의 새 과원을 찾아오시며
 주렁진 사과알들이 잘 보이게 찍으라고
 장군님 마음 기울이신 사진세부
 못 잇을 만단사연 깃들여
 불러만 보아도 눈곱이 젖는
 장군님의 살불이 CNC세부...
 이런 세부들이 모여 시가 되었다
 가슴치는 그 세부들은
 시인의 뜨거운 심장을 거쳐
 시구절로 옮겨져 우리의 가슴을 더욱 울린다
 세부는 시인의 언어구사력과 결부되어있다
 새겨보라 우리 장군님의 말씀
 《언어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고 하신
 그렇다 우리는 위인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세차게 울려주는 시구절들을 더듬어본다
 —추도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령전에》 중
 에서
 《인민은 나의 하늘이라고
 인민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눈도 바람도 차지 않다고 하시며
 이 나라 험한 령 험한 길 다 넘고 걸으시더니
 어이하여 그 불같은 걸음을 멈추셨습니까》
 《그 기쁨과 행복이
 피눈물로 바뀔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도 억이 막혀
 언땅을 뜯으며 언땅을 두드리며
 ...
 오열을 터치는 자식들의 눈물에
 12월의 빙설이 다 녹아내립니다》
 《빨찌산의 아들을 잃은 비분의 눈물에
 백두산고향집추녀의 고드름이 녹아내립니다》
 《오직 혁명을 위해 걸어오신 그 자욱자욱에
 인민의 피눈물이 고입니다》
 구절구절 다 옮겨야 할것 같으나
 그러나 이 대목만은 다시 새겨보자
 아버지의 동상에 대한 가슴치는 시구절
 《세제는 봄니다
 이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불멸하는
 절세의 애국가

위대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대돌이 아닌 인민의 심장속에
 자신의 동상을 세운 위인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구절들을 보며
 다시금 생각한다 느낀다 절감한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를
 절세의 위인을 모셔왔는가를!
 우리 장군님 지니신 고매한 품모를!
 《이제 수령님 100년사앞에 열어제길
 력사의 문고리를 쥐신채
 조용히 심장의 박동을 멈추신 장군님》
 《그런 기적을 안아올수만 있다면
 하늘도 땅에 끌어내리고
 천만심장이 지구라도 들어올릴것입니다》
 우리의 피줄 한끝까지 타고흐르는
 시의 구절구절이며
 갈망과 열원의 시구절이며
 이것은 우리 장군님을
 천년만년 모시고싶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피끓는 심정이
 시인의 시구절로 뿔어진것이니
 우리 이것을 단순한 시구절로 생각지 말자
 이것은 천만심장의 열화같은 분출
 우리 장군님의 영생에 대한 시적표현은
 다음의 구절에서 보다 새롭게 울리고있다
 《병사들과 인민들을 만나
 따듯이 나누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에서
 장군님의 그 음성은 높이 울립니다
 그 음성은 강성국가의 하늘아래
 통일광장에도 장엄히 울릴것입니다》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시인의 목소리 그것은
김정은 동지 계시여
 우리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믿음
김정은 동지 계시여
 우리 장군님의 령도는 영원하고
 장군님의 위업 주체의 위업은
 승리한다는 확신
 우리는 이 시에서 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척같이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에 축복의 미소를 보내시는
 우리 장군님 태양의 밝은 미소를!
 우리는 시인의 목소리에서 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 가리키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군혁명대오의 힘찬 발걸음소리를!
 그렇다 12월의 노래는 다만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과 슬픔의 노래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은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천년만년 무궁토록 흐를
 우리 조국의 력사속에
 영생하신다는 진리를 새기여주는
 위대한 영생의 노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동지 전우가 되어
 천만심장이 하나로 굳게 뭉치여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백두의 행군길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힘찬 행진곡 투쟁의 진군가
 우리 영원히 12월의 노래
 그날의 노래를 심장에 안고살자
 우리 장군님 령전앞에서
 눈물 흘리며 다진 심장의 맹세

장군님께 못다한 충정까지 합쳐
김정은동지를 더 잘 모시고 받아들여갈 맹세
 그날의 맹세를 영원토록 안고서 살자
 오, 우리는
 아버지장군님 사랑답아 믿음답아 불러주신
 최고사령부의 종군작가
 그 부름 심장에 새기며
 최고사령관을 더 높이 추켜들자
 지금 우리의 최고사령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다!
 우리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종군작가다!
 그 영광 그 믿음 새기여안고
 선군시대의 작가된 책임과 본분을 다하자
 시대를 부르고
 군대와 인민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명작들로 주체문학 선군문학의 보물고를
 더 풍부히 하자
 우리 심장으로 웨치던
 12월의 그 노래를 영원히 잊지 말고
 선군혁명의 총진군가를 더 높이 부르자
 더 힘차게 울리자
 오, 그리움의 노래 영생의 노래 투쟁의 노래
 12월의 노래는 영원하리

상 식

우리 생활과 잔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잔디재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금잔디 났으며 첫걸음 떼고 애국가 들으며 꿈을 키운 곳》이라는 노래구절도 있듯이 잔디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의 감정, 잔디와 더불어 펼치는 생활에 대한 정서는 류다르다.

원림록화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잔디재배가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세계적으로도 잔디연구 및 생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잔디는 매우 쓸모있고 유익한 지피식물이다.

잔디록지(잔디밭)는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미기후조성 및 소음방지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1정보의 잔디밭은 매일 900kg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600kg의 산소를 내보낸다. 잔디밭은 또한 온도와 공기습도를 조절하며 미기후를 조성한다.

잔디는 다른 지피식물에 비하여 토양을 보존하고 그것의 류실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대단히 크다.

뽁뽁한 잔디밭은 매우 훌륭한 러파기라고도 말할수 있다. 잔디밭은 일정한 살균성분을 내보내어 공기중의 세균함량을 낮추고 소음공해도 줄인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잔디록지를 리용하는 과정에 심리적압박감을 덜고 피로를 인차 회복하게 된다.

잔디밭은 체육경기장의 기초로 된다. 축구경기장, 골프장, 경마장 등의 잔디밭은 사람들의 체력단련과 경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최근 잔디생산에서는 흙을 전혀 쓰지 않는 무토양잔디떼생산방법이 추세로 되고있으며 이미 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되어 적극 도입되고있다.

이 방법의 우점은 잔디떼의 무게가 가볍고 생산주기가 짧으며 질적으로 균일할뿐아니라 벽면, 지붕, 기둥 등에도 쉽게 잔디떼를 입힐수 있는것이다.

우리 사는 산천에 푸르름을 더해주고 보다 맑고 청신한 환경속에서 정서생활을 누리게 하여주는 잔디를 더 많이 심고 잘 가꾸어야 할것이다.

불 타는 설경

김 선 화

이 땅에 12월이
예나 다름없이 찾아왔다고
하늘이 미여지게 흰눈이 내리는가
눈 눈 흰눈이 내리니
온 한해 하루같이 타끓던 그리움
그 그리움이 분화구를 터쳤는가

아, 우리 장군님
사랑의 숨결 헌신의 자욱자욱
류달리도 정깊게 어리어있는
구내길도 삼가 밟기 서슴어지는
황철의 수십리 구내와 구내에
뜨겁게 불타는 설경이어

용해공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것 없다시며
지퍼주신 자동화의 봉화는 얼마나 뜨거웠던가
오시여 주신 믿음 가시며 남기신 사랑
얼마나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의 분출이런듯
송이송이 내리는 흰눈을 물들이며
철탑마다 하얗게 핀 서리꽃을 물들이며
사품쳐끓는 붉은 쇠물이어
힘차게 밀어내는 레루의 불줄기여
홀날리는 불보라여

답 시

정녕 온통 뜨거운 불의 세계가
구내에 펼쳐놓은 설경인가
어버이장군님 애국헌신의 천만리길에
우리 좀더 일찌기
중량레루를 뽑았더라면...

장군님 그토록 바라시고 마음쓰시던
야금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온 나라가 요구하는 강철을
여기 황철에서 팡팡 뽑았더라면
진정 우리들이 제구실을 다했더라면...

아, 너무도 때늦은 후회와 자책
마음속 그리움에 불타는 설경이나
장군님령전앞에서 다진 피눈물의 맹세
이 한몸 깡그리 다 태워서라도
강철로 당을 받들고 조국을 빛내일
결사판철의 맹세로 불타는 설경 아니냐

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더더욱 가까와지는
장군님과 인민 인민과 장군님!
억만년 세기가 바뀌어도 더더욱 뜨거워질
조선의 불타는 설경이어!
하늘이 미여지게 흰눈이 내려라
온 세상 사람들 우러르는 태양의 미소 안고
12월의 설경이 불란다 불란다

시간과 천사이야기

박 응 전

자정도 깊은 겨울밤
파도소리도 잠잠해지고
군항의 불빛도 조으는듯
인민들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섬방어대시찰을 마치시고
군항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
시계를 보시며 놀라시여라
때는 새벽 2시

아침일찍

집무실에서 보셔야 할 중대사
가셔야 할 길은 먼먼 천리
그이는 시간이 촉박하시여
운전사에게 재촉하시여라
—속도를 좀더 빨리
그러자 운전사의 안타까운 대답
—얼음판이어서 더이상은...

이윽고 장군님께선
타이르시듯 말씀하시려

혁명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써야 한다고
지금 나에게 가장 귀중한것은 시간이라고
누가 나에게 시간을 더 준다면
나는 그를 한평생 천사로 받들겠다고

아, 조국수호를 위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그이께 드리는 시간 한초가 한시간
일본이 하루 되게 할수 없을가
하지만 날씨는 추운 겨울
길은 얼음길 야밤의 강판길

—운전사동무
그만큼 정치사업을 했는데
이 속도가 다요?
목마른 사람 우물파기마련이니
어찌겠소 자리를 바꾸자구
하여 끝내 운전대를 잡으시고
놀라운 속도를 내시는 장군님

그이는 운전대만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을 틀어잡으시고
천리길도 단숨에 주름잡아가시는
촉지법을 쓰시여라
그이는 자신이 천사가 되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사랑의 시간 헌신의 시간
비약의 시간을 창조하시여라

세상에 어디 있으랴
우리 장군님처럼 시간을 아끼신분
우리 장군님처럼
년대와 년대를 주름잡아
세기를 앞당겨오신분

오, 우리 장군님은
흐르는 시간을 혁명시간으로 가득 채워
한평생의 시간을 천년맛잡이로 쓰시며
민족만대로 강성번영할
조국의 토대와 재부를 마련해주시었으니
그이의 혁명시간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흐르고있어라

고 향 집 샘 물

김 연

시원히 더위를 가셔보자고
마른 목 추기는 물이 아니다
백살구나무 울창한 오산덕기슭에서
내 정히 떠안은 이 샘물은

물맛에 정들어
찾을 때마다 가슴적시는 물이 아니다
삶의 젖줄기처럼 생각깊이 마셨던
어머님고향집 정겨운 샘물

마실 때마다 눈시울 젖었노라
어머님 설음 많던 어린시절
그 옛 하늘이 어려있는 샘
고향을 떠나며 두만강에 쏟으신
그 설음의 눈물이 고여있는 샘

작은 쪽박에 담아들어도
천만근인듯 마음에 무거웠노라
조국을 찾으시려 불바다를 헤치신
어머님의 혈전의 천만리

수령님을 옹위하여 바치신
불멸의 그 모습 비끼인 샘물

그래서 한모금 한모금이
피가 뚫고 심장이 불같이 타는 샘물
그래서 작아도 바다만 같아
물결쳐 달려오는 천만사람들
두무릎 꿇고앉아
소중히 이 샘 마시는것 아니더냐

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생애를
이 세상 끝까지 줄기차게 이어주는 샘물
이 샘물 안고사는 삶은
그 삶은 보석처럼 빛나고
그 충정 흐려지지 않으려니

아, 고귀한 삶의 젖줄기로
이 땅에 솟구치는 샘물이어!
내 조국의 수령결사옹위의 바다를
세월의 한끝까지 펼치는 샘물이어!

12월에 피는 꽃들

원 현 철

12월이 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잃고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온 나라 강산이 눈물의 바다에 잠겼던 12월의 그날이 다가올수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애석하게 우리결을 떠나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 사무치게, 못 견디게 그리워 만수대언덕을 찾는 우리 인민들이다.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굽이쳐가는 그리움의 대하!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감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나도 그들속에 섞여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만수대언덕을 가까이 하는데 몇발자국앞에서 총총히 걸음을 옮기는 두 소녀가 눈에 띄었다.

단정한 교복차림, 찬 겨울바람에 나뭇기는 붉은 넥타이, 열살이나 되었음직한 어린 학생들이었다.

자세히 눈여겨보니 활짝 피어난 백일홍화분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가고있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백일홍을 꽃피웠을까?...

한겨울에 피어난 빨간 꽃송이들이 이채롭게 안겨와 이끌리듯 다가서는데 두 소녀의 속삭임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이 꽃이 백날동안이나 지지 않고 피어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른대.》

《백날이 아니라 천날, 만날동안 피어있으면 좋겠지. 천일홍, 만일홍이 되게 말이야.》

나는 가슴이 뭉클해나는것을 느꼈다.

백일홍이 아니라 천날, 만날동안 피는 꽃, 천일홍, 만일홍!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잃고 너무도 일찍 철이 든 우리 아이들이다.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는 노래구절에도 있듯이 나서부터 사회주의제도의 혜택만을 받으며 성장한 우리 아이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하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야영길과 등산길에 오

르고 웃음만을 얼굴에 피워올리던 아이들.

그러던 우리 아이들이 천만뜻밖에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그 얼마나 비통함에 몸부림쳤던가.

나의 눈앞에 잊을수 없는 모습들이 떠올랐다. 눈물에 젖은 조의식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목놓아울던 아이들.

장군님의 령구차가 지나갈 길에 내린 하얀 눈을 꽃잎같은 손으로 쓸고 또 쓸고 숨웃까지 벗어 퍼놓았던 어린 그들.

바로 그 아이들이 오늘 저렇게 눈속에서도 꽃을 피운것이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는 나 어린 한 소녀의 모습도 그려보았다. 아직 아버지,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릴 나이에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산사태속에 서슴없이 뛰여든 어린 한현경소녀의 모습.

바로 현경이의 가슴속에도 **김정일**대원수님을 천년만년 모셔가고싶은 철석같은 마음이 가득차있었으리라.

현경이의 가슴속에 뿌리내렸던 그 그리움의 꽃이 오늘 온 나라 아이들의 가슴속에 활짝 피어나 커다란 화원을 이루었다.

꽃은 계절을 따라, 화창한 날을 찾아 핀다고 했다.

그러나 계절이 따로없이 영원히 만발할 이 그리움의 꽃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었는가.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후대들에게 더 좋은 래일을 마련해주시려고 낮이나 밤이나 전선길에 계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을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장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고마움의 눈물만을 흘리지 않았다.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비행기와 특별렬차에 오를 때도 우리 아이들은 감격의 눈물만을 흘리지 않았다.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김정은**원수님의 태양같은 영상을 뵈고 티없이 맑은 얼굴들에 줄줄이 흘러내린것은 무엇이었던가.

영광의 이 날이 있어

장 혜 명

얼마나 기다린 날인가
얼마나 바라던 소원이던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환희여
격정이어

산발은 산발마다
그이를 우러러 키를 쏘구고
동서해 푸른 물도
파도쳐 일어서며 노래하는가
해빛은 쏟아져내리고
가슴은 한없이 설레인다

절대의 지지
눈부신 영광우에 빛나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처음 뵈옵던
그날에 벌써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의 모습으로 계신분

몸소 땅크의 조종간을 틀어잡고
멸적의 포성 울리시던 그 모습에서
인민은 보았다
김일성, 김정일대원수님들처럼
내 나라 내 조국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실
장군의 모습을

가슴속 갈피갈피 슬픔에 절던
12월의 아픔을 거쳐
인민은 심장으로 새겼나니
그 피눈물의 바다에서
그이 아닌 그 누가
이 조선을 안아일으킬수 있었으랴

그이는 온 심장으로
인민을 사랑하시는분
철부지 아이들과 한 약속도 지켜
다시 찾으신 유치원에서
아이들 안고 사진도 함께 찍고
춤노래도 다 보아주시는분

한없이 인민을 사랑하시기에
인민의 원썬들에게는
섬멸의 퇴성벽력을 터치시는분
천하를 떨치시는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셔
배심든든한 마음

그이 높이 드신 보검아래
원썬들은 멸망의 아우성친다
내 나라 3천리에
통일의 새아침은 밝아오고
이 행성의 자주궤도는
영원불변하리라

우리의 최고령도자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날의 감격이어
이날의 행운이어

떠오르는 해도 축하의 해빛 뿌리고
일만초목도 기쁨에 설레는
아, 영광의 이 날이 있어
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
인류의 머리위에
평화의 하늘은 푸르려 영원하리라

김정은원수님따라 영원히 선군조선의 꽃으로 피
여날 굳은 맹세의 눈물, 충정의 눈물이였다.
그렇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천, 수만송이의 백일홍
들이 피어나고있다. 아니, 천일홍, 만일홍들이 피
어나고있다.

그 꽃들은 대원수님께서 씨뿌려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꿔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행복한 우리 아이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 꽃들은 영원히 시들줄 모르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로 억세게 자라나리라.

품어오르는 격정속에 나는 백일홍화분을 안고가
는 두 소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우다!

리 찬 호

인적드문 깊은 산중
구름우에 보이는 자그마한 초소
여기에 하늘높이 최고사령관기를 올리며
승엄함에 가슴젖는 이 시각
평범한 병사인 나도
눈부신 태양 우러르며 세계를 굽어본다

총창 높이 추켜든 나의 자세
어찌하여 이리도 도도해지는것이나
멀리 산발들에 가닿는 눈빛도
자신심에 넘쳐 엄엄해지는것이나

산을 넘고 강을 건느며
훈련길에 무수히 흘린 땀방울도
시대의 기념비들에 바친 량심도
더없는 보람과 긍지로 느껴진다

수풀도 총검인양 서슬푸른 전호에서
결전의 날 총창 비껴들고 나아갈
돌격로를 그려보며
신심과 희열에 넘쳐있는 병사들

오, 못 잊어라
지휘관과 병사들은 다같이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이라고
하늘같은 믿음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원수님

그 어떤 칭호가 대신할수 있으랴
그 어떤 표창이 대신할수 있으랴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우!
찬눈비 내리는 전호에서
총을 안은 피더운 심장들이 속삭인다
천하를 다 준대도 아니바꿀 이 사랑

그속엔 다 깃들어있어라
이 세상 모든 정과 사랑
그속엔 빛나고있어라
군공으로 빛나는 삶 금별의 위훈
승리자의 존엄과 인생의 환희

아, 이 땅우의 보통병사들에게
위대한 령장께서는
자신의 심장을 단 한마디로 다 주셨나니
최고사령관의 전우!

그 고귀한 부름은
이 나라 병사들을 영광의 절정에 세워준 믿음
삶과 행복의 전부와도 같은
그 사랑과 믿음이면
내 한생엔 더 바랄것 없나니

백두의 선군령장을 따라
준엄한 결전에서 위훈을 떨치지 못한다면
감히 외우지도 못하리라
먼 후날 후대들에게도 땀땀이 자랑할
내 삶의 가장 큰 보람과 영예
믿음중에도 가장 큰 이 믿음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병사
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우다!

12월의 흰눈아 외 1편

박 현 철

하얀 눈아!
너는 겨울에만 내린다지만
아니구나 아니구나 12월의 흰눈만은
일년 사계절 하루도 멈춤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내리고 또 내렸구나

씨뿌리는 계절이 왔다고
어서빨리 전야로 나아가라고

종다리 지종대던 봄들판에도 내렸지
레년에 드물게 땡별을 쏜던 여름에도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에도
내리고 또 내리던 12월의 흰눈아

그 누가 눈송이는 가법다 말했던가
우리 마음의 하늘가에서 무거이 무거이
온 한해 쏟아지던 그 흰눈은

아버이장군님을 잘 받들지 못한
죄많은 자식들의 가슴속에 떨어지던
돌덩이...

아, 내리고내리며
우리 가슴 광광 두드리고두드리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치던 흰눈아
우리 장군님처럼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라고
불같은 애국을 가르치던 흰눈아

그래 너는 내리고내리었다
장군님령전에서 가슴치며 흘리던 눈물은
물이 아니라 심장의 붉은 피 그것이였다고
그날의 그 맹세를 잊지 말라고
그날의 그 맹세를 목숨바쳐 지켜가라고
삶의 순간마다 내리고 또 내렸다

따뜻한 봄날 찾아온 그 봄에
너를 맞으며 피눈물을 삼키며 들로 나아갔다
한여름 불볕속에 낮과 밤도 모르고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의 총막을 울리며
쇠물을 뽑고
발전소언제들을 더 높이 쌓고
주체비료를 쏟아냈거니

그 나날 6월의 푸른 하늘아래서
조선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던 원수님을 우러르며
사무치는 정의 눈물을 쏟치던 인민이다
작은 목선을 타고 찾아오신 최고사령관동지를
호느끼며 받기며 목메이던 이 나라 병사들
이다

인민의 집을 찾아 새집들이 축배잔 부어주실 때
아, 영생하시는 장군님모습을 뵈오며
김정은장군님두리에 천만이 더 굳게 뭉친
2012년 조선의 이 한해

그렇다, 12월의 흰눈아!
너는 우리에게
못다한 도리 못다한 충정을 깨우치며
대지위에 온갖 꽃 피우고
부흥의 오품백과 무르익혔고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 뜨거운 불길을 지펴
올려주었나니

우리 한해가 아니라 온 한생을
장군님령전앞에 다진 심장의 맹세 지켜
그렇게만 살리라
우리 장군님의 영생을 위해
김정은원수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그렇게만 살며 투쟁하며 혁명하리라
아, 12월의 흰눈아 맹세로 불타는 흰눈아!

아들아 너는 크다

바람은 맑다
넥타이는 나뭇긴다
등실 솟는 아침해 마중가는듯
아들애는 오늘도 학교로 간다
철부지 꼬마로만 생각되던 열살잡이
그러나 오늘은 어른처럼 생각된다

눈에 선하다 6.6절 그 아침
김정은장군님의 축하연설 들으며
작은 불을 적시던 그 모습
자기들을 소년단원동무들이라 불러주셨다고
온밤 잠 못들며 속삭이던 아들에

고운 불에 흐르던 그 눈물이
잠 못들며 뒤척이던 그 한밤이
아들아 너를 어른으로 자래웠느냐
정녕 그날부터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모든 일 그전같지 않았다

낳아준 부모가
제 자식 제일 잘 안다 했건만
내 미처 몰랐구나
네가 얼마나 큰지
네가 그 얼마나 장하고 씩씩한지...

너를 제일 잘 아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하여 온 나라 온 세상이 우러르게
행복의 절정우에 높이 세워주신
아들아 너는 조선소년단원!

그렇다 아들아!
네가 학교로 갈 때
네가 뛰놀며 노래부를 때
누가 너를 어리다
말할수 있으랴

네가 창가의 화분에 물을 줄 때

동지들을 위하여 새우신 한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자신보다 동지들의 고생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장백현에서 유격대원호물자를 나르는 사업이 밤낮으로 진행되고있던 때 있는 일이다.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 이끄시는 일행이 유격대에 보낼 귀중한 약품들과 여러가지 채봉실토리를 비롯한 원호물자를 가지고가다가 큰 진대나무옆에 꾸러놓은 초막에서 다리섬을 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여기서 눈을 좀 붙였다 가자고 말씀하시기 바쁘게 대원들모두가 앉은자리에서 원호물자를 안은채 잠들어버렸다.

대원들이 잠들기를 기다리고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살그머니 일어서시여 초막밖으로 나가시었다.

지하조직성원은 얼마간 기다려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밖으로 나갔다.

김정숙동지께서 멀지 않은 돌바위옆에 앉아계시는것을 본 그는 다른 동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자리를 넓혀주시려고 나와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어서 들어가자고 어머니의 손목을 끌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동무들이 마음놓고 쉬는데 모두 자면 안돼요. 우리는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뜨거운것이 지하조직성원의 목을 짹 메웠다.

(힘겨워하는 동지들을 위해 비를 맞으시며 보초를 서시댔구나!)

그는 옷저고리를 벗어서 김정숙동지께서 앉아계시는 우의 나무가지에 걸쳐놓았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래도 젖는걸 뭘그러는가하고 하시며 옷저고리를 벗겨내려 그의 어깨에 걸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산에서는 이보다 더한 고생을 한다시며 자신께서 사령부에 갓 오신 후 어느날 해종일 행군을 하고나서 잠에 뛴아떨어진 대원들이 깨여날세라 사령관동지께서 한밤을 꼬박 새우시며 보초를 서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한동안이 지나자 김정숙동지께서 지하조직성

원에게 졸음이 오지 않는가고 물으시었다.

정신이 더 맑아진다는 그의 말에 빙긋이 웃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에게 친히 《사향가》를 배워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입속말로 노래를 한소절 부르시면 그가 조용히 따라부르곤 하였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지하조직성원이 노래를 다 배우고 혼자서도 부르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덧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오는무렵이었다.

김정숙동지와 함께 밤을 새운것만으로도 영예로운데 노래까지 배웠으니 그의 감격은 몹시 컸다.

이윽고 김정숙동지께서 초막에 들어서시여 대원들을 향해 이제 떠나자고 말씀하시었다.

그때에야 단잠에서 깨어난 대원들은 그이께 언제 벌써 일어났는가하고 하며 기분이 좋아서 흥성거렸다.

지하조직성원은 보기가 미안스러워 한 유격대원에게 김정숙동지께서 내리는 찬비를 맞으시며 한밤을 새우신 사연을 귀띔해주었다.

그리하여 유격대원들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비에 온몸이 젖고 수척해지신 김정숙동지를 우러러 눈시울을 적시었다.

정녕 잊을수 없는 이 한밤은 지하조직성원과 유격대원들이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바치시는 김정숙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뜻깊은 밤으로 되었다.

네가 마을의 어른들께 인사를 할 때
네가 공원에 버려진 휴지 한장 집어들 때
거기서 애국이 시작되기에
네가 바로 강성조선 내 조국의 밝은 미래이기에

바람은 맑다

넥타이는 나뭇긴다
등실 쏘는 아침해를 마중가는 아들이
그렇다 너는 크다
그렇다 너의 마음은 어른처럼 크다
김정은동지 그품에 안겨
아, 이 땅의 미래는 아름다워라!



동 의 회

1

하루종일 대지를 달구던 해가 보통벌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할무렵에야 삼을 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댁으로 들어서시었다.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시었다가 여느날보다 좀 일찍 돌아오시는 길이다.

그사이 중대한 임무를 받고 함흥으로 떠나간 리성화라는 미술가가 오지 않았나해서였다.

정문보초에게 물어보니 오지 않았다는것이다.

마당가에 들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움을 느끼시며 삼을 창고에 가져다놓으시었다.

리성화에게 무슨 다른 일이 생긴건 아닌지 근심이 되시었다.

가뜩히 조인 허리끈에서 타올수건을 뽑아내시여 이마의 땀을 닦으시는 그이의 눈앞으로 평양학원 개원식에 모실 장군님의 초상화를 형상하려고 말을 타고 달려왔던 리성화의 모습이 떠오르시었다.

머나먼 최전방에서 말을 타고 달려온 리성화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기보다 전장을 누비는 싸움군을 연상시켰다. 성미도 오물썸물하지 않는 듯 그림을 그려도 군인들의 훈련모습, 포연자욱한 전투장면을 그리기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것은 말들이었다.

사실 말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에게 눈물겨운 생활이 비껴있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미술학교에 갈 돈이 없었던 그는 어느날 만주로 떠나는 이주민들속에 끼여 압록강을 건넜다.

길가의 락엽처럼 굴러다니다가 풀씨마냥 박힌 곳이 말목장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 성화의 뼈대도 굵어지고 바람이 나서 길길이 날뛰는 말때도 휘파람 한곡조로 고분고분 휘여잡게끔 말들과 친해졌다.

그런 속에서 잠만 있으면 그린 그림들은 다 말

들이었다.

후날 베이징미술연구소에서 말들을 속사하려 연구생들을 데리고나왔던 소장은 그의 그림에 반해 리성화를 자기네 미술연구소로 데려갔다.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풀린 그 기간에 리성화에게 또 하나의 인생전환의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지구에 파견된 유격대공작원을 만나게 되었을뿐아니라 졸업작품 《백전로장 김대장》을 내놓아 여러 나라에서 온 수십명의 졸업생들가운데서 최우수평가를 받게 된것이다.

그후 리성화는 만주로 돌아와 《리씨간관점》을 거점으로 반일애국활동을 벌리었다.

각종 반일선전화들과 구호를 복제하고 출판물들을 수집하여 조직에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속에서 그는 많은 그림들을 그렸다.

어느때인가는 그가 그린 그림 《김대장 호령 소리 장백골안에 넘친다》가 조선인민혁명군대 내기관지에 실린적도 있었다.

아쉽게도 김정숙동지께서는 국내공작중이어서 성화의 그림을 보시지 못했다. 그 그림들은 쏘련으로 가는 일행과 함께 이국땅으로 들어갔던것이다.

이번에 그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훌륭히 완성하고 자기의 그림첩도 내놓았다.

지난 2월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을 모시고 평양학원 개원식장으로 나오시었다.

개원식장 정면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는데 바로 리성화가 형상한 초상화였다.

그날 댁에 먼저 돌아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원개원식에서 받으셨던 충격을 안으시고 장군님께 올릴 저녁을 성의껏 준비하시었다.

장군님께서 돌아오신 때는 깊은 밤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천천히 걸으시는 장군님의 뒤를 발자국소리가 날세라 조심히 따르시었다.

낮동안에 질적하게 녹았다가 어둠과 함께 물려든 댕기속에서 꾸덕꾸덕 얼어든 땅은 그이의 심중에 아랑곳없이 버걱버걱하며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리곤 하였다.

아무말씀없이 걸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녀사께서 다가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말씀하시였다.

《개원식이 잘됐소. 건물보수도 잘하고, 훈련장도 잘 꾸리고. 참 오늘 리성화의 그림첩도 보았소.… 재간이 있는 동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리없이 미소를 지으시였다.

리성화에게 장군님의 초상화를 잘 형상할수 있도록 만나뵙는 기회도 마련해주신 그이이시기에 성화의 일이 자신의 일처럼 기쁘시였던것이다.

《오늘 전국에 파견되였던 우리 동무들이 다 왔겠지. 강계에서, 청진에서, 원산에서… 모두 얼마나 바랐던 날이요.》

무척도 감회스러운 장군님의 말씀이시였다.

《조국에 돌아온 전우들은 거의 다 왔소, 거의. 만일…》

웬일인지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더 잊지 않으시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시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것일까?)

마른 나무가지를 스치던 바람결도 숨을 죽인듯 정원엔 고요히 정적이 흘렀다.

몇걸음 내짚으시던 장군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어서시였다.

《성화동무의 그림첩을 보니 조국땅에 오지 못한 전우들의 생각이 나더구만. 그 그림첩에 나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사진도 변변히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그 동무들은 지금도 이역땅에 누워있지 않소, 지금도…》

장군님의 음성은 급기야 갈려드시였다.

그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도 가슴이 뭉클하시여 《장군님!》 하고 자신도 모르게 부르시였다.

목이 메여오르시였다.

장군님의 갈리신 음성이 왜 이어지지 못하시는지, 어찌하여 밤하늘에 시선을 보내신채 오래도록 서계시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그이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을 습벅이며 장군님을 우러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진주보석이 뿌려진듯 깜빡거리는 저 별들에서 전우들의 모습을 한명한명 찾아내시려는듯 여전히 하늘가를 바라보고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앞이 흐려움을 느끼시며 장군님의 외투를 꼭 부여안으시였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생각으로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뵈느라니 그 아픔을 덜어드리지 못한 자책으로 가슴이 저려드

시였다.

검푸른 하늘에서 별씨 하나가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져내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알았습니다. 리성화동무에게 장군님의 말씀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다음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성화를 만나 장군님의 말씀대로 투사들의 초상을 그리기 위한 방도를 의논하시였다. 오중흡이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의 연락병이였던 김철만이를, 리제순, 권영벽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료양중에 있는 박달을 만나도록 하시였다. 리성화를 돕는 일은 최현이며 안길 등 정규무력건설사업으로 몹시 분망한 투사들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함흥에 간 리성화였다. 그곳에 파견된 조동무한테서 일을 마친 리성화가 이제 곧 떠난다는 연락이 온지도 며칠째이다.

그사이면 평양에 오고도 남을텐데…

왜 아직 소식이 없을까.

《호로록…》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에 시선을 돌리시였으나 석양빛을 받아 기름을 바른듯 윤기도는 푸른 잎새속 어디에 새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리성화가 떠날 때 가지만 앙상했던 나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동안 길쪽을 바라보시다가 방안으로 들어가시여 재봉기우에 있는 하얀 여름샤쓰를 펼쳐드시였다.

겹양복차림으로 떠난 리성화가 돌아오면 입을수 있게 만드시는 여름샤쓰였다.

아직 깃을 붙이고 단추도 달아야 했다.

재봉기앞에 앉으시는 김정숙동지의 생각은 또다시 리성화에게로 달리시였다.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늦어지는걸까?)

2

리성화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온것은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가 돌아오자바람으로 선교리에 숙소를 정하고 창작에 열중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빠 댕을 나서시였다.

줄줄이 늘어선 버드나무밑으로 한참 걸으니 저 앞에 대동강이 나타났다.

저녁해빛을 받아 재물을 부리듯 금빛,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가에서는 녀인들 서넛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빨래방치소리가 별로 유정했다.

빨래하는 엄마들결에서는 꼬마들이 물장구를 치고 좀 떨어진 곳에서는 큰애들이 물싸움을 하

느라 떠돌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목가적인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시다가야 돌아서시였다.

대동교를 건너 얼마 안가 장군님 부관한테서 들으신 ㄱ자형의 벽돌집이 보이자 벌써부터 성화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리어왔다.

빠른 걸음으로 문앞에 다가가 가볍게 손기척을 내니 《예.》 하는 귀에 익은 리성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이께서 방에 들어서시였는데도 늘 드나드는 집주인으로 여기는 모양인지 성화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창작에 열중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자리에 서신채 미더운 눈길로 한동안 그를 여겨보시다가 침대며 원탁뿐 아니라 한벽을 다 차지하게 세워놓은 그림들을 일별하고나서 원탁우에 쌓여있는 초상그림들을 한장한장 번지시였다.

바느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녀대원은 분명 《줄창가》로 소문난 박수환이였고 자면서도 고향을 그리는데 비축이 웃는 너부죽한 얼굴은 김동무와 비슷했다. 다부산자차림의 키가 늘씬한 남대원은 지방공작준비를 하는 지동무갈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여하튼 살아있는 전우들을 만나 시는것만 같아 그이의 눈가엔 이룰수 없는 기쁨이 어려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칠감이 묻은 작업복차림으로 여전히 그림만 그리고있는 리성화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시였다.

그는 지금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색을 칠하고있었다. 아찔한 산정의 바위들을 살리는지 색을 찍어 툇툇 점을 치자 거무스레하던 바위들엔 금시 파란 이끼가 살아 돋았다. 이번엔 슬쩍슬쩍 단뿔질뿐인데도 바위옆의 한그루 나무가 산정의 바람에 휘여지는것이 그림이 아니라 실지 살아있는 나무로 느껴지였다. 참으로 그의 재간이 놀라왔다.

그의 붓질을 눈여겨보며 그림을 보시는데 바위들을 층층 쌓아놓기라도 한듯 한 산정이 어딘가 낮익었다.

마침내 이제껏 그림을 가리웠던 리성화의 듩직한 어깨가 한옆으로 비켜지였다.

그가 그림을 관찰하느라 몸을 뒤로 제끼였던 것이다.

그 순간 그이께서는 몸을 흠칫하시였다.

수수천년 내려오면서 기묘하게 형성된 대바위산 정우에서 아득한 천리수해를 바라보는 조선옷차림의 녀인을 알아보시였던것이다.

보라색 부채꽃이 설레이던 수림속에 신묘하게 생긴 대바위는 조직원들을 만나신 조국땅의 옥련산산정이 틀림없었고 그 녀인은 다름아닌 자신의

모습이였다.

(그럼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옥련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눈굽이 뜨거워짐을 어찌지 못하시며 왼쪽손으로 안고계시던 보자기를 원탁우에 놓으시였다.

그제야 뒤를 돌아본 리성화가 후닥닥 일어서서 찬란히 비쳐지는 해살을 받은 사람모양 한동안 두눈만 깜빡거리다가 《아니?!》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아, 죄송합니다. 전 주인집아들이 돌아온줄로만 알고...》

리성화가 해덤비며 웃웃을 입는다, 의자를 당겨놓는다 하며 부산을 피우더니 방안의 그림들이 잘 보이도록 한옆으로 비켜섰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동무들의 모습이 방불하군요.》

그이께서는 될수록 책상쪽은 피하시고 침대쪽으로 돌아서시였다.

그림들은 그우에도 쌓여있었다.

그이께서는 방금전에 보신 원탁우의 그림들처럼 전우들을 그린 그림으로 생각하시고 한장한장 번져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문득 굳어지시였다.

권총을 빼들고 장군님을 한몸으로 막아나서는 녀대원을 형상한 그림도 자신에 대한 그림이 아닌가?

초연대로 숨이 확 막히는것 같은 전장이며 풀숲에서 번뜩이는 칠감모들, 더우기 긴박한 전투정황속에서도 단정한 군복차림새며 가쁜한 단발머리에 각별한 초점을 박았다는것을 느끼시자 얼른 다음장을 번지시였다.

얼음장을 까고 빨래를 하는 모습, 끓는 죽가마를 이고 달리는 모습, 우등불가에서 바느질하는 모습, 여전히 자신을 형상한 그림들만 나오는 바람에 그이께서는 그림첩을 그대로 덮고마시였다.

방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별로 긴장해진 리성화를 못본척하시며 창문쪽으로 돌아서시였다. 기대가 허물어지는듯 한 느낌까지 드시였다.

리성화의 평양걸음이 늦어진것은 결국 함흥을 떠나 곧장 옥련산으로 올라갔기때문이었다.

옥련산의 녹녹한 습기가 온몸을 감싸는듯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지면서 숨이 가빠지셨지만 그이께서는 애써 누르시며 답답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옥련산엔 혼자 가셨겠는가요?》

《파견원동지가 길잡이를 붙여주었습니다. 파견원동지는 산세도 잘 알고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더군요. 옥련산은 정말...》

《리선생.》

김정숙동지께서는 성화의 말이 길어지자 얼른 그의 말을 자르시었다.

《이왕 옥련산에 가시었으면 그곳 조직원들부터 그렸어야지요.》

차분하게 하시는 그이의 목소리에는 리성화에게 안타까이 호소하고 절절하게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짙게 깔려있었다.

《물론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 추천하여 입대한 리길이라고 하는 청년은 큰 공적도 없이 일찍 전사한데다 대오를 리탈했던 과오를 범해서 위험천만한 일까지 생길뻔 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투사들마다 항일의 녀장군이시며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신 녀사님을 제일 선참으로 그려야 한다고 얼마나 절절히 부탁하던지...》

《리선생.》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짐을 어찌지 못하시었다.

리성화는 격해지신 그이의 말썹에 한순간 얼퍼름해진듯 그저 그이만을 우려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 대한 말은 듣지 못하신듯 리길이에 대한 말을 먼저 꺼내시었다.

《리선생, 신입대원시절에는 그런 부족점도 있을수 있어요. 그건 파오라기보다 단련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리길동무가 언제 그런 곤난을 겪어보았겠어요. 그때 부대는 행군중이었는데 참, 그해 겨울엔 웬 눈이 그리도 많이 내렸던지...》

말끝을 흐리는 그이의 눈앞으로 눈덮인 백두의 산야가 점점이 다가왔다.

...

눈, 눈, 어디나 눈이었다. 하늘과 땅이 눈속에 묻힌듯 한 그속으로 대오가 행군을 하고있었다.

한결음한결음 힘겹게 전진하는 대오이다.

누군가 눈을 한웅큼 쥐고 입으로 가져간다. 그 한사람뿐이 아니다. 벌써 몇끼나 난알구경을 못한 대원들은 발을 놀리는게 아니라 그저 눈속에서 허우적거리는것 같았다.

뒤에 붙은 적들은 감히 따라잡을 생각을 못하고 부대가 낸 길로 검질기게 따라오기만 했다.

부대가 휴식하면 따라서 주저앉고 행군하면 다시 따라서고...

마침내 휴식구령이 내렸다.

대원들은 통나무 넘어지듯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숨돌릴 짬도 없이 군용밥통에 눈을 퍼담으셨다. 경위대원들이 어느새 눈속에서 삭정이를 모아 불을 피웠다.

끓는 물에 한줌 남았던 닭은 강냉이를 넣으니 제법 구수한 난알내가 풍기었다. 그 닭은 강냉이

를 우린 더운물이 큰 힘이 되었다.

대오는 다시 출발하였다. 행군하면서 더운물을 마셨고 인원을 점검했다.

얼마쯤 왔을까.

갑자기 뒤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명이 없소!》

《뭐요? 누가 없소?》

《옥련산지구에서 입대한 표마가...》

(아니, 그럼 리길이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 하시었다.

행군대오는 멈추어섰다. 뒤로 돌아섰다.

적들이 마주 오는지라 목청을 높일수도 없어 그저 눈속을 마구 헤치며 찾아보았다.

기관총수 강동무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사격좌지를 잡으려는듯 주변을 둘러본다.

리길이를 빨리 못 찾으면 이 눈속에서 어차피 적들과 전투를 해야 했다.

모두들 초조하게 타드는 가슴을 안고 리길이를 찾았다.

대오의 맨 앞장에서 눈속을 헤쳐나가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발끝에서 무엇인가 몽클하는 것을 느끼시자 와락와락 눈속을 헤치시었다.

구부린 다리가 보이자 그이께서는 와락 부둥켜 안으며 목메여 웨치시었다.

《리길이!》

눈속에서 굳잠이 들어버린 리길은 그래도 총만은 꼭 안고있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여 노을이 스러지기 시작한 검푸른 하늘에 시선을 보내시었다.

시원히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창가로 흘러들어 그 무엇을 호소나 하듯 그이의 저고리고름을 어루쓸었다.

《아마 내가 선생에게 장군님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하나 또 하나 별들이 눈을 뜨는 하늘가에 시선을 주신채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그이의 심중하신 어조에 리성화는 와뜰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진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이밤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 우리 혁명에 충실하였던 전우들을 그리워 하십니다. 선생이 방금 이야기하신 리길동무는 열여덟꽃나이에 쌍산자전투에서 희생되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추연한 빛이 어리었다.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물 한모금 마실 여유도 없이 처절했던 쌍산자전투는 이름만 위외보아도 가슴이 미여지는듯 하시였다.

그때 작식처에 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싸우는 전우들에게 어떻게든 식사를 보장하실 생각으로 방금 찌낸 만두를 지고 벼랑쪽으로 달려가시였다. 살이 데는것 같은 뜨끈뜨끈한 만두배낭을 지고 어떻게 그 아찔한 벼랑을 토했던지 지금은 생각조차 잘 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기관총을 잡으신 장군님곁에 바싹 붙어서서 예리하게 앞을 여겨보고있는 리길이에게 달려가시여 그의 손에 만두를 쥐여주시였다.

리길이가 흰이를 드러내며 히죽이 웃어보이였다.

여유작작한 그를 보시며 손에 또 한개의 만두를 쥐여주시고는 다시 탄알이 비발치듯 하는 전장을 누비시며 전우들을 찾아다니시였다.

달리시는 그이의 귀뿌리를 스치며 총알이 아찔러운 소리를 내며 날아지나갔다.

이때였다.

《리길이! 리길이!》

다급하게 울려오는 장군님의 말씀에 그이께서는 가슴이 선뜩해서 핵 몸을 돌리시였다.

먼 발치에 쓰러진 리길이가 보이시였다.

(아니, 리길이가?)

방금전에 히죽이 웃던 그의 얼굴이 얼른거리였다.

항시 장군님곁을 떠나지 않던 리길은 멀지 않은 룡선에서 쑥대가 흔들리는것을 발견하였다.

《사령관동지, 위험합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번개같이 몸을 날린 리길이, 뒤이어 불을 뿜은 장군님의 기관총.

둔덕밑으로 굴러내리는 놈들의 철갑모, 붉은 피가 질벅한 리길의 가슴을 헤칠 때 주머니에서 한입 배문 만두가 굴러나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때의 피눈물이 다시 총총이 고여오르는것 같아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시였다.

《물론 리길동무가 별로 두드러지는 대원은 아니였어요. 그러나 신입대원시절에 자기때문에 전대오가 멈춰섰던 때를 두고두고 잊지 못했어요.

그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기의 몸을 서슴없이 내뒀어요. 엿저녁에도 장군님께서는 동북땅에 있는 유자녀들을 빨리 데려와야겠다고 걱정하시면서 그들속에 리길이의 조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어요. 리길이네 가족이 후에 만주로 갔다는 소식까지 알고계시는 장군님이십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있는 리성화를 이윽도록 지켜보시였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 동지들이 청춘의 더운피 뿌리며 이국의 산야에 쓰러졌는가.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건 7련대장이 전사했을 때의 일이다.

왜놈목재소 습격전투가 한창일 때 그이께서는 로획한 소고기로 국을 끓이고계시였다.

소고기국냄새가 구수하게 퍼질 때 전투는 끝났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련대장이 전사할 줄이야.

그날 장군님께서는 저녁을 들지 못하시였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 한 전투에서 1중대장이 또 쓰러졌다.

《조국에 가고싶었…》

중대장은 마지막말도 채 맺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떠나간 전우들을 조국땅에 다 데려다 함께 있고싶고 가족들과 만나게 하고싶고 세상이 다 알게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김일성**장군님의 그 심정을 리성화는 왜 아직도 몰라준단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하시였지만 늘 전우들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곤 하신답니다. 가뜰이나 할 일이 많으시여 식사도 휴식도 제대로 못하고계시는 장군님이신데… 이런 때 그들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쓰러진 전우를 차마 묻을수가 없어 가슴을 치던 그밤들을 그려보시는 그이의 눈가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선생,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전우들을 북만으로, 남만으로 또 국내로 파견하시는 때가 많았지만 그이의 심중에서는 한시도 그들이 떠난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떠나간 동지들중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들의 투쟁에 대하여 후대들에게 잘 알려주고 그들이 못 다한 혁명위업을 이어갈 의무가 있어요. 누군가는 혁명투사들의 기념탑을 웅건하게 세우고 희생된 투사들의 이름을 써넣는게 어떤가고 장군님께 제의했대요. 그것만 가지고야 부족하지요. 장군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투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내세워주고싶다고 하시였어요. 선생이 장군님의 의도를 벌써 알았더라면 이번 길에 장군님께 기쁘드릴 작품을 완성했을거예요. 어떤 의도로 저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조국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희생된 투사들을 그려야 했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고 까딱 움직이지 않는 리성화의 작업복깃밑으로는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원탁우에 놓인 보자기에서 흰여름샤쓰와 회색바지를 꺼내시였다.

《리선생, 이걸 한번 입어보세요. 몸에 맞게 지

었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들던 리성화가 흠칫 놀라며 물러섰다.

《예? 아니, 이진...》

《그저 성의뿐입니다.》

더 말을 못하고 입술만 떠는 리성화에게 김정숙동지께서는 레의 따뜻한 미소를 남기시고 조용히 돌아서시었다.

3

산과 들에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그날 리성화는 백두산으로 떠나갔다.

떠날 차비를 하는 그에게 백두산은 벌써 겨울이라고 모두 만류했지만 그래서 더구나 가야 한다고, 백두산의 눈을 맞아보아야 한다면 부득부득 떠났다고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한 성화의 마음이 리해도 되고 대견하기도 하셨지만 걱정도 없지 않으시었다.

백두산의 추위에 혹시 동상이라도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었다.

그러는사이 해가 바뀌고 서둘러 찾아온 봄철이 앙상하던 나무가지들에 하얗고 붉은 꽃들을 피워 놓았다.

리제순동지의 부인을 바래워주시느라 역에 나갔다 돌아오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원에서 서성거리는 리성화를 보시고 반가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리선생이 돌아왔군요. 백두산에는 아직 눈이 쌓였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시며 정원의 나무의자를 권하시었다.

《백두산의 눈바람을 맞고보니 생각되는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녀사님이랑 투사동지들은 그 눈을 이불삼아 얼마나 오랜 세월...》

별안간 리성화는 목이 짹 메여오는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러더니 정색한 어조로 뒤를 이었다.

《제가 그린 그림들에 얼마나 부족점이 많은지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거의 다 손을 다시 대야 할 정도입니다.》

《요구성을 높이는거야 좋은 일이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성화의 진지한 얼굴표정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아니, 요구성이라기보다 사실... 녀사님께서 하시던 말씀들을 되새겨보니 적지 않은 그림들이 얼굴은 비슷하게 그려진것 같은데... 왜서인지 감정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리성화의 둥그런 얼굴에 침통한 빛이 질어갈수록 김정숙동지의 눈빛은 더욱 따뜻해지었다.

리성화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피로와하지만 그이께서는 오히려 성

화의 진심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우시었다.

백두산바람은 바로 그의 가슴에 참으로 귀중한 혁명정신을 심어준게 아닌가.

《참, 이걸 좀 봐주십시오. 아직 완성하진 못했지만 녀사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어 가지고왔습니다.》

어느새 한장의 그림을 꺼내든 성화가 그이앞에 정히 놓아드리었다.

추가목을 틀어쥐고 조준을 하는 녀투사의 모습을 그린 밑부분에 《김확실동지》라는 이름이 씌여있었다.

《전문가인 선생이 그린 그림인데 무얼 도움 드릴게 있겠어요.》 하고 리성화에게 겸허하게 웃어보이면서도 그이께서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었다. 어쩐지 김확실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것이 이상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한번 초상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다가 잊을수 없는 전우에 대한 그리움을 조용히 터놓으시었다.

《김확실동무는 총을 참 잘 쏘았어요. 그는 총을 쏠 때 두눈을 부릅뜨군 했어요. 왜놈들을 보기만 해도 눈이 감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리성화의 거뭇한 얼굴이 붉그레해졌다. 먼구스러움이 어린 눈길로 얼핏 자기의 그림을 내려다본다.

그이께서는 그윽한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미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눈앞에 실물을 보는것처럼 선명하고 생동하게 펼쳐보이는 예술이 아닐가요. 초상화도 실물을 보는것 같은 느낌을 주려면 외모뿐아니라 성격이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는것처럼 똑같은 성격이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확실동무의 초상그림은 눈형상에 특별히 초점을 박아야 할것 같아요.》

《아, 옳은 말씀입니다.》

흐려지었던 성화의 눈망울이 번쩍거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방안에 들어가 사진 한장을 가지고 나오시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리제순동지입니다.》

《아!》

리성화는 탄성같은 소리를 내며 사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녀자처럼 아련하게 생기다니. 아, 이 눈은 정말...》

갑자기 성화가 부랴부랴 트렁크를 열고 그림들을 뒤지더니 마침내 리제순동지의 초상그림을 찾아냈다.

《제가 그린 그림은 리제순동지와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아닙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던 리성화가 어깨를 처뜨리며 중얼거려였다.

어디선가에서 산들거리는 봄바람에 실려 연연한 꽃향기가 풍겨왔다.

《이 사진을 그의 부인이 오늘 떠나면서 주고갔어요. 이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리제순동지는 유순하게 생긴 얼굴이고 맑은 두눈은 언제나 새물새물 웃곤 했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엔 굳은 신념이 자리잡고있었어요. 이번에 부인한테서 감옥에 면회갔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자기에게 친히 군복까지 입혀주시며 조선인민혁명군입대를 축하해주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정말이지 리제순동지는 철창속에서도 변함없이 장군님의 안녕만을 바랬어요.》

《...》

리성화는 전에 없이 심중해진 표정으로 자그마한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사진을 보고 또 녀사의 말씀을 듣고나니 제 그림의 부족점이 더 뚜렷이 느껴집니다. 정말 귀중한 사진입니다.》

그러는 리성화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생각은 깊어지시였다. 이런 사진이 많다면 성화가 초상그림을 훌륭히 완성하련만 많은 전우들은 사진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갔다. 어떻게 해야 리성화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의 눈가가 알릴듯말듯 밝아지시였다. 오랜 세월 간직해온 수첩생각이 나신 것이였다. 녀사께서는 또다시 방에 들어가 손바닥 크기만 한 수첩을 들고 나오시였다.

거기엔 동지들의 고향과 주소뿐아니라 인상적인 특징, 취미, 별명까지 다 적혀있었다.

《이 수첩을 한번 보세요.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사색속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무심히 수첩을 받아들고 펼치던 리성화의 눈에 확 불이 켜지는듯 했다.

《아, 〈표마신랑〉, 〈대통령감〉, 〈룩크사크〉, 〈녀장부〉... 정말 귀한겁니다.》

보물처럼 수첩을 꼭 싸쥐고 한장두장 조심스레 번지는 리성화를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에 물기가 그렇그렇 고여올랐다.

《산에서 싸울 때 장군님께서 희생된 동지들을 잊지 말고 조국이 해방되면 꼭 찾아내오자고 하셨어요. 그들이 남긴 혈육들도 다 찾아서 잘 돌봐주자고 하시면서 말이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

음부터 쓰기 시작한겁니다.》

나직이 말씀하시는 그이의 목소리가 금선마냥 떨리시였다. 조금이라도 잊을가봐 수첩에 적기 시작하신 그이께서는 세월이 흘러 삭막해지면 어쩌랴싶어 동지들의 주소를 적은 여백에 특징 하나라도 다 생각해서 깨알박듯 적으신것이였다.

흐르는 세월속에서, 가렬치절한 항일전의 나날에 색이 바래지고 보풀이 인 수첩이었지만 그속에는 전우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새겨져있었다.

4

차에서 내린 리성화는 영문을 알수 없어 사위를 둘러보았다.

아침부터 숙소에 들어박혀 작품을 구상하느라 모대기던 그는 김정숙동지께서 급히 부르신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부랴부랴 외출복을 갈아입고 그이께서 보내주신 차에 올랐던것이다.

마침 서권에 기울어진 해가 서늘한 그늘을 지어 주고있는 큰 백양나무아래에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는것을 먼발치에서 알아본 리성화는 한달음에 달려가 인사를 드렸다.

그이께서는 붉게 상기된 존안에 정찬 미소를 함뱍 담으시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리선생, 오늘 아침차로 유자녀들이 평양에 도착했어요. 지금 만경봉에 올라갔는데 인차 내려올 거예요. 그 애들을 만나시려 장군님께서 여기에 나오십니다.》

《예? 장군님께서 말입니까?》

그제야 리성화는 **김일성**장군님을 뵈올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려 자기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리성화가 마음속 인사를 더하고싶어 또 입을 열려고 하는 때였다.

《야! 어머님이시다!》

《어머님!》 하는 창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경봉에서 내려오던 아이들이 김정숙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환성이였다.

《와!》

아이들이 경주나 하듯 앞서거니뒤서거니 달려오고있었다.

《아니, 저런. 애들아, 천천히. 그러다 넘어져.》

넘려하시던 그이께서 종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맞받아 다우쳐가시였다.

류달리 키가 커서 전보대처럼 두드러지는 소년이 제일먼저 달려왔다. 키만 크게 아니라 눈도 동심한 그 애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꾸벅

인사를 하며 올려다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먼저 그 애를 담쪽 그리안으시었다.

《넌 보면 볼수록 꼭 아버지로구나. 리선생, 이 애가 〈룩크샤크〉라고 불리우던 허동무 아들이예요. 허광복이라고...》

《그렇습니까?》

리성화는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르는것을 느끼며 광복이앞으로 다가가 그 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허동무의 눈이 별로 컸다고 하는 전우들의 기억을 살려 어글어글한 눈형상에 각별한 신경을 쓰던 때를 상기하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 광복이와 방불하게 된것 같아 안도의 숨이 나갔다.

《눈이 크면 겁이 많다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지만 허동무는 겁이 많은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호기심이 많았어요. 전투여가에 산나물을 하나 뜯어도 바느질을 해도 스쳐지나가는 때가 없었어요.》

광복이를 껴안으시고 잊을수 없는 전우를 그려보시는 그이의 다감하신 눈가에 물기가 반짝이였다.

어느날 밤 김정숙동지께서 우등불가에 자리를 잡으시고 바느질을 하시는데 누군가 조심히 다가와 곁에 앉았다.

《또 바느질입니까?》

《명주숨을 구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으신채 나직이 대답하시였다.

《명주숨이요?》

《전번 만강부락에 들렀을 때 옛 포수로인이 하는 말이 탄알을 막는데는 명주숨이 제일이라고 알려주더군요.》

《아하, 그래서 장군님 외투를...》

알만하다는듯 그는 큰 눈을 습벅습벅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총알이 명주숨을 뚫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허동무는 다음날부터 명주숨을 구하면 차곡차곡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 명주숨으로 장군님의 솜옷을 만들어올리면 그이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다는 기쁨에 그 큰 명주숨배낭외에 자기의 비품을 넣은 배낭을 또 메고 다니면서도 조금도 불편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 동문 전투를 할 때나 행군할 때나 장군님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그이의 신변을 보위하군 했어요.》

《예.》

리성화는 그 투사가 살아서 이렇게 앞에 서있는듯 해서 광복이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때 호리호리한 소년이 뒤질세라 달려와서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바재이기만 했다.

《길남이가 두번째로 달려왔구나, 용타!》

김정숙동지께서 그 애를 껴안으시자 길남이가 해죽이 웃는데 벌려진 입술새로 잘잘한 흰이가 가지런히 드러났다.

《이분은 미술가선생님이신데 투사동지들을 훌륭하게 그리신단다. 이 선생님이 광복이의 아버지도 또 길남이 삼촌두 그렸단다. 리선생, 이 애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선생이 그린 초상들에서 누구와 방불한지.》

리성화는 불쑥 떠오르는 예감에 찌릿한 흥분을 느끼며 길남이의 앞으로 다가갔다.

가름한 얼굴, 웃을 때마다 감겨지는 두눈, 입술새로 드러나는 가지런한 이발들을 보자 어디선가 본듯 한 느낌이 들었다.

길남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뚱말뚱 쳐다보았다.

《저, 리길투사의...》

리성화는 묻는듯 한 시선으로 김정숙동지를 우러르자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길남이를 바라보시였다.

불현듯 길남이가 조춤조춤 다가오며 속삭이듯 물었다.

《우리 삼촌 아나요?》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

《안다, 알구말구. 어머님께서 몇번이나 말씀해주셔서 이젠 눈에 흰하다.》

《야!》

동그랗게 치뻬던 길남이의 눈이 실눈으로 되는 순간 리성화는 눈곱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 애는 웃고있는데 리성화는 하마트면 눈물을 쏟을번 했다.

김정숙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 리길투사의 초상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면 저 맑고 깨끗한 길남이의 눈동자를 어떻게 마주볼수 있으랴.

김정숙동지께서 그 애의 머리를 쓸어주시며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길남아, 용감한 삼촌자랑을 마음껏 하거라. 삼촌처럼 훌륭한 투사가 되거라.》

품에 안겨든 길남은 더없이 행복한듯 눈이 감겨질듯 웃는데 그 모습은 여불없이 리길이었다.

이윽고 길남이며 광복이를 껴안으신 김정숙동지께서 둘러선 아이들을 하나하나 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리성화에게 말씀하시였다.

《이 애들의 눈빛이 얼마나 밝아요. 이 애들의 모습에서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며 제 혈육들의 모상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 정말 그럴것습니다.》

이때였다.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가 경적소리를 울리며 길

가에 나타났다.

《애들아, 장군님께서 오신다!》

그이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아이들을 바라보시었다.

《야!》

《장군님께서 오셨다!》

《장군님!》

아이들이 환성을 울리며 달려갔다.

광복이가 제일먼저 달려가다 말고 경충하게 다리가 드러나는 자기 바지를 내려다보며 금시 울상을 했다.

《광복아, 일없다. 장군님께서서는 너의 이런 차림을 나무람 안하신다. 이제 새옷도 해입고 학원에서 공부도 하자.》

김정숙동지께서 열려진 단추를 채워주시며 말씀하시자 그제야 광복은 고개를 버쩍 들고 냅다 달려갔다.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달려와 애워싸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었다.

아이들은 서로서로 제가 먼저 앞서려고 승벽 내기를 하였다.

발돋움을 하면서 뒤자리에서만 맴돌던 리길의 조카 길남이가 그만 엎어지려는 찰나 장군님께서 허리를 굽히시더니 그 애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앞으로 걸음을 내짚으시다 말고 가슴을 꼭 싸쥐시었다.

리길이가 살아돌아와 장군님품에 안긴것만 같은 기쁨과 감격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살며 공부할 학원으로 가보자.》

장군님께서 애들을 데리고 학원청사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 울고웃으며 그이를 따라 학원청사쪽으로 향했다.

하늘도 맑고 새들도 기쁨에 겨워 노래하는듯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꾸만 흐려지는 눈굽을 닦으시고 푸른 하늘에 시선을 보내시며 속삭이시었다.

《동지들, 기뻐하세요. 우리 애들이 오늘 장군님품에 안겼어요.》

두손을 가슴에 모아붙이고 조용히 뇌이는 그이의 두볼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저 애들을 보니 리선생이 그린 그 한명한명의 우리 동지들이 다 살아돌아와 장군님을 만나뵙는 것만 같아요. 장군님을 따라 씩씩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아요.》

이름할수 없는 감격으로 떨리던 그이의 목소리가 더 이어지지 못하자 리성화의 가슴도 달아올

랐다. 자기가 그린 그 열혈투사들이 싱글거리며 달려오는것만 같은 감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자 그의 심장은 터질듯 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며 한명이라도 빠질세라 모두 불러와 내세워주고싶어하신 전우들이 장군님품에 안긴것만 같은 모습이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지었다.

《아, 저의 눈앞에도 보입니다.》

그 순간 번쩍 번개가 치는듯 한 환상에 리성화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홀연 눈앞을 가리웠던 안개가 걷히듯 그렇게도 안타까이 모색하던 화면이 우렁이 다가왔다.

흰말을 타신 장군님을 선두에 모시고 역시 말을 타고 뒤따르는 혁명투사들이 씩씩하게 전진해간다. 그들이 탄 말발굽소리가 천지를 울리는듯 하는데 그뒤로 발걸음을 맞추는 대오는 끝이 없이 이어져간다.

척척척, 가슴을 쿵쿵 울리는 저 소리.

그제야 성화는 바로 이 격동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창작적나래를 펼쳐주시려고 김정숙동지께서 자기를 불러주시었다는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고개를 버쩍 들었다.

그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념도 못하고 목메여 웨치었다.

《김정숙동지.》

1950년 5월.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미술전람회가 성대히 열리었다.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정세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전람회장을 찾으시었다.

《군대안에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었구만.》 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뒤에서 따라오는 김책이며 강건이를 돌아보시었다.

입선 한 작품들을 하나 하나 보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대형유화앞에서 걸음을 멈추셨다.

《민족적영웅 **김일성**장군과 전우들》이였다.

흰말을 타신 장군님을 따라 항일투사들의 대오가 전진하는 그림이였다.

그림옆에는 군복차림의 리성화가 상기된 얼굴로 서있었다.

《우리 전우들속에 내가 있구만. 내곁에 있는 동무들을 신동히 잘 그렸소.》 하시며 뒤를 돌아보시자 《예, 정말 잘 그렸습니다.》 하고 김책이 미소를 지었다.

《이 그림을 보니 안길동무가 살아있는것 같

고귀한 생애 앞에

김 정 삼

붉은기 날리는 주작봉마루에서
날로 강성해가는 조국강산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는 어머니를 우러르니
다함없는 감사에 젖는 마음속에
어머니의 고귀한 생애가 어려웁니다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수령님가까이에 서계신 김정숙어머니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결사옹위의 제일 첫자리
그 빛나는 삶의 절정에서
성스럽게 빛발친 어머니의 생애여!

온몸 방패가 되어 수령님 옹위하시던
그 전장들만이라
청봉의 수림속에서 수령님 혁명로선을 옹호하여
혁명의 배신자들을 단죄하시던 서리찬 눈빛
삼태성 기우는 해방산의 밤
수령님안녕 지켜 새벽이슬 맞으시던 숭고한 영상

태양의 해발되시여 삶의 기쁨 찾으시던 그날
뜨거운 눈물로 마음 적시시며
붉은기앞에 다지신 신념의 맹세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의 머나먼 길 헤쳐오신 어머니

혈전의 언덕에서 빛내이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
한 귀감
오늘 우리 누리는 행복의 요람과
꽃향기 넘치는 인민의 락원을 보며
우리 심장으로 노래 부르거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니를

평온한 날에나
생ন길 헤쳐가는 시련의 나날에나
해발처럼 품고 살 영생의 숨결이어
참답게 값높이 살고싶은 이 마음속에
어머니의 고귀한 불멸의 생애를
아름다운 생의 노을로 간직하나니

아, 기어이 가야 할 최후승리의 행군길에
숭고한 모습으로 어러오는 불멸의 생애여
오늘도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께 충직한
천만대오의 심장들을 더울혀주며
어머니의 생애는 끝없이 흐르고흐릅니다

구만.》 하고 말씀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그림속의
전우들을 알아보시고 《이는 오중흡, 김확실, 리
제순… 아, 여기 리길이기도 있군.》 하시며 그들을
한명한명 짚으시였다.

작상이 기발하고 잘 그린 기념비적작품이라고
만족해하시면서 리성화를 치하하시였다.

《내가 늘 그리워하던 전우들이요. 오늘은 참
기쁜 날이요. 리동무, 동무가 우리 전우들을 다
불러주었소. 고맙소, 고맙소.》

리성화는 걱정이 솟구치는 속에서 문득 생각되
는게 있어 뒤를 돌아다보았다.

오늘의 이 성공의 렁마루에로, 행복의 절정에로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수수한 조선옷차림에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고
기쁨의 눈물을 짓고계시는 인자하신 그 모습!

(아, 김정숙동지!)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착각이였다.

그제야 이미 그이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실이 다시금 뇌리를 치며 눈
물이 끓어올랐다.

더없이 친근하신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그 어디
에도 없었다.

오직 한마음 장군님만을 받들어 모시려는
그이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세상에 태어난
작품을 보시며 장군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였건만
그 전우들속에도 그이의 모습은 없었다.

혁명의 한길에서 목숨바친 전우들을 한시도 잊
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장군님결에 세워주시려
는 념원이 활짝 피어났건만 김정숙동지의 모습만
은 보이지 않았다.

하건만 우리 인민들은 장군님결자리에서 밝게
웃고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애오라지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는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시며
환히 웃고계시는 그 모습은 장군님과 전사들의 혁
명적동지애,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마련
하는데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길이
길이 전하는 불멸의 화폭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영원한
그 자리에서 웃고계신다.



리 명 호

청년은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출옥하게 되는 아버지를 기다려 감옥밖에서 낮 이어 밤동안 지쳐있다가 날 썰녜야 겨우 새우잠에 들었던 그였다. 인간의 육체를 마스는 끔찍스런 참상들을 빚어내는 곳이어선지 악몽속에서 헤매이다가 깨어난것이 다행스러워 그는 후— 하고 긴숨을 내불었으나 이내 꿀살을 찌프렸다. 방금전의 스산한 꿈속에서 간담을 서늘케 하던 그 소리가 다시 귀가에 울려왔던것이다.

절그렁... 절그렁...

새벽대기를 짓허몰며 점점 크게 들려오던 그 소리는 청년의 앞 시커먼 철대문에 이르러 갑자기 멎어버렸다.

이윽해서 딛고선 땅이 드르릉 울리며 육중한 철대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벌어지는 문틈새로 수인 두명이 들것을 들고 나와섰다. 그러나 그 두사람외에 아무리 살펴봐도 아버지는 없었다. 그때야 청년은 들것우에 애기무덤처럼 솟아있는 자그마한 형체에 시선을 돌렸다. 구척장신은 아니여도 쇠몽둥이처럼 단단한 체구에 오리밖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호기를 뿜던 아버지여서 들것으로 서슴서슴 다가가면서도 청년은 그 형체가 아버지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들것에 몇걸음 못미쳐서 청년은 걸음을 멈추었다. 방금까지도 기신없이 누워있던 그 사람이 번쩍 눈을 뜨는것이였다. 그체서야 그는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아버지였다. 천천히 그리고 사흘갈증에 시달리다 물을 본 사람처럼 걸탐스레 주위를 의식하는 아버지의 두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자귀에 깎이운듯 뼈만 앙상해진 팔을 후들후들 떨며 땅에 내려서려고 했다.

《아버지...》 청년은 얼른 아버지를 부축이며 등에 업으려 했지만 황황 불길을 뿜어내는 눈길앞에 굳어지고말았다.

아버지는 대답대신 아들의 등을 밀어냈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끝끝내 두다리로 땅을 딛고 섰다.

아버지는 쓰러질듯 몸을 휘청거리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때마침 동편하늘에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그 태양을 마주향해 무척 힘이 드나 억센 걸음을 내디뎠다.

1

《공시.

군내 주민들에게 알린다. 지난밤 공산빨찌산으로 추측되는 정체불명의 모가 반일불령책동을 목적으로 군의 화학공장에 대화재를 일으켰는바 이와 관련해서 의심되는자에 대해서는 즉각 경찰서에 통고할것이다. 공시에 응하여 솔선 나선자에게는 많은 상금이 하사될것이나 그렇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대일본제국의 반항자로 치부하고 엄벌에 처할것이다.》

누구의 소행인지 아니면 마주 붙어치는 바람의 세례를 맞은것인지 가로세로 찢어진 공시문의 검은 글줄들이 무당 춤추듯 너풀거린다.

신진호는 짜릿한 흥분이 온몸을 휘감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왜놈들에게 복수를 선언하고 움직인 첫 행동의 성공에서 오는 쾌감이였다. 더구나 왜놈들은 이번 화학공장의 방화사건을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의 소행으로 알고 야단법석 끊는것이다.

양덕과 덕천일대에서 활동하던 조국광복회 지하조직들의 핵심청년들로 대량지굴의 깊은 수림속에서 대봉무장대가 조직된것은 불과 두달전의 일이다.

입대하는 날 무장대 대장은 진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진호동무, 왜놈들과 무장으로 직접 맞서 싸운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들과 형제, 친척들, 군중모두를 각성시켜 반일성전으로 이끈다면 우리의 힘은 더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의 투쟁 또한 반드시 승리할거요.

혼자가 아니라 열, 스물을 각성시키는데 무엇보다 힘써주오.》

진호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아직 무장대의 무기래야 경찰놈들에게서 빼앗은 장총 두자루와 야장간들에서 몰래 버려낸 죽창과 칼들이 고작이고 인원도 아직은 대장을 포함해서 열명이 되나마나했지만 진호는 배심이 든든했다.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만 생각해도 신심이 넘쳐나는 그였다. 하여 그는 무장대에서 준 첫 과업인 왜놈들이 군수용송탄유를 뿜아내고있는 양덕화학공장을 파괴하는 임무를 자진하여 맡아나섰던것이다.

면밀한 준비끝에 지난밤 진호네는 경비를 서던 왜놈감독을 까눕히고 창고에 불을 질렀다. 송탄유가 가득 든 수십여개의 도람통들이 다 타버려 하늘로 날아났다....

진호는 어제 밤의 장쾌한 광경을 다시금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 추어올리고는 《송죽려관》간판이 나붙은 대문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땀기장은 실히 될 가는 삼끈이 쥐여져있었다. 송죽려관 즉 초아네 집의 고삭아 끊어진 빨래줄을 새로 걸어주려는것이였다. 초아는 려관집의 외동딸이였는데 두칸짜리 넓다란 손님방과 잇달린 살림방에서 부모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이해에 들어와 해별이 차츰 부드러워지며 정이월의 짙한 추위를 몰아내자 바로 살림방추녀아래에 배가 흰 제비들이 등지를 틀기 시작했다.

지지배배, 지종지종... 제비들은 입부리로 진흙이며 풀검불을 바지런히 물어들어서는 연노랑계석비레칠한 담벽에다 저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벽에서 떨어질듯말듯 날개를 포롱거리며 목수재간을 피우다가도 설참의 한때를 즐기며 마당 한가운데 드리운 빨래줄우에 앉아 쫘지 달짝 봄노래하는 한쌍의 제비들은 진호와 초아를 아득히 먼 옛적에 대한 상념으로 이끌곤 했다.

혹시 저 제비들의 조상일는지도 몰라, 마음착하고 성품 어진 흥부네 가정에 행복의 박씨를 물어다주었다는... 그들부부는 오래오래 화목하게 잘살았는지... 그러느라면 진호는 초아와 더불어 이

루게 될 가정의 행복스런 앞날에 대해 꿈꾸듯 그려보는것이였고 저도 모르게 닿는 시선속에 비껴진 처녀의 얼굴 역시 행복의 무아경속에 취한듯 발깃해있었다. 진호의 마음속엔 그 앞날이 멀지 않았다. 더불어 가슴뿌듯한 긍지감과 함께 초아에게 하고싶은 말마디들이 막 튀어나오려 하고있었다.

초아, 난 김장군님의 령을 받드는 대봉무장대 대원이요!... 우리도 이 땅에 해방의 봄을 앞당겨 오기 위해 싸우는 전사란 말이요!...

진호는 널직한 판돌로 보기 좋게 층을 쌓은 단우에 성큼 올라섰다. 그가 막 문을 두드리려던 참이였다. 귀에 익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호의 정수리에 닿았다.

《그러니 진호가 여기에도 오지 않았다?》

《예, 이 며칠동안은...》

초아의 대답이였다.

방식이 열린 문틈새로 이쪽을 등진 아버지가 초아를 마주하고 선것이 보였다.

낮모를 얼굴들이 손님방의 활 열어젖힌 문가를 메우고 마당 한가운데에 의아쩍은 시선을 쏘고있었으나 아버지는 초아에게 연방 따져묻고있었다.

《너도 저 공시문을 보았겠지. 경찰서에서는 이번 방화범이 진호또래의 젊은 놈들이라 하며 눈을 밝히는가본데 이녀석은 밤낮 어디로 싸다니는 거냐? 아들을 제때제때에 신칙 못한 이 애비도 잘못이지만 네 처사도 분명칠 않다. 장차 그의 사람이 될 네가 행방을 모른다니 될 말이나?》

《아버님, 저는 정말...》

초아의 두어깨가 더욱 좁아지는데 그들에게로 끌린 끌리는 소리가 가까와졌다.

《령감님, 내 심마니노릇을 해오며 몇해째 이 집에서 묵어오지만 처녀만큼 결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문것 같수다. 처녀의 말을 믿으시우.》

손님중의 누군가가 보다못해 초아의 역성을 드는 모양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몰풍스레 말을 내뱉었다.

《손님은 상관마오. 요즘처럼 어수선한 세월에 아들놈 단속을 게을리하다간 가문이 멸살당하오.》

끌린 끌리는 소리가 다시 멀어지는데 대문이 왈칵 열렸다. 둘의 얼굴이 딱 마주쳤다. 대뜸 아버지의 노성이 터졌다.

《네놈은 어딜 그렇게 싸다니는거냐? 경찰서에선 너의 행방을 밝히라구 독촉이 불같은데... 냉큼 달려가서 사실을 고해라.》

《?!》

진호는 일순 당황했으나 인츰 자기를 다잡았다. 아버지가 민망스럽게 그지없었다. 아버지를 감옥으로 끌어가 정신과 육체를 란탕질한 왜놈들에

게 복수를 선언하고 손에 직접 총을 잡은 내가 아니던가. 그런데 아버지본인은 이제 와서 되려 그 왜놈들을 두려워하고 겁나하고있다. 한번 굽히우면 열번, 스무번 짓밟혀 놀리우고 한번 꺾이우면 아예 부러져버려야 하는것이 저 악착한 강도배들에게 강요당하는 비참한 운명일진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두려울것이 무엇인가...

진호는 아무 응대도 않고 돌아섰다. 처녀앞에서 그냥 아버지를 마주하고있기가 거북스러웠던것이다. 몇걸음 옮기는데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군경찰서장어른이 너를 직접 만나자고 할게다. 만나본 다음에는 집으로 함께 오거라, 잊지 말구.》

《예?》

얼굴이 핫핫 달아올랐다. 주위에 초아 하나만 있는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진호는 처녀에게 여태 숨겨오던 집안의 허물을 들키운 수치와 창피로 하여 눈길을 허둥졌다. 그만큼 아버지 에 대한 고까움은 배로 커졌다.

《아버지, 내게 죄가 없다는걸 증명해보이면 그만이지 집에 데려온다는건 뭐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웬 대꾸질이나? 시키는대로 하면 그뿐이지.》

바빠난것은 초아였다. 그 자리에서 피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망설이던 처녀는 진호쪽에 암시 담긴 눈길을 주었으나 그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비웃을거예요. 손가락질할거란 말입니다.》

《진호오빠.》

초아의 나직한 부름에 둘은 그를 바라보았다.

버릇없는 행동인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그들의 말을 밀막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그대로 비껴있는 얼굴, 저고리고름을 매만지며 열듯말듯 갑자르던 입술사이로 낮으나 또박또박한 말이 흘러나왔다.

《아버님말씀을 따라주세요. 집안의 불행을 피하자구 그러는게 아닌가요.》

진호는 저도 모르게 짧은 탄식을 터쳤다. 그에게서 아버지앞에 아들된 도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읽혀지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울컥 속을 터뜨렸다.

《왜놈을 집에 모시는 일이 그렇게 중하거든 초아가 가오, 가.》

2

진호에게 있어서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했던적이 있었다면 면장을 할 때였다.

아버지가 면장이 되었을 때 생떼를 부리며 야단하는 어머니의 말은 그대로 진호의 마음이기도 하였다. 할짓이 없어 왜놈의 손발노릇을 하겠는가고.

그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일인줄 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그것이 치욕이라고 외면해버리면 그 감투가 저 장구장이나 황지주 같은 놈들한테 차례질건 뻔하지 않느냐. 그러면 면내 백성들이 갑절이나 곤욕을 치르게 돼. 난 내가 한개 면이라도 맡아가지고 그들을 지켜주고싶다.》

왕년에 왜병들을 치고 나라를 찾겠다고 의병투쟁에 나섰던 아버지... 그러나 왜놈들과의 조우전에서 부대가 몽땅 녹아나고 하늘처럼 섬겨오던 두령마저 산을 내렸다는 소식을 피신처에서 들었을 때 아버지는 땅을 치며 통탄했다고 한다.

《정녕 우리 백의민족은 저 쪽발이들의 노예가 되여야 한단 말이나. 너 하늘아, 땅아, 대답해다오, 언제 어느때 이 나라를 품안을 위인을 내려주려느냐.》

면장이 된 후 아버지는 면민들의 보호자가 되고 저 열심을 기울여 노력했다.

언제인가 조선 《총독부》 관리가 군내 면들을 순회한적이 있었다. 그놈이 지나간 곳곳마다에서 곡성이 터져나왔다. 행차의 목적이 처녀들을 《정신대》에 끌어가려는데 있었던것이다. 흉한 소문은 놈의 행차를 따라앞서 다른 면들의 딸가진 집들에 불안과 공포의 검은구름을 몰아왔다. 드디어 그 《총독부》 관리놈이 아버지가 면장으로 있는 면사무소에 나타났다. 놈은 만나자바람으로 면의 호적명부부터 찾았다. 허나 놈의 분부는 아버지의 빙긋한 웃음과 함께 곧 술상으로 이어졌다. 이미 준비해놓은 술자리에는 면내에서 제노라는것들이 모여 기다리고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취기가 거나해지자 아버지는 준비했던 한장의 종이장을 꺼내어 놈앞에 내놓았다.

《우리 면에서 뽑은 〈정신대〉 대상들이지요. 이 처년 황주사택 만팔 그리구 장구장네 딸, 양주 공장주인의 둘째딸, 송죽려관의 외동딸...》

아침으로 부어지고 굴욕속에 쟁강대던 술잔들이 거만스레 키를 솟군 유리고뿌두리에서 흠칫 굳어졌다. 그러자 진호의 아버지가 호기를 뽑았다.

《허, 왜들 이러는거요. 이런 일에서야 면의 어른들인 우리가 모범이 돼야겠지 아니요.》

저희 딸들의 이름을 불러온 혈색종던 상관들이 면장의 말에 낯색이 더욱 시꺼매질뿐 대꾸 한마디 못했다. 면장집머느리감으로 온 마을에 소문이 짜한 초아까지도 《정신대》명단에 들어있는것이다. 지금 자리에 없기는 하지만 처녀의 아버지

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지?...

《이곳 면장이야말로 제국에 충실한 사람ियो.》

《총독부》관리의 알뜰한 입가에 그려지는 미묘한 웃음을 들여다보고서야 그네들은 미간의 주름들을 폈다. 역시 그들도 사람의 등속을 알아내어 부를 쌓아온자들인지라 이번기회에 목돈을 챙기려는 놈의 속심을 제격 들여다보았던것이다. 결국 아버지가 짚던 《정신대》명단은 빈 휴지장이 되어버렸다. 그물안에 든 물고기 꿰진 구멍으로 새나가듯 하나둘 빠지며 나중에는 초아 하나만이 남게 되었던것을 《총독부》관리스스로가 진호와의 약혼을 구실로 삭제해버린것이였다. 제놈 뒤구멍을 뻥히 들여다보는 면장에게 어쩔수없이 베푼 《선심》이였다.

이 일이 있는 후 초아네는 더 말할것도 없고 면내 가난한 사람들모두가 아버지를 더없이 고마와했다.

그러던 어느해 봄날 면에 이번에는 《국방부인회》것들이 나타났다. 평양에 지부를 두고있다는 그것들은 군의 크지 않은 공설운동장에서 제국을 위한 《충정》의 기회요, 뉘요 하며 높이 들어올린 머리가 풀어지도록 한바탕 열을 뽐고는 순사들을 앞세우고 면내 집들에 들이닥치였다. 황군에 헌납할 비행기를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것이였다. 암고양이 쥐 본 상을 해가지고 먼지두터운 천정마루에까지 눈을 밝히는 왜년들의 앙탈질에, 암닭들을 거느린 수닭처럼 기세를 뽐는 검은 제복들의 만용에 고이 진사했던 짐승가죽들이며 약재, 패물따위들이 눈물에 젖어 묻어나왔다.

년놈들이 한바리 가득 집을 싣고 끌어구를 벗어날 때였다.

《아, 면장님께서 이제사 오십니다. 린색한 이곳 백성들의 원성은 우리더러 실컷 맛보게 하고 이제 와서는 총독부앞에 쌓일 치적에서 한뭉 뉘우자는건가요.》

아까부터 기다린듯 한 아버지를 띄여보자 부회장이라는년이 야스겁게 시까של었다.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않고 짐이 실린 말파리에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속을 뒤흔기 시작했다. 손때묻은 낯그릇들이며 산골특유의 체취가 그대로 풍기는 은가락지 등이 닿을 때마다 아버지는 손을 후들후들 떨었다. 바닥까지 말짱 들추고나서 아버지는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누가 곰열을 건사했소? 저 여우굴 우물집에서 뺏어낸것 말이요.》

《뺏다니?... 그 말쑤이 아주 온당치 않습니다.》

좀전보다는 기가 죽은 그러면서도 온몸지 않게

톡 쏘는 부회장년의 손에 곰열이 쥐여져있었다.

《당신들도 사람이요? 산후탈로 당장 죽게 된 환자에게서...》

아버지는 뿔어오르는 분기를 누르듯 신음소리를 냈다.

《말말아요. 황군은 제국의 번영을 위해 귀한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이까짓 약이 무슨 대순가요. 말이 난김에 한가지 묻겠어요. 면장님은 제국을 위한 일에 꾀방을 놓으려고 면장이 된건 아닐테지요?》

《닥치시오, 면장도 면민들을 위해 필요한거요. 그래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내면서까지 황군을 돕는게 당신네 법인가. 그런걸 실행하는게 면장이라면 난 당장에 견어치우겠소.》

날 선 말들이 오가던 끝에 년놈들은 아버지를 욱버르며 사라졌다.

머칠후 왜놈들은 아버지를 《제국모독죄》로 몰아 감옥으로 끌어갔다. 포승에 묶이워 감옥으로 끌려가는 날 면내 주민들 거의 모두가 아버지를 따라나섰다.

《면장님이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오, 어떻게...》

발치에 어푸러지며 곡을 쏟는 우물집늙은이의 처절한 웨침이였다. 아버지는 걸음을 무춌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나 하듯 여윈 어깨를 들먹이는 로인으로부러 곁에 줄느런히선 아들과 다른이들을 흐릿한 시선으로 여겨보았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못 볼듯싶어 망막속에 깊이 새겨두련듯...

갑자기 때아닌 웃음소리가 골안을 흔들었다.

《하하하, 으하하하...》

사람들은 겁기에 질려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비낀것은 실성한 면장이 아니라 흐르는 눈물속에 회오의 아픔을 담은 사나이의 모습이였다.

아버지는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내가 어리석었소. 나라잃은 주제에 면민들을 지켜준다고?... 아! 사람구실을 하재도 나лага 있어야겠구나.》

1년후 아버지는 폐인이 되어 풀려나왔다.

아버지는 영 판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버지가 옥살이를 끝내고 나왔을 때 무장대에서는 혁명의 편에 세우도록 진호에게 과업을 주었다. 그러나 진호는 이내 실망하고말았다.

사상동향을 알아본다고 때없이 드닥치는 경관놈들에게 눈이 시글도록 굶신거리는 아버지, 그놈들을 위해 자주 마련하곤 하는 술자리... 진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왜놈세상에 퍼붓던 비난과

의분을 팔자타령으로 대신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쏜던 선의를 가정의 부를 채우는 리기로 바꾼 아버지... 이것이 감옥안의 피비린내 풍기는 환경이 바꾸어놓은 아버지의 모습인가...

진호는 한때 아버지를 병문안하러 가끔 집에 오곤 하던 최면장이란 사람을 리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최면장은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두달 앞서 출옥한 사람이었는데 감옥살이를 하기 전에는 그도 덕천 어디선가 면장을 했다고 하였다. 이상스럽게도 아버지는 그를 만날 때마다 더없이 반가와했다. 아버지는 그를 귀빈처럼 대했고 그의 얘기를 심중해서 듣고 조용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호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좌석에는 한번도 끼우지 못했다. 옥살이를 함께 한 사람들이 출옥후 서로 만나는 것을 경계하는 왜놈들이어서 밖을 살펴야 했던 것이다. 진호는 언제부터 최면장을 조용히 만나볼 기회를 엿보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에는 그가 좀처럼 집에 나타나지 않고있었다.

집앞에 이른 진호는 생각을 거두었다.

높다랗게 쌓은 담장너머로 산골에서는 흔치 않게 기와를 얹은 추녀들린 지붕이 희벗한 달빛속에 평온스레 솟아있다. 그러나 그 지붕아래에 서로 상반되는 두 세계가 펼쳐져있어 리기와 불만, 굴욕과 수치로 혼란된 공기를 호흡하는 인간들의 생활은 평범치 않은 것이다.

북대봉골안에는 아버지가 몇 해째 몰래 가꾸오는 아편밭이 있었다. 거기서 얻어지는 아편덩이들은 대부분 밀수군들의 주머니에 흘러들었고 나머지는 군과 면의 경관놈들에게 섬겨지고있었다.

아편수입으로 얻어낸 지폐장들을 남포등아래서 눈바투 대이고 세여보며 성공의 희열속에 혹은 실패의 두려움속에 래일의 궁리를 툴을 아버지... 진호가 때때로 그려본 환영이 지금 펼쳐져있음을 암시하듯 불이 환히 켜진 사랑방쪽에서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진호로 하여금 유격대원호물자를 마련하는데 쓸 돈을 아버지에게서 구하려던 계획이 틀어지리라는 강한 예감을 주었다. 하기는 진호가 경찰서에서 취조받고 나온 날 저녁 초아가 청해온 군경찰서장놈에게조차도 요구한 아편량을 적당한 구실을 붙여가며 절반밖에 주지 않은 아버지인 것이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당장 큰돈을 변통해올 뻔족한 수도 없다. 프락에서 잠시 망설이던 진호는 곧장 아버지에게로 갔다.

방안에는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만이 홀로 앉아 무슨 생각엔가 골몰해있었다.

《인제 오느냐.》

아버지는 기다리기에 지친듯 시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진호는 오늘 아침 철길을 보수하는 부역일에 나갈 때 아버지가 수일 어간에 북쪽방향으로 올라가는 기차가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하던것을 상기했다. 진호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역장을 만나려고 했었다. 역으로 어떤 기차들과 화물들이 통과하는가를 알아내는것은 그가 조직에서 받은 임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장을 만날수가 없었다. 만나려는 역장결에 경찰서장놈이 종일 붙어다녔던 것이다. 웬일인가 해서 철도인부에게 물으니 어제부터 군경찰서에서 나와 역주변에 삼엄한 경계진을 뒀는데 누구인지 큰놈이 오는 모양이라고 했다...

얘기를 듣고난 아버지는 쓴입을 다셨다.

《네너석을 밟다간 큰돈을 놓치겠다.》

움쭉 몸을 일으킨 아버지는 장농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큼직한 아편덩이를 꺼냈다. 전에 서장놈에게 줄 때 남겨두었던 것이었다. 어디에 쓰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럼 유격대원호물자를 마련하는 일은?... 조바심에 속이 단 진호는 아버지앞으로 한무릎 나섰다.

《아버지, 그걸 내게 줄수 없어요?》

《?》

《친구들과 같이 장사판을 퍼볼까 해서요. 그런데 돈이 좀 모자라서...》

진호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푸들쩍 떠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기쁘거나 반가운 일이 닳을 때면 나타내곤 하는 저 버릇, 마음속 금선이 스르르 떨리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네가 셈이 들어가는게 이 애빈 기쁘구나. 하지만 돈벌이는 나이와 경험이 있어야 하는거야.》

《...》

아버지는 묻는듯 한 진호의 시선을 털어버리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의 혈기를 믿었다가 아까운 돈을 잃느니 차라리 서장더러 내 뒤일을 잘 봐달래는게 낫지.》

진호는 아버지를 멈춰세우지 않았다.

삐걱소리를 내며 닫긴 문이 남포등빛속에 확대되어 다가왔다.

진호는 그것이 아버지와 자기사이에 더는 넘어설수 없는 높다란 장벽처럼 여겨지었다.

3

한달후.

진호는 대항지골을 향해 떠났다. 그곳에는 조선인민혁명군과의 편계를 맺는 비밀련락장소가 있었

다. 대붕무장대가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그곳을 거쳐 유격대에 보냈던지라 진호는 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진호는 오늘 이곳에서 대붕무장대와 상면을 요구해온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 무장대 대장은 우리와 한편에 서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진호는 비상접선을 요구한 그 미지의 인물이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났다. 어떤 사람일까? 이 일대에 우리 무장대 말고 또 다른 반일지하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진호는 한식경이 훨씬 지나서야 끌어귀에 이르렀다. 시간을 확인해보고난 그는 굶다란 뭉둥이를 꺾어 들고 강대나무결로 다가갔다.

팅팅팅... 거퍼 세번을 치고난 진호는 자세를 낮추어 귀를 강구었으나 산벽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산울림뿐 화답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반복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점차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양덕 화학공장 방화사건 이후 왜놈들은 그 주범을 색출해낸다고 공시문까지 거리의 곳곳에 내붙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웅당 있어야 할 검문검색소동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진호를 비롯해서 그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을 불러다 취조놀음만을 하고 말았을 뿐이었다. 지금에 와보니 그 정적이 더욱 이상한 주의를 끌었다. 교활한 왜놈들이 어떤 단서를 하나 잡아쥐고 놀래우지 않으려고 뒤에서 몰래 추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을 털어버리듯 움쭉 몸을 일으킨 진호는 다시 신호를 보내려고 뭉둥이를 추켜들었다.

이때 등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울렸다.

《힘쓸을데가 없어 몸살이냐.》

《?!》

돌아보던 진호는 그만 깜짝 놀랐다. 뒤에는 아버지가 서있었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진호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손에는 가는 쇠줄들을 여러겹으로 꼬아서 만든 웅노가 쥐여져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으로 드문히 산에서 곰이나 메돼지들을 잡아 약재를 장만해두었다가는 적절한 기회에 장사치들에게 팔아넘기곤 했다. 좀처럼 털어버릴 수 없는 그 금전에 대한 유혹이 이체는 인적드문 이곳까지 아버지를 이끈 모양인가...

다행히도 아버지는 더 캐어묻지 않고 돌아서버렸다. 그런데 몇걸음 내짚다 말고 무엇인가 생각키운 듯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까 웅노를 놓으려다 보니 이곳에두 이젠 사람발길이 잦아졌더라. 너두 짐승사냥을 나왔됐으면 애초에 단념하거라.》

《?!...》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벌써 접선의 실패를 의미했다. 접선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장은 만일 첫번째 상면에서 실패하는 경우 산곡광산의 비밀아지트에서 자기와 직접 만나게 되어있다고 했다. 접선자는 모름지기 최악의 상태까지도 예견한 것 같았다. 빨리 몸을 피해야 했다.

진호는 아버지가 내려간 곳을 따라 몇걸음 발자욱을 떼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어마나, 진호오빠.》

진호는 깜짝 놀랐다. 뜻밖에도 초아가 나타난 것이다.

《웬일이야, 처녀가 무섭지두 않아?》

진호는 더더욱 커지는 불안을 애써 감추며 부러 통명스레 말을 뱉었다.

《나 산삼캐러 왔어요, 아버님께 드릴려구.》

《산삼이라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산삼찾는게 뭐 그리 대단하다구. 글썽 어제밤 꿈에 누군가 알려주더군요, 이곳에 산삼이 있다구.》

점점 모를 소리뿐이다. 초아가 감옥살이에 허해진 아버지의 몸을 추켜세우느라 원심을 써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까지 들어와 산삼을 찾는다? 부디 비밀련락장소가 가까이에서?

《실은 우리 려관에서 몇해째 묵으며 주변산들을 뒤지는 심마니 있잖아요? 내가 아버님속병을 그냥 걱정하니까 이 아근에 50년쯤 묵어보이는 산삼 한뿌리를 봐두었다지 않아요. 그러면서 산삼캐는 재미가 어떤건지 맛보라구 하면서 함께 가보자구 하더군요. 그런데 따라와보니 삼질한 흔적만 있고 산삼은 벌써 누가 캐갔더군요. 현대 이분이 어디 갔을가, 방금까지 돈줄을 잃었다고 푸념이더니...》

이때 앞쪽에서 나무덤불 헤치는 소리가 나더니 중태기에 자그마한 삼을 찢러넣은 사나이가 나타났다. 언제인가 려관에서 아버지에게 초아의 편역을 들어주던 그 사람이다.

《이저 처녀앞에 면목이 없구만. 뛰는 놈우에 나는 놈이라더니, 허, 랑패요.》

터덜터덜 산을 내리는 그를 바래우고서 진호는 초아와 함께 산삼을 도착맞혔다는 곳으로 갔다.

순간 진호는 등골이 선뜩했다. 산삼을 캐 때 심마니들은 잔뿌리 하나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을 중심으로 구획을 넓게 잡고 깊숙이 파들어간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큼직한 흙덩어리채로 산삼을 땅에서 떼어내서는 흙을 조심조심 부스러

뜨리는 식으로 산삼을 얻어내는것이다. 그러느라니 산삼을 캔 자리에는 자연 깊숙하고 넓은 구멍이가 생기기마련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파갔다는 자리에는 구멍이는커녕 몇번의 삽질로 뚫기친 흔적만이 있을뿐이었다. 대번에 그 심마니란 작자가 이상스러웠다.

진호는 그놈이 내려간쪽을 쏘아보며 낮은 어조로 부르짖었다.

《초아는 속았소.》

진호는 비밀련락장소가 놈들의 감시속에 들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초아를 속여가지고 산속으로 들어온 그놈이 도대체 누구의 뒤를 밟았던 말인가. 여기로 들어왔던 사람은 나와 아버지뿐이다. 그럼 아버지가 나의 접선자?...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과 더불어 지난 아버지의 과거의 장면, 장면들이 거꾸내기로 떠올랐다. 아니, 아니다! 아버지는 아니다! 진호는 속으로 강하게 부정했다. 그렇다면 내가?... 식은땀이 온몸에 내돌았다.

초아가 긴장한 낯빛으로 진호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그는 오늘 초아가 밀정놈에게 속아 리용당한것이 그의 잘못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진호, 자기의 실책이었던것이다.

진호는 초아에게 왜놈들의 간교한 술책을 까밝히며 자기도 밝히기로 결심했다.

...

처녀는 경악했다. 놈들의 비렬한 음모에 본의아니게 빠져들었던 자기를 끝없이 질책하며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러는 한편 처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깨끗한 그의 눈동자속에 놀라움과 경탄의 빛이 가득 차오르고있었다. 아니, 그것만은 아니였다. 자기가 앞날을 의탁하고자 하는 진호가 왜놈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떠는 **김일성**장군님의 령을 받는 대봉무장대의 한 성원이라는, 그래서 더욱 미더웁고 소중해지는 존재이기에 온몸이 방패가 되어서라도 그를 지켜낼 의지로 가슴들먹이고있음을 처녀의 눈빛은 말해주고있었다.

그는 진호를 향해 결연히 말했다.

《주저하지 말아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호는 초아와 함께 산곡광산의 비밀아지트로 갈것을 결심했다. 송죽려관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식량구입을 구실로 그와 함께 떠난다면 놈들의 의심을 덜 살수 있었던것이다.

정황은 절박했다. 진호는 한시급히 비밀련락장소가 탄로난 사실을 무장대 대장에게 알려야 했다.

《접선자는 우리에게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토벌〉하기 위해 증파되는 왜놈들이 래일모레 낮 12시 군수렬차로 군의 지경을 통과한다고 알려왔소. 형세는 우리에게 아주 불리해졌소. 우선 시간이 절박한것이고 놈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대해 확고한 단서는 쥐지 못했지만 어떤 낚새를 눈치챈 상태에서 동무의 활동이 자유로울수 없다는거요. 하지만 진호동무, 난 우리 무장대의 역량으로 적 군수렬차를 전복시키기로 결심했소. 폭약을 부탁하오. 어떤 일이 있어도 래일모레 렬차전복장소인 룡계4리 세번째 차굴로 와주오.》

무장대 대장의 말이였다.

폭약보관장소는 진호만이 알고있었다. 그는 일이 몹시 어려우리라는것을 알았다. 놈들의 감시에서 벗어나는것도 그렇지만 군수렬차를 전복시키는 일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것 같았다. 철길 주변에는 벌써 삼엄한 경계망이 퍼져있었던것이다.

더구나 군수렬차는 대낮에 통과하는것이다. 진호가 한창 생각을 굴리는중인데 문득 무장대 대장이 물었다.

《참, 진호동무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

진호는 의아한 눈길로 대장을 건너다보았다. 가느다란 빛을 내며 열심히 타오르는 팽솔불빛아래서 그는 미소하고있었다. 그러나 함께 웃을수가 없는 진호였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의 아버지는 안되겠습니다. 전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단념했습니다.》

《그렇다?... 이른 속단이 아닐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천길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하지만 진호는 덤덤해있을뿐이었다.

진호의 낯색이 몹시 칙울해보였던지 대장은 더 말할념을 안했다. 그들은 곧 헤어졌다.

초아를 바래우고난 진호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념은 않고 진호는 맡겨진 임무에 대한 뼈근한 긴장감을 안고서 트랙을 거닐었다.

담배에서는 때없이 인기척이 나고 담배불이 껌벅거린다. 로골적인 감시였다. 초아의 신상이 격정되였다. 오늘은 요행 놈들을 속여넘길수 있었지만 인차 그놈들은 이번에 진호와 초아가 함께 갔던 진목적을 밝혀내려고 할것이다.

《밤이 깊었는데 자지 않고 왜 서성거리느냐.》 뒤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서있었다. 손에는 껌

질을 깨끗이 밀어낸 호미자루가 들려있었다. 아버지는 진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제잡담 말을 이었다.

《허튼 생각 말고 모레부터는 나와 함께 북대봉 골안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예?!》

아편밭을 가꾸러 함께 가자는 소리이다.

아버지는 봄철에 씨앗을 뿌려서부터 꽃의 진을 받을 때까지 아예 한살림 퍼놓다싶이 거기다 초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았다. 헌데 이번에 함께 가려는 건 웬 까닭인가? 나를 맘놓을 수 없어 심산속에 비끄러매두자는 건가. 한발자국 나서며 반발하려는 진호의 머리속에 피륙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 들어가면 놈들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엔 통제 4리로도 빠질 수 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이틀후 진호는 아버지와 함께 말파리에 올랐다.

산속에서 여러달을 보내야 하는지라 마차에는 식량, 소금, 남비... 지어는 사냥에 쓰이는 도구들까지 가득 실려있었다.

그들이 얼마쯤 말을 달렸을 때였다. 말이 갑자기 오호호— 소리를 지르며 앞발을 추켜들었다.

두놈의 기마경찰이 앞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그중 한놈은 군경찰서 서장놈이었다.

《신상, 지금 어디로 가는가?》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별이를 또 해야지요. 그래 북대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말을 끄적거리며 서장놈에게 끄떡 눈짓을 해보였다. 아버지에게서 공짜로 아편덩이들을 받아먹던 놈인지라 그 의미를 모를리 없었다. 그러나 놈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진호네를 번갈아살피더니 《하지만 지금이 비상시국인지라 짐을 좀 봐야겠다.》 하고 뇌까렸다.

그리고는 옆의 놈에게 마차의 짐들을 가리켰다. 《뒤져라.》

식량과 소금자루가 거꾸로 뒤집혀지고 남비뚜껑이 쟁강소리를 내며 풀섶으로 날아났다. 한참만에야 수색을 끝낸 놈들은 식량과 소금들을 퍼그나 덜어냈다.

《신상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규정이니 할 수 없다. 그리구 산에는 들어가되 아들은 땔구라!》

《?!》

진호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일이 이렇게 끝나고마는가. 그럼 폭약은? 군수철차는? 그는 구원을 청하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않고 마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오던 길로 말을 돌렸다.

《도대체 어쩔 셈인가?》

어리벙해진 서장놈의 지껄임에 아버지가 툭 맞갖지 않게 대답했다.

《난 이젠 늙은 몸이요. 아들놈없이 내가 산에서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소. 올해부터는 걷어쥔게 아무것도 없겠군.》

누구를 녀두에 둔 것인지 아리송한 마지막말에 놈의 세모눈이 껌벅거렸다. 잠시 생각에 골몰하던 놈은 마침내 허공에 대고 말채찍을 휙 내리고 있었다.

《좋다, 가라. 가되 너희들의 행처는 알아야겠다. 야, 함께 갔다오라.》

엄금된 아편밭에 따라보내는 것을 보면 옆의 놈이 상관에게 이만저만 신임받는 놈이 아님을 알수 있었으나 진호에게는 벌써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찌!—》

아버지는 말잔등에 보기 좋게 채찍을 안겼다. 말은 한번 푸들쩍 놀라더니 주인의 속내를 알은듯 네굽을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차는 송죽려관앞에서 다시 멎어서게 되었다.

5

려관앞에는 술한 사람들이 몰려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리고있었다.

진호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때 려관마당에서 왜가리청이 터졌다.

《바른대로 말해!》

진호는 대뜸 두눈을 치켜뜨며 초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선 경관놈에게 다가섰다.

《이건 뭐요?》

《넌 뭐야?》

《왜 처녀에게 행패요? 이 처녀 내 약혼녀요.》

놈의 입가에 얄미운 미소가 그려졌다. 그러더니 초아의 불에 손가락을 톡톡 두드려댔다.

《너의 것이나 제국의 경찰관앞에 솔직치 못하거든. 그래 감옥맛을 보이자는 거야. 길을 비켜!》

《못 가요. 알아볼게 있으면 여기서 물으시오.》

《뭘이?》

놈의 눈살이 대번에 꺾뻗해지며 살기를 뿜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처마아래에 섰던 놈의 모자채양에 무엇인가 떨어졌다. 경관모를 벗어 살펴보면 코를 벌름대던 놈이 낫색을 찌프렸다. 파릿해진 놈의 시선이 방금 까난 등지의 새끼들을 들여다보며 지지배배하는 어미제비에게 날아갔다.

즉시에 놈은 칼집에서 긴 칼을 빼들었다. 허공

을 베는 휘파람소리와 함께 제비등지가 토방우에 털썩 떨어졌다. 놈은 그것을 사정없이 내리찍고 똥기치기 시작했다.

어미제비의 새된 울음소리가 공중에서 울리고 산산이 흩어진 등지에서는 피덩이로 변한 새끼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한동안 얼없이 서있던 진호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더듬었다. 말큰말큰한것이 손에 잡히고 아직 따끈한 온기가 폐부속으로 흘러든다. 후들거리는 손가락썹새로 빨간 피자국이 내뻘었다. 가는 곳마다 악이 뻘처럼 도사리고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는 제비들마저도 보금자리를 쫓수가 없구나!... 그의 숨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침내 진호는 분노로 화끈 단 몸을 일으켜 놈에게로 성난 사자마냥 육박했다.

《이 쪽발이새끼!》

그는 놈의 칼을 앗아들고 그것으로 놈을 타격하여 쓰러뜨리고는 사정없이 발로 들이쳤다. 이때 말파리를 따르던 놈이 진호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순간에 급소를 얻어맞고 나동그라졌다. 번갈아가며 놈들에게 주먹과 발로 분풀이를 해대던 진호는 손에 찢 칼을 높이 추켜들었다.

이때였다.

퍽— 진호는 갑자기 얼굴로 날아든 주먹에 칼을 떨구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크게 안겨왔다.

《이 못된 들망아지같은 녀석!》

《?!》

아버지의 두눈에서 황황 이는 불길기 진호의 온몸을 태우고있었다. 그 불길에 지지우며 진호는 참고참았던 울분을 터쳤다.

《이건 뭐예요? 예?! 아버지! 비겁해요. 비굴해요. 아버지도 이 왜놈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편에 서는겁니까? 예?!》

마당을 드렁드렁 울리던 격한 웨침은 이내 잦아들고말았다. 쓰러졌던 경관놈이 뒤로 달려들며 덮쳐던것이다. 결국 그는 어쩔수없이 놈들에게 두팔을 묶이우고말았다.

진호는 마차에 올라서도 분기를 누를수 없어 헉헉 단숨을 뿔어올렸다. 그러나 마차가려관을 떠난지 얼마 안되어 그는 푸들쩍 놀라며 벌떡 몸까지 솟구었다. 해별에 은빛을 발산하는 두줄기 철길을 띄여보았던것이다. 그러자 머리속을 태우는 생각... 아, 나의 임무!... 나를, 폭약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을 동지들...

그런데 나는 지금 룡계4리와는 반대쪽인 경찰서

로 끌려가고있지 않는가. 폭약이 없어 가슴을 쥐여뜯으며 안타까이 진호를 찾는 전우들... 레루장이 드렁드렁 울리고 차츰 기차의 동음이 커지는 속에 굴박으로 시키면 동체를 불쑥 솟구는 적군수렬차... 이어 수림속을 향해 산병선을 펼치고 점점 좁혀드는 왜놈의 무리들...

어지러운 환영에 진호는 부르르 온몸을 떨었다. 정신마저 혼미해지는듯싶었다. 근심에 찬 아니, 안타까움에 젖은 초아의 시선과 마주친 진호는 그만에야 다시 고개를 푹 떨구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무슨 일을!... 자신에 대한 혐오와 경멸, 끝없는 후회속에 진호는 아버지가 말을 멈추는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

마차우에서 진호네를 지켜왔던 놈이 썩 소리를 치고 뒤따르던 놈이 이쪽으로 말을 몰아왔다.

《말에게 물을 먹여야겠수다.》

아버지는 마차에서 모두 내리게 하고는 말의 굴레를 벗겼다. 그리고는 여울물이 흐르는 곳으로 말고삐를 끌었다.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던 수말이 두어번 고개를 주억거리며 무슨 냄새를 맡는가싶더니 주인에게서 고삐를 힝 나꾸어쳤다. 그리고는 경관놈이 탄 암말에게 덤벼들었다. 수말의 급습에 놀란 암말은 한길나마 뛰여오르더니 잔등우의 놈을 떨구어버리고 저만치 달아났다.

《아이쿠!》 그놈은 신음소리를 내지르는데 마차에 앉았던 놈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너털웃음을 터쳤다.

이때 벼락같은 웨침소리가 울렸다.

《이놈들, 꼼짝들 말아!》

진호도 초아도 그리고 놈들도 깜짝 놀랐다.

돌아보니 어느새 아버지가 마차에 놓여있던 장총을 들고 놈들을 겨냥하고 서있었다. 이어 아버지는 놈들에게서 긴장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진호와 초아의 포승을 풀어주었다.

진호와 초아는 후닥닥 뛰여내려 경관놈들을 마차에 쫄쫄 묶어놓았다. 아가리에는 형겔쪼박을 틀어박았다. 그러고나서 그들은 아버지와 마주섰다.

《애야, 이놈들은 내가 처리할테니 넌 초아를 데리고 빨리 떠나거라.》

《아니, 아버지!...》

아버지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마치도 그 한번의 끄덕임에 만가지 사연을 다 담은듯 했다.

진호의 마음속에 서서히 뜨거운것이 차오르다가 싶었다.

수년세월 굳어졌던 의혹이 봄눈처럼 녹아버리고 새로운 의혹들이 가슴속을 메우는 순간이었다. 많은것을 묻고싶고 많은것을 알고싶은 순간이었다.

한가지만은 명백했다. 아버지가, 원쑤의 편이라고 생각해온 아버지가 혁명의 정의로운 동지라는 바로 그것이였다.

진호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의 벽이 스르르 무너지고 그대신 죄스러움의 덩어리가 후회속에 새로이 영겨도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것만 같은 생각이 강렬하게 마음을 틀어잡았다.

진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뜨겁게 말했다.

《아버지! 절 용서하십시오.》

《원, 자식두...》

아버지의 큼직한 손이 진호의 어깨를 짖 틀어잡았다.

뜨거움의 걱정을 꿀꺽 삼키며 진호는 다시 말했다.

《아버지, 함께... 함께 가십시오.》

아버지는 잠시 아들과 곁에 선 초아를 번갈아보았다. 둘의 몸을 따듯이 감싸는 그의 눈빛에서는 애뜻한 정이 흐르고있었다. 행복의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래일의 밝은 미소가 눈앞에 그려진듯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일뿐 진호의 어깨너머 통제4리로 향한 언덕길을 응시하는 아버지의 안색이 근엄해졌다.

《사내자식이란게... 내 걱정은 말아. 임무를 잊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통명스러웠다. 그러나 진호가 어찌 모르랴. 임무수행을 위해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가슴속에 무엇이 끓고있는지...

진호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초아와 함께 아버지 곁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고 또 보는 초아의 입술사이로 간간이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아버님!-》

진호네는 드디어 폭약을 가지고 약속된 지점에 도착하였다.

렬차통과시간은 거의 박두하고있었다. 그러나 대장이하 모든 대원들은 철길을 따라 늘어선 놈들의 삼엄한 경계로 몹시 초조해하며 어찌지 못하고있었다. 방도는 오직 하나 놈들을 유인하는것이였다.

진호는 주저없이 일어섰다. 초아의 물기어린 시선이 그를 격려해주고있었다.

이때 갑자기 두방의 총성이 야무지게 울렸다.

이윽하여 한대의 눈익은 마차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마차였다.

질풍같이 달려오던 마차는 철길가까이에 이르자 반대방향으로 꺾어들었다. 철길주변에 끓던 왜놈들이 총소리를 어지러이 울리며 아버지를 쫓아갔다.

진호네들은 눈물을 뿌리며 차굴입구에 폭약을 설치했다.

낮 12시, 흰 연기를 토해내며 차굴을 벗어나던 왜놈들의 군수렬차가 하늘공중 날아오를 때 총소리가 쿵쿵듯 하던 언덕너머에서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뒤이어 연기타래가 꾸물거리며 하늘가로 치솟아올랐다.

《아버지!-》

진호는 땅을 치며 목터지게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의 대답인듯 맞은편 산허리에서 메아리가 웅글게 되돌아왔다. 온 수림이 우후후- 하고 통채로 뒤설레였다.

무장대성원들도 뜨거운 눈길로 그쪽산발을 바라보았다.

×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계절이 한창인 양덕일대에 알려지지 않은 큰 경사가 있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중부조선지대 지하조직책임자들과 소부대소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해 남대봉으로 나오시였던것이다.

그날 진호는 대봉무장대 대원들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는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보초를 교대하고 숙영지로 돌아오던 진호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오는 일행속에서 낮익은 사람을 띄여보게 되었다. 그는 다름아닌 최면장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양덕과 덕천일대의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성원이였다. 그를 통하여 진호는 아버지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최면장의 영향을 받아 **김일성**장군님의 혁명군에 대해 깊이 감복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휘하에서 목숨바쳐 싸울 각오로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탕지골의 비밀련락장소에서 진호와 접선하게 되어있던 사람도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고 했다.

진호는 최면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목메여 불렀다.

《아버지!...》

...그때로부터 준엄한 시련의 나날을 헤쳐오는 전기간 진호의 곁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서있었다.

감옥에서 출옥하던 그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곳곳이 걸어나가던 혁명가의 모습으로...

가사

생이란 무엇인가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라고

시내물 모여서 강을 이루듯
날들이 모여 생을 이루리
그 생이 짧은들 누가 탓하랴
영생은 시간과 인연없어라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세월이 간대도 잊을수 없는
조국에 바쳐진 순간이라고

고요한 아침에 이슬이 지듯
나의 생 사라진대도
어머니조국은 기억하리라
병사의 이름과 걸어온 길을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그대가 크나큰 심장이라면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피방울
마지막 한방울 다할 때까지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

은혜론 품속에 나서 자라나
나 하나 행복을 바라고 살라
청춘의 그 나이 묻지를 말라
순간을 산대도 값있게 살리
아 나의 조국아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단 평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

—가사 《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두고—

김 해 월

세월이 흘러도 널리 불리워지면서 사람들을 숭고한 세계로 이끌어가는데 명작의 가치와 생명력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하고 로숙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로동당 시대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던 1980년대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심장의 고동을 담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된 가요 《생이란 무엇인가》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참된 삶이란 무엇이고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깨우쳐주며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냅니다.》

이 두편의 가사들은 거창한 사변들과 변혁으로 충만된 력사적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실생활로 체험한 수련과 조국에 대한 고결하고 숭엄한 감정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찾아내고 풍만한 서정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세월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이 가사들은 다같이 조국애를 노래하면서 심

오한 인간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힘으로써
개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되고있다.

작품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과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에 형상의 모
를 박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철
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 《생이란 무엇인가》는 불타는 조국애와
희생적인 헌신, 혁명적타관을 통하여 참다운 생이
란 무엇인가라는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생이란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추억할
조국에 바쳐진 지난날이라고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줌으로써 조국과 떨어져서는 생각할수 없는 인간
의 참다운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있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조국과 전사
와의 관계에서 시의 사상적알맹이가 탐구되고있다.

조국과 전사와의 관계를 나무와 아지에 피는 잎
사귀, 심장과 피방울에 비유하여 형상함으로써 사
람들에게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생을 바쳐야 하
는가에 대하여 훌륭한 해답을 주고있다.

두편의 가사에서 철학적심오성은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한몸바치는 전사에게는 죽음이란 있을수
없으며 순간을 살아도 혁명의 길에서 생의 뚜
렷한 자욱을 남겨야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
생할수 있다는 서정적주인공의 확신과 믿음을 진
실하고도 철학적으로 무게있게 노래한데 있다.

인간의 생은 삶에 대한 견해와 관점의 발현과정
이다. 생에 대한 견해와 자각이 인생의 전과정은
물론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한다. 아무리 숭고한 리
상과 목표를 내세웠어도 옳바른 인생관에 기초하
지 못하면 삶의 전과정을 빛나는 순간순간으로 이
어갈수 없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뚜렷한 생의 자
욱을 남길수 없다.

인생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숭고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만사람의 찬양과 기억속에 아름다운 생으
로 이어지기마련이다.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라고

—가사 《생이란 무엇인가》중에서—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흩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중에서—

가사의 구절구절에서는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바친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값있는것이며 그
런 생은 영원하다는 삶의 진리, 심오한 인생철학
이 울리고있다.

생의 마지막순간에 뒤돌아보며 웃으며 추억할수
있게 조국을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
려놓는것은 서정적주인공들의 가슴속에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
상을 간직하였기때문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것은 수령에게 충실하는것
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
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이 지켜지고 담보된다. 하기에 자기 운명을 지
켜주고 참된 삶을 꽃피워준 수령을 위해 충정
다하는것은 곧 조국을 위해 바치는 삶으로 되
며 인간의 웅대한 본분이고 도리이다.

수령과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은 영원하다. 이것
이 두편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참다운 인
생관, 인생철학이다.

이처럼 가사들은 폭넓은 사색과 강렬한 체험으로
수령과 조국을 받드는 사상감정을 자주적인 삶
의 근본요구로 강렬하게 느끼고 노래함으로써 사
상감정의 진실성, 순결성, 심오성을 보장하고있다.

이 두편의 가사들은 심장을 다 바쳐 수령과 조
국을 받드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생활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함으로써 예술
적품위를 보장하고있다.

작품들은 수령과 조국을 사랑하고 받드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생활정서적으로 파악
함으로써 혁명전사들의 숭고하고 영웅적인 삶을 표
현하는 서정적형상들이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다.

가사 《생이란 무엇인가》에 형상된 생을 짧게
산다 해도 조국위해 한몸숨 바쳐가려는 전사의 희
생적인 헌신, 값높은 위훈속에 빛나게 살려는 전
사의 의지, 고요한 아침에 이슬이 지듯 자기 생이
사라진대도 어머니조국은 병사의 이름과 걸어온 길
을 추억하리라는 전사의 혁명적량만과 신념, 이러
한 시세계에는 참으로 하나를 가지고 열, 백을 느
끼게 하는 시적일반화의 심오한 경지가 있다.

가사들에서는 충정의 삶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극적이며 비유적인 생활세부들을 다양한 시점에서
풀라잡고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밝히는데로 지향시
켰다.

충정의 신념과 의지를 자주적인 인간의 심장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그것을 빛나는 생을 입증하는
극적이며 숭고한 시적세부를 통하여 감명깊게 찬

명함으로써 가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의 정수를 밝힐수 있었으며 형상의 무게와 품위가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었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의 철학적심오성은 조국과 전사와의 관계를 한그루 나무와 그 아지에 피는 잎사귀, 크나큰 심장과 그 품에 뛰는 피방울의 관계로 통속적이면서도 형상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대한 사상과 감정의 집약화된 화폭으로 이끌어올리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한그루 나무》와 《피는 잎사귀》, 《크나큰 심장》과 《뛰는 피방울》로 형상적으로 비유된 조국과 전사와의 관계는 끝없이 소박하고 통속적이나 그것은 시인자신의 내부적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인민모두의 체험된 감정으로 승화되면서 더욱 고조된다.

잎사귀는 찬바람이 불어와 떨어진대도 나무를 위해 흠이 되어 그 뿌리를 덮어주고 피방울은 마지막 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높뛰는 심장의 고동을 더해주리라 한것은 조국에 대한 전사의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그리하여 하나의 생명체에 비유된 이 시적일반

화는 조국과 전사의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사색과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주고있다.

수령과 조국을 위해 목숨바치는 전사는 순간을 살아도 값있게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서정적주인공의 불같은 신념의 목소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나갈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삶의 매 순간순간을 수령과 조국을 위해 바치는 생은 영생하며 그러한 신념을 간직한 인간만이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다는 심오한 철학을 보여준 여기에 이 가사들이 주체의 관점에서 삶에 대한 철학을 깊이있게 해명한 성과가 있다.

이처럼 가사 《생이란 무엇인가》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조국과 전사의 삶에 대한 시대적으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하는데서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천만군민과 함께 가요 《생이란 무엇인가》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더 높이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참다운 인생철학을 깨우쳐주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탐구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상 식

만 복 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이 름지어주신 꽃이다.

평양화초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새로 육종한 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아버지장군님께서 지난해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들이 새로 육종한 심비디움꽃들의 이름을 꽃이 핀 다음에 달아야 할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만복화**》라는 뜻깊은 이름을 지어 주시였다.

란과 심비디움속에 속하는 사철푸른 여러해살이화초이다.

꽃이 아주 고울뿐아니라 오래 피는 꽃들중의 하나이다.

꽃피는 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다. 꽃이 핀 대를 잘라 물병에 꽂아놓아도 한달이상 간다.

빛을 즐기며 생육에 알맞는 온도는 10~25℃이다. 어디에서나 쉽게 재배할수 있다.

화분용이나 꺾음꽃용화초로서 꽃도 잎도 다 보기 좋다.

꽃의 상징

사람들은 오랜 세월 꽃을 즐겨 가꾸어오면서 아름다운 꽃들에 상징적인 뜻을 붙여 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장미꽃은 사랑과 열정의 상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스승, 친구들의 생일이나 결혼, 학교입학 등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랑과 축하의 뜻으로 널리 리용된다.

카네손은 영생,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 가정의 따뜻한 향기의 상징으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뜻에서 3.8국제부녀절이나 어머니날에 어머니에게 드리는 꽃으로 널리 리용된다. 살아있는 어머니에게는 빨간 꽃, 사망한 어머니에게는 흰 꽃을 드린다.

국화는 고결성, 우아함, 강직한 성품, 장수의 상징으로 리용된다. 흰색국화는 애도의 뜻으로 널리 리용된다.

흰통꽃나리는 순결성, 고상한 성품, 화목의 상징으로 백년을 하루와 같이 화목하게 살라는 뜻에서 결혼 축하꽃으로 많이 리용된다.

향설란은 밝은 미래의 상징으로 리용된다.

칼라는 순결성, 고상한 성품, 성실성의 상징으로 결혼식때 꽃다발로 널리 리용된다.

튤립은 사랑의 고백, 화려한 사랑의 뜻으로 리용된다.

시 초

나의 한 해

— 피눈물의 12월부터 오늘까지의 일기 중에서 —

최 남 순

장군님 마음놓으십시오

그냥 앉아 울고만 있으면
우리 장군님 걱정하실것 같아
슬픔을 깨물며 나는 나왔다
새 교사건설장
내가 설 교단이 더 높이 쌓아지는 우리 대학

허나 한집 모래집도 왜 그리 무거운지
나는 비척거렸다 그대로 주저앉을것만 같았다
내 작은 어깨우에
하늘땅에 가득찬 비애의 짐이 실린듯
눈물이 앞을 가리워 건설장층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때 누군가 그 짐 받쳐주며
등뒤에서 조용히— 《힘을 냅시다》
뒤돌아보니 키를 넘게 벽돌집을 진
나어린 군인동무
빨강게 충혈져 불붙는 눈으로 나를 본다

난 더이상 비척거리지 않았다
하나둘 층계를 맘속으로 세며
밤새 모래집을 날랐다
마치지 못한 죄스러운 맘의 짐 떨어내듯
쏟아놓으면 너무 보잘것 없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날 밟도록 말없이 부축해준 그
나는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슬픔을 남먼저 이겨낸
그는 군인 장군님 키워주신 우리 군대

얼어든 동견하늘 불붙이며 새날의 태양이 솟을 때
어디선가 그 어디선가
아버이장군님
서로 의지한 우리 모습 보실듯
나는 마음속으로 아뢰고 또 아뢰었다
—아, 아, 장군님 마음놓으십시오

창 밖엔 봄꽃이...

가시며 따뜻한 정 남기고 가셨는가
봄이 왔구나
해마다 새 학년도면
우리의 과정안 보아주시고
새 교육설비 보내주시는 그 사랑속에 찾아오던
교정의 봄이 예대로 왔구나
창밖엔 봄꽃이 불란다

래일강의를 준비하며
강의안 펼쳐드니
더더욱 사무치는 장군님 생각
그 어떤 과학의 원리 가르친다 해도
그 원리로 마련된 창조물 하나 떼든다 해도
후대들이 덕을 보게 하자고 그리도 정 기울이시던
우리 장군님이야기 늘 목메여 하지 않았더나

이제 내 교단에 서면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못 견디게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심장은 세차게 뼓다
웬대애 지그시 힘을 주고
강의안을 보충해간다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 위대한 사랑 이어주신다고...

오늘은 **김정은**동지께서!
이 말—
끝없이 이어지는 인민사랑의 전설 첫 구절인가
원아들의 두볼을 어루만지시던
설명절날 그 따스한 손길이 글줄에 깃든다
사랑의 선물안고 외진 섬으로 날던
직승기의 동음소리 이 강의안에서 울린다

오늘은 **김정은**동지께서!
이 말—
태양의 모습 이으시며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분
모든것 다 주시려
장군님처럼 한생을 불태워가실
그분애 대한 감사의 노래 첫 선물인가

나는 강의안을 힘있게 번져간다
끝을 맺는다
영원히 **김정은**동지 위하여
영원히 **김정은**동지 위하여

우리의 이 강의안에
오로지 그분만을 따를
내 인생의 발걸음 먼저 울리여라

이제 내 가르칠 그 모든 과학의 원리며
세계를 내다볼 최첨단지식도
바로 이 말속에서 세워지고 쌓아지리라

후대들을 위한 장군님 사랑
김정은동지 계시여

오늘도 해빛으로 파스하기에
교정엔 봄이 왔구나
우리의 꿈과 희망 다 품안고
창밖엔 봄꽃이 불타누나
아, 새 학년도이다

아버지의 생일날에

아버지는 새벽도 이른새벽
일터로 나가셨다
우리 자식들도 서둘러 따라섰으니
레사로운 아침이었던가
오늘은 아버지의 생일이였다
다만 축하의 인사는 하지 못한

올해에 생일소린 당치 않은 소리라
애당초 밀막으신 아버지
심중속에 묻어둔 말 자식들은 안다
누구인들 그 아픈 사연 모르랴

정녕 장군님 생각에
차마 생일을 쉼수 없어
뒤로만 멀리 밀어놓고싶은 아버지세대
추억에 산다는 로년기에
하야 할 일만 생각하며
백발우에 남먼저 이고 나섰나니

나의 아버지처럼
그가 어느 대학의 로교수이든
또 누구의 아버지처럼

용해장이며 협동벌에
성실한 생 깡그리 물어가는분들이든
설사 자그마한 공원의 관리원아바이라 해도
마치 인생의 출발선에 선듯
쉽없이 일감을 찾고 높은 목표에로만 향하고

생각하나니
어버이장군님 떠나시며
크나크고 성스러운 자신의 생을
이 나라 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신것 아닌가
더욱더 고결하게 열렬하게 살아
조국 조국을 위하라고

그러하더라
머리 흰 우리 아버지들이
굳이 생일상을 미룸은
다만 슬픔때문만이 아니다
장군님의 조국을 위해 바치고 바쳐갈
인생의 리정표 더 멀리 세우려 함이여라
이 아침 우리 자식들도
그렇듯 먼길을 따라서라고

우리는 새 교사 준공식을 한다

오실것만 같아
정녕 오실것만 같아
그리움의 교문을 활짝 열어놓고
준공식을 한다 우리는
교정에 새롭게 일떠선 교사의 준공식을

천만금 아끼지 말고
후대들을 위해 잘 지어주라고
완공되면 한번 꼭 나와보겠다 하시던
우리의 어버이를 사무치게 그리며
준공식을 한다 우리는
장군님사랑과 뜻으로 일떠선 새 교사의 준공식을

도서관의 황홀한 대리석기둥아
해빛밝은 강의실에 높이 걸린 칠판들아
불을 비벼보자 가슴에 꺼안아보자
마치 뜨거운 숨결로 살아숨쉬며
거세차게 숨쉬며 하많은 사연 속삭일것 같은
교정의 모든것들아

말하여다오
애절한 곡성에 얼어붙었던
이 모든 벽체가
어떻게 눈부신 창문을 안고 높이 일떠섰더냐
말하여다오
피눈물에 패여지던 교정길이
어떻게 더 굳게 더 넓게 다져졌더냐

오, 잊지 못할 그 나날
장군님 우릴 위해 남겨주신 사랑을 싣고
저 교문을 짝 메우며 들어서던 건설자재들이며
무겁고 간곡한 당부인양
이 교정에 변함없이 울리던 종소리가
우릴 깨우쳤더라 어서 일떠서라고

영원히 식지 않을 어버이사랑에 대한
열렬한 보답으로
우리는 세웠다 이 교사
제 손으로 세워가는 우리자신조차 놀라움도록
그렇듯 빨리 그렇듯 힘있게

보아라
우리 교사와 더불어
저기 저 행복의 탑인양 솟아오른 창전거리며
물보라 웃음기둥이 솟구치는 통라인민유원지며
한해사이에 변모되고 변모된 이 땅의 모든것이
정녕 못 잊을 친근한 어버이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그리움의 노래이다
위대한 수령의 위업에 대한
인민의 절대불변할 신념의 메부리이다

영광이여라
저 거창한 기념비들에
나의 진정도 조용히 깃들여있다는것이
장군님의 유혼을 받들어
나 또한 슬픔을 딛고 일어서
강의한 인민의 한사람으로 살아왔다는것이

마음속에 항상 끓는 그리움의 눈물만큼
이 나라 인민은
진하디진한 땀을 쏟아 오늘을 안아왔나니
하여 우리는 준공식을 한다
이 땅에 또 하나 새 배움터가 일떠섰음을
여기서 우리 미래 더 씩씩하게 자라나리라는것을
세상에 대고 긍지높이 웨친다

오, 우리의 새 배움터—이는
장군님뜻과 리상으로
우리 원수님 이끄시는
조국의 먼먼 래일에 대한 끝없는 확신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벽차고 아름다운 송가
우리는 한다 새 교사의 준공식을
영원히 닫기지 않을 그리움의 교문 활짝 열고

12월의 흰눈길

눈이 내리누나 하얀 눈이
내앞에
아득한 눈길 펼쳐놓으며
12월의 흰눈이 내리누나

한해전
영결의 언덕에서
가까운 현지도의 길이라도 가시듯
장군님 환히 웃으시며 떠나가실 때도
흰눈아 너는 그렇게 하염없이 내렸지

금방 장군님 떠나가신 길우로
울며 따라서는 우리 발자국을
하나하나 또렷이 떠올리며
장군님 마음놓으시게
경애하는 김정온동지 잘 받들리라는
우리 심장의 맹세도 함께 새겨주며
그렇게 하얗게 펼쳐지던 흰눈아

12월의 흰눈우에
철든 인생의 첫 자욱인양
너무도 뒤늦게
너무도 아프게 깊은 자욱 찍으며
우린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야 했다
장군님 바라시던 그런 아들딸들이 되기 위해

그날부터 내 마음엔
늘 12월의 흰눈이 쌓이곤 했으니
봄꽃잎 내려앉는 교정길에
사색의 자욱을 새길 때도
건설장 야간전투의 밤 밝히고
새벽달빛 밝으며 돌아올 때도
마음엔 12월의 흰눈길이 펼쳐졌다

때로 지쳐 쓰러졌다가도

어디선가 들려올듯싶은
장군님 야전렬차기적소리에
소스라쳐 일어나
내 다시 탐구의 펜을 달릴 때도
나는 그날의 흰눈길을 걸었다

때로 새 거리 불밝은 가로수밑을
고마움에 목메여 거닐다가도
장군님모습으로
인민을 위해 생눈길 헤치시는
아, 원수님 생각에
서둘러 일터로 향하던 그 걸음걸음도
정녕 그날의 흰눈길을 걸었다

장군님의 령전앞에서
우리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무거웠는가를
우리 다진 맹세가 얼마나 진실했는가를 증명한
그 모든 실천과 실천들이
녹지 않는 12월의 흰눈우에 찍은
생의 흔적 아니던가

흰눈이 내린다
12월의 하얀 눈이
맹세가 목숨갈던 영결의 순간처럼
한해를 살아왔는가 묻고물으며
뚜렷하게 뗏뗏하게 순결한 량심의 대답인양 찍힐
너와 나 모두의 발자국을 기다리며
흰눈길이 펼쳐진다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뜨겁고 열렬했던 지난 한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 받들어
한생을 살수 있는가 묻고물으며
12월의 흰눈이 내린다
아득한 흰눈길을 내앞에 펼쳐놓는다



꽃피는 시절에

엄 호 삼

1

인물고운 처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마련이다.

××일용품공장 치술직장 현장기사인 리주경이도 그러한 처녀였다. 그가 공장에 배치되어왔을 때 총각들의 시선이 집중된것은 물론이고 온 공장의 처녀들까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정도였다. 머리단장을 곱게 하고 연분홍빛 《코스모스》머리빈치를 꼰 주경은 언제 봐야 간편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계절옷을 입고다녔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의 밝은 살결과 날씬한 몸매는 더욱 돋보였다.

주경의 아버지는 대학교수이고 어머니는 피복공장 부지배인인데다 본인은 경공업대학 졸업생이다. 그야말로 총각들에게는 리상적인 배우자였고 아들이 가진 부모들이 탐낼만 한 며느리감이었다. 구태여 흠이라고 하면 어렸을적부터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외동딸이라는것이라고 할지...

그런데 인물고운 처녀에게는 흔히 부담스러운 정도의 친절과 호의, 관심이 뒤따른다. 기술파의 기사였던 주경이가 치술직장의 현장기사로 자진하자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아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허나 그가 현장기사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면서부터 여러가지 억측과 의혹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가 치술직장에 온 후 치술의 모양과 색깔 등 여러가지 질적지표들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얼마전에는 강모사에 은나노분말을 첨가한 나노치술생산에 성공한것이다.

주경이가 시집갈 나이에 이르자 신랑감을 소개해주려고 원심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

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종당에는 모두 손들고 나앉았다. 그리고는 눈이 높은 처녀라느니 외모와는 달리 몹시 차갑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던 어느날 사람들을 놀래우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포장작업반의 한 애기어머니가 오후에 탁아소에 가다가 공장정문에서 총각과 만나는 주경이를 보았다는것이다.

《아 글썄 멋진 승용차에서 잘 생긴 총각이 내리더니 주경기사한테 다가가더군요. 주경기사는 무척 기뻐했어요. 그들옆을 지나가며 얼핏 총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대뜸 야, 저 두사람은 천상배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각이했다. 글썄 그러면 그럴것지 하는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 아쉬워하는 사람, 그럴줄 알았다고 미묘한 미소를 짓는 사람...

유독 김정순직장장의 얼굴에서만은 알지 못할 불안감이 떠올랐다.

2

초여름이다. 이른아침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열려진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은 잠든 주경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창턱에서는 흰비둘기가 오늘은 왜 먹이를 빨리 주지 않는가고 불평을 부리듯 씹없이 꾸르륵거렸다.

아침해가 빛을 뿌리기 시작했어도 주경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행복한 꿈을 꾸는지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있는 갓 피어난 흰 장미를 련상시켰다.

톡톡, 톡톡톡...

마침내 비둘기 한마리가 참지 못하겠는지 부리로 창유리를 쪼아댔다.

단잠에서 깨어난 주경은 한쪽눈을 살짝 감고 창문으로 자기를 뵈히 들여다보는 비둘기를 멍지 않게 흘려보았다.

《오늘은 좀 늦잠을 자려했는데… 앵이, 가만 있어. 이제 먹이를 줄게.》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음껏 들이키며 기지개를 하고난 주경은 비둘기의 먹이통을 찾아들었다. 그가 한창 먹이를 뿌려주는데 문득 전실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여보, 치술을 또 바꾸었소?》

《예. 쓰던 치술은 주경이가 가져갔어요. 무슨 세기를 분석한다던지… 이번의 새 치술은 당신이 좋아할거라더군요.》

어머니의 대답에 뒤이어 어이없어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허 참, 귀여운 따님덕분에 내가 실험대상이 되었군. 이리다간…》

주경은 미소를 띠우고 전실로 나섰다. 딸을 본 아버지가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가 그만두고 제껴 세면장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이자 뭐라구 하셨어요?》

외동딸을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인지라 치술을 입가에 가져가며 능청을 부렸다.

《치술박사인 따님덕분에 매일 새 치술을 쓰니 좋다고 했지.》

《피, 거짓말.》

《아니, 정말이다. 음음…》

힘있게 치술질을 하며 아버지는 주경에게 눈을 껌벅거렸다.

세면을 끝낸 아버지에게 수건을 받쳐주며 주경은 살뜰히 물었다.

《아버지, 새 치술이 어때요? 이젠 살균력이 높고 입안위생에도 좋은 은나노치술이에요.》

아버지는 대답대신 입술을 찡그렸다.

《이몸이 아프세요?》

걱정스러워하는 주경의 물음에 아버지는 우정 뜨직뜨직 대답했다.

《음— 아픈가 말이지? 음— 음 합격이다. 나노치술의 형태와 색깔도 괜찮고 강모사의 굵기와 세기도 나처럼 이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에게도 적합할것 같구나.》

《아이, 아버지가 치술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쟁쟁한 치술전문가의 아버지라면 그쯤이야 알고있어야지.》

《야—》

주경은 손벽을 짝 마주치고 아버지의 목을 그러안았다. 밝게 웃는 주경을 보며 흡족해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말이다.…》

《왜 그러세요?》

주경은 긴장해졌다.

《문제는 다 큰 처녀인 주경이가 이렇게 아이들처럼 아버지의 목에 매달린다는거지. 시집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다.》

《행, 난 시집을 안 가요.》

《모를 소리다.》

아버지가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에그 됐어요. 그 애도 무슨 속궁리가 있겠지요. 어서 식사나 하세요.》

세사람은 식탁에 마주앉았다.

하지만 기분이 봉 뜬 주경은 밥을 먹는등마는등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후 자기 방에 들어갔던 그는 외출복을 입고 나와 전실의 벽거울앞에 섰다. 몸맵시를 보는 딸에게 다가간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사촌오빠가 준 크림은 왜 바르지 않니?》

《난 아버지, 어머니가 넘겨준 본래의 살결이 더 좋아요. 그 동무도 그러더군요.》

《그 동무라니?》

눈이 휘둥그레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경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익은 능금알이 되어버렸다.

《오— 사실…》

다음말이 떠오르지 않아 주경은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얼른 신발을 찾아신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놀라움과 의아함, 반가움이 뒤섞인 눈길로 마주보았다.

3

궤도전차에서 내린 주경은 습관적으로 길 건너편 정류소쪽을 바라보았다. 늘 먼저 와 기다리던 일용품연구소의 연구사인 성민이가 보이지 않았다. 성민은 그의 대학동창이었다. 일용품공장과 연구소가 길을 사이에 두고 자리잡고있는데다가 은나노치술의 개발이 시작되자 그들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출근때에는 정 급한 일이 없으면 길 건너편에서 간단히 눈인사를 나누었고 퇴근후에는 의례히 영화관옆의 공원에서 만나 하루의 연구정형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곤 했었다.

(오늘은 어찌된 일일까? 전번처럼 아크릴수지판
택개선문제때문에 머리빈 칩직장에서 밤을 새운
걸까? 혹시 앓는게 아닐까?…)

성민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주경은 어쩐지 허전
한감이 들었다. 그의 이런 심정을 알리 없는 가방
직장의 처녀가 옆을 지나다가 한마디 던졌다.

《뭘 자꾸 돌아봐요? 혹시 그 멧쟁이총각을 찾
는게 아니예요?》

《멧쟁이총각이라니?》

《승용차를 타고왔던 미남자 말이예요.》

미묘한 미소를 남기고 그 처녀는 앞서갔다.

주경은 어이가 없어 걸음을 멈추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무역성 부원인 사촌오빠를
만난것이 이렇게 소문난것이다.

(성민동무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주
경은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떠도는 소문이나 듣
고 오해할 성민이가 아니었던것이다.

문득 대학졸업후 성민이와 만나던 일이 생각
났다.

…

사회에 진출하여 첫 생활비를 탄 주경은 퇴근길
에 상점으로 향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버지의 생일이다. 그래 이
몸이 약한 아버지에게 나노치술을 사드리고 이제
는 자기도 철부지가 아니며 당당한 사회의 한 성
원임을 보여주고싶었다.

상점앞에서 주경은 뜻밖에도 성민이와 마주치게
되었다.

《성민동무,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요? 주경동무구만. 그런걸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날 찾는줄로 착각할번 했
소.》

성민이가 반색하며 익살을 부렸다. 대학때에
도 늘 모든 문제를 해학적으로 분석하고 표현하던
그였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주경은 깔깔
하니 툭 내쏘았다.

《홍, 그렇다고 동무가 선남이 될줄 알아요. 하
두 동창생이니…》

《아 됐소, 됐소. 고놈의 성미는 여전하군.》

《아무렴요. 그래 성민동문 어디에 배치받았
어요?》

《며칠전에 일용품연구소에 배치받았소. 참 주
경동문 일용품공장으로 갔다지. 그러니 앞으로 자
주 만나게 되었소. 그런데 지금 어딜 가요?》

《아버지에게 드릴 나노치술을 사러 가됐어요.》

《나노치술?! 동무네 공장에서 생산한거요?》

성민은 약간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아니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좋지 못해서
수입제치술을 사려고 해요.》

순간 성민의 얼굴에 떠오르던 흥분과 반가움
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천만뜻밖이라는듯 락
심한 기색으로 한동안 주경을 바라보더니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난 지금껏 주경동무가 자존심이 강한 처녀
인줄로 알고있었소. 그런데…》

《예에?!》

주경의 얼굴은 대뜸 새파랗게 질렸다. 하면서도
성민의 말에 담겨있는 비난을 반박할수 없어 그의
입술은 바르르 떨기만 했다.

《하, 이거 비가 오려나. 날씨가 흐린다. 주경
동무, 난 바빠서… 후에 다시 만나지요.》

성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둘러 자리를 피
했다.

주경은 억이 막혀 사람들사이로 걸어가는 성
민의 뒤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결국 자기가 한
꼴 먹은셈이었다. 너무도 분해 그는 입술을 꼭 옥
물었다.

《홍, 누가 다시 만나겠대.》

여하튼 그날 주경은 수입제나노치술대신 평양화
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불소치약을 샀다.

집으로 돌아가는 주경의 걸음은 무거웠다. 점차
성민에 대한 고까움이 사라지고 자신을 깊이 돌이
켜보게 되었던것이다.

대학시절에 그는 성민이와 함께 한날한시에 대
학생과학기술탐구상을 수여받았었다. 그때 앞으로
의 더 큰 성과를 바란다면 자기 받은 꽃다발
까지 주경에게 안겨주던 성민이었다.

(오늘 성민동무의 비난은 웅당한거야. 내가 지
금껏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주경의 생각은 깊어졌다. 공장기술과에 배치
된 후 자기는 그저 별로 어렵지 않은 기술적문제
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니 자기 만족감과 우월
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다나니 대학
때의 탐구적열정이 서서히 식어버린것이다. 자
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었다. 부끄
러웠다.

사람들의 눈에 별로 뜨이지 않는 치술이라고 대
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다른 나라의 제품을 압도하
려는 생각을 못했으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
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시였
는데 나는 제멋에 겨워 제편의 자존심만 내세우지
않았는가? 그래도 한때는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세
계적패권을 쥐겠다는 포부를 간직했던 자신이 어

찌하여 이렇게 되고말았는가? 그것은 명백했다. 이 땅에 무엇을 바치겠다는 목표가 없었기때문이었다. 목표가 없으니 뜨거운 열정이 솟구쳐오르지 못했던것이다.

주경은 비로소 교만과 자만이 사람을 말공부쟁이, 시대의 락오분자로 만들게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일용공업분야에서의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우리 식의 새로운 나노기술을 개발하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 첫걸음으로 기사장에게 치솔직장의 현장기사로 보내달라고 제기했다.

현장생활은 험치 않았다. 현장경험이 없어 종업원들의 기발한 창의고안을 대담하게 믿지 못했고 그것을 생산에 도입할 때도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게다가 현장에 내려올 때 결심한 은나노기술의 개발도 재료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애를 먹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퇴근하는 주경의 앞에 불쑥 성민이가 나타났다.

그리 밝지 못한 주경의 얼굴을 얼핏 띄여본 성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한마디 했다.

《이거 날이 벌써 어두워졌나? 주경동무의 환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동무의 눈이 잘못되었군요. 여름해는 늦게 지는 법이에요.》

《아, 그렇던가...》

성민은 벌써 웃으며 손에 든 책들을 주경에게 내밀었다.

《자, 이건 내가 보던 책인데 아마 동무에게 참고가 될거요.》

얼굴에 책들을 받아든 주경은 깜짝 놀랐다. 일용품공업에서 나노재료의 응용과 그 세계적추세에 대한 자료들이었던것이다. 며칠째 부모님들은 물론 무역성의 사촌오빠에게도 애원절반, 강압절반 부탁하던 책들이 단번에 해결되니 너무도 반가와 눈물이 글썽해졌다.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야 재료전문가가 아니요. 주경동무가 나노기술에 달라붙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미리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오.》

자책어린 성민의 말을 들으니 주경은 자신이 죄스러웠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성민을 고깝게만 생각한 그였다. 미리 성민의 방조를 받았으면 나노기술의 개발이 제자리걸음하지 않았을것이었다.

웅졸했던 자신을 뉘우치고있는 주경에게 성민은 진심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아무때나 찾소.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 먼저 가겠소.》

성민은 전번에 만났을 때처럼 바람같이 사라졌다.

《그저 늘 바쁘대. 일은 저 혼자 하나, 흥.》

토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면서도 주경은 성민이가 준 책들을 보물처럼 꼭 가슴에 안았다.

그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

...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일까?)

야속함 비슷한 심정으로 공장에 들어서던 주경은 머리빈침직장에서 나오는 성민을 보았다. 몹시 지친 기색이건만 주경을 보자 미소를 보였다.

4

휴게실에서 작업복을 입으면서도 주경의 생각은 성민에게 가있었다.

(성민동무가 어제 밤을 새운것이 분명해. 아크릴수지의 광택개선이 잘 안되는게지. 내가 도와줄것이 없을까?...)

새삼스레 익살스러운 미소를 짓군 하는 성민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왜서인지 날이 갈수록 미덥고 정이 가는 동무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속에 불쑥 지난 봄 어느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주경은 아침일찍 인민대학습당으로 갔었다. 하루종일 일용품들의 새로운 건본과 재료에 대한 자료작업을 하기로 성민이와 약속했던것이다. 그런데 성민은 11시가 되어서야 열람실에 나타났다. 책상앞에 다가와 비위 좋게 벌쑥 웃는 성민을 보는 주경의 눈길은 껍지 못했다.

《그만 쏘아보오. 그러다간 내 몸에 구멍이 나겠소.》

《음.》

힘주어 헛기침을 짓으며 주경은 책에 눈길을 돌렸다. 조용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성민이가 도리어 주경이가 보는 책을 뺏아들고 열람실밖으로 나가는것이 아닌가. 별수없이 뒤따라가니 성민이가 조용한 곳에서 기다리고있었다.

《늦어서 미안하오. 하지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소. 뭔가 하니 전번에 동무가 액상침전법에 의한 나노분말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에 대해 물은적이 있지?》

《그래서요?》

《그 말을 듣고 지금껏 그 방도를 찾아보았는데 어제 밤에야 멋진 착상이 떠오르더구만. 그래 오

늘 아침에 실험해보았는데 종전의 방법보다 나노 분말의 생성속도가 훨씬 빨라졌소.》

《아, 그래요!》

주경은 너무도 기뻐 성민의 손을 잡으며 환성을 질렀다.

《가만, 가만, 조용하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오? 그리구 또 한가지 알려줄게 있소.》

성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는 바람에 주경은 무슨 일인가 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내 오늘 귀중한 착상의 실머리를 던져준 동무에게 옥류관국수를 대접하겠소.》

《아, 정말이에요?》

《아, 아, 조용하라는데...》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곱배기를 신청하는것만은 잊지 마세요. 지금껏 연구밖에 모르던 동무가 오늘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는거요. 이제 당장 가지요.》

...

그날 실지 쟁반국수 두그릇을 요정내는 자기를 보며 눈이 휘둥그래지던 성민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여 주경은 방긋 웃음을 지었다. 그가 휴게실을 나서는데 방금 현장을 돌아본듯 한 정순직장장이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경동문 작업복을 입어도 곱군요. 막 시샘이 날 정도예요. 호호호.》

《아이, 무슨 말씀...》

주경의 얼굴은 금시에 붉어졌다.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를 정겹게 바라보며 직장장이 말했다.

《주경동무, 이제 기사장동지의 방에 가세요.》

《?》

《은나노치술때문일거예요. 그리구... 어쨌든 가보세요.》

무슨 말을 더 할듯 하던 직장장이 등을 떠미는 바람에 주경은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게다가 나노치술개발을 놓고 기사장과 그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감정마찰들이 되새겨졌던것이다.

...

《나노치술이라! 좋지, 난 적극 찬성하오. 그런데 말이요.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잠깐, 예, 기사장입니다. 아, 그렇소. 정말 수고했소. 성능검사는 내가 없어도 할수 있겠지? 예... 예... 그럼 기사동무를 믿겠소.》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기사장이 주경에게 돌아서는데 또다시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기사장은 량해

를 구하는 표정을 지어보이고 다시 송수화기를 들었다.

《예, 기사장입니다. 뭐라구, 도대체 어찌 자는거요. 가방직장에서는 이미 설비개조를 끝내고 새로운 제품도안까지 제출했던 말이요. 정말 한심하구만. 알겠소. 내 인차 가겠소.》

기사장은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주경을 돌아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주경동무, 그런데 말이요. 솔직히 난 나노 재료와 나노치술분야에서는 초학도나 다름없소. 더우기 공장의 생산공정현대화가 한창이니 숨돌릴새도 없구만. 내 생각에는 대담하게 동무가 혼자서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소. 일용품연구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말이요.》

기사장이 웃는 얼굴로 하는 말이었으나 주경은 자기가 무시당하는듯 한감을 느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도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기사장동지는...

방을 나선 주경의 눈가에 눈물이 내배였다. 잠시 상처입은 자존심을 달래느라니 가식없는 기사장의 하소연과 월새없던 전화종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기사장동지는 바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자기의 실력을 최대로 발휘할 대신 도움을 청하고 철부지처럼 투정질을 하고있구나. 아직 내가 정신이 덜 들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주경은 자신을 다잡았다.

《분발하자.》

그날 기사장이 자기를 무시한것이 아니라 제발로 걸어나가도록 떠밀어준것이라는것을 주경이가 깨달은것은 나노치술의 첫 시제품이 생산되었을 때였다. 현장에 쌓여있는 시제품들을 보며 기사장은 주경을 칭찬했다.

《팬찮아. 정말 큰 일을 해제졌거던. 주경동무, 그새 도와주지 않는다고 날 욕 많이 했지?》

자기의 마음속을 엿본듯 한 기사장의 물음에 주경은 몸둘바를 몰라했다.

《욕이야 뭐... 사실 제가 웅당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사장은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런데 나노치술제작에 쓰이는 원료와 자재, 설비들의 명세를 들여다보던 기사장이 주경에게 심중히 물었다.

《그런데 말이요. 주경동무, 원가타산을 해봤소? 귀금속이 지내 많이 들어가는것 같구만.》

풍선마냥 등 떠있던 주경의 마음은 순식간에 납

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실지 나노치술의 다량생산에 들어간다면 적지 않은 귀금속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살균효과가 높고 건강에 좋다면야... 더우기 나노치술생산이 세계적 추세인데...) 하는 생각이 주경의 머리속에서 맴돌았다.

그의 속생각을 넘겨본듯 기사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만하면 나노치술의 질과 모양이 훌륭하오. 그런데 말이요. 아직은 부족점들이 있거던. 색깔도 그렇고 원가도 그렇고... 주경동무, 우리 좀더 멀리를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소. 하지만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좀더 탐구하고 노력하면 자금도 절약하고 더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무작정 만세부터 부른다면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지.》

기사장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주경이가 받은 감동은 컸다. 그는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 더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피타는 노력 끝에 주경은 석달만에 나노치술의 원가를 낮추고 색깔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냈다. 그중의 하나가 PBT수지와 나노분말의 배합비율의 최적화였고 다른 하나는 은나노분말을 회수리용하는 방법이었다.

...

주경이가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내놓은지도 벌써 열흘이나 된다.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을까?)

불안한 심정을 안고 주경은 기사장방으로 걸어갔다.

5

기사장방에 이른 주경은 조심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방안에서 응답소리가 나자 주경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문을 열었다. 방안에는 뜻밖에도 기사장과 함께 지배인도 앉아있었다.

주경을 알아본 지배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반갑게 맞이했다.

《아, 주경동무구만. 어서 들어오오.》

《안녕하십니까? 저 기사장동지가 찾는대기에...》

지배인은 그냥 서있는 주경이한테로 다가와 두 손을 잡아 의자에 앉혀주었다.

《어서 앉소. 사실 나나 기사장동무는 우리 공장의 보배인 주경동무를 금방석에 앉혀주고싶소. 그렇지 않소, 기사장동무?》

《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경동무와 마주 앉고보니 미안한 생각보다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혹시 기사장동무의 마음이 나약해지는게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주경동무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길에서 누구한테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기세로 내달리니 자칫하면 내가 뒤질까봐 걱정돼서 그렇니다. 지배인동지도 저와 생각이 같을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허, 기사장동무의 말이 옳소. 허허허...》

《하하하.》

지배인과 기사장의 웃음소리가 방안의 분위기를 일변시켰다. 가만히 두사람의 대화를 듣기만 하던 주경은 도무지 진담인지 통담인지 가늠할 수 없어 눈길을 들었다. 환히 웃고있는 지배인과 기사장의 얼굴을 보고서야 그는 자기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두사람이 여담삼아 자기들의 진심을 토로하고있음을 깨달았다. 주경이와 눈길이 부딪친 지배인이 웃음을 거두며 량해를 구했다.

《이제 주경동무를 앉혀놓고 우리끼리만 이야기 해서 안됐소.》

《팬쵸습니다.》

《사실 주경동무를 찾은것은 알려줄것이 있어서요. 어제 성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주경동무가 개발한 은나노치술의 생산을 승인했소.》

그리고 공장당위원회와도 토론했는데 기사장동무의 의견대로 주경동무를 기술준비실로 조동시키기로 했소. 기술준비실은 새 제품들의 연구개발과 그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부서인것만큼...》

(은나노치술이 끝내 성공했구나!)

주경은 기쁨에 휩싸였다. 자기의 창조물이 인민 생활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었다는 감격과 함께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말았다.

《그래 자신있겠지? 아니, 우는게 아니요?》

지배인의 말이 끝난 뒤 주경이가 기술준비실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해주던 기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주경은 급히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았다.

《저 미안합니다. 나노치술의 생산이 승인되었다니 기쁘기도 하고 좀더 빨리 성공시키지 못한 자신이 죄스럽기도 해서...》

주경의 심정이 이해되어 기사장과 지배인은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다.

잠시후 주경이가 진정되자 지배인이 말했다.

《우리 앞으로 일을 더 잘합시다. 주경동무, 이자 이야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오?》

《저-기술준비실로 조동시키는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의 견본과 기술적지표들은 무조건 한주일내에 끝내겠습니다.》

《뭘, 뭘 한주일동안에?! 주경동무, 지내 흥분한것은 아니요?》

주경은 침착하게 기사장과 지배인을 바라보며 힘있게 대답했다.

《이번에 저는 많은것을 배웠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식의 일용품들을 짱짱 만들어낼수 있다는 배짱과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로 생산하는 일용품들의 질을 높이자면 아직 할일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맡은 임무를 앞당겨 끝내고 재료연구때문에 우리 공장에 내려와있는 일용품연구소의 성민연구사와 함께 국내산원료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으려 합니다.

종이장도 둘이서 들면 가볍다, 그러니 서로 돕고 이끌면 더 빨리 발전할수 있다고 기사장동지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

말문이 막힌 기사장은 얼굴이 벌개져 눈만 껌벅거렸다.

이때 지배인이 기사장에게 지원포를 쏘아주었다.

《기사장동무, 우리 주경동무의 의견을 참작하는게 어떻소?》

《그렇시다.》

선선히 대답하는 기사장을 보며 주경은 자기가 지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감이 들었으나 후회감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할일이 더 많겠는데 어서 가보오.》

기사장이 주경을 배려주었다. 주경이가 나간뒤 기사장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허, 이거 코만 떼웠는걸.》

《하하하, 주경동무의 자존심이 보통 아니구만. 저런 훌륭한 처녀와 함께 일하는 기사장동무가 부럽소.》

《거야 지배인동지도 마찬가지지요.》

지배인과 기사장은 서로 마주보며 밝게 웃었다.

6

주경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초여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하얀 솜같은 한점의 구름만이 높이 떠가고있었다. 주경의 마음도 구름마냥 뚱뚱 떠올라 성민이한테로 달려가고있었다.

(성민동무가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마 날 축하해줄거야. 아니, 혹시 내가 지내 자만해있다고 비웃을지도 몰라. 영이,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 차라리 알려주지 말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주경의 발걸음은 전화기가 있는 직장사무실로 향해졌다. 그의 속마음을 알고있는듯 구내꽃밭의 꽃들도 활짝 웃고있었다.

직장사무실에 이르러 자기가 어째서 여기로 왔는가를 깨닫는 순간 주경은 주춤했다. 자기가 너무도 자기 기분에 빠져있었던것이다. 김정순직장과 로동자들이 은나노기술의 완성을 위해 얼마나 아글타글 노력해왔던가. 그런데 자신은 지금 저자신만을 생각하고있지 않은가...

부끄러워 문앞에서 물러서는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다치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정순직장이었다.

《들어가지 않고 왜 망설이고있어요?》

《저 직장장동지, 나노기술의 생산이 승인되었습니다.》

《나도 알고있어요. 그래 방금 직장의 전체 로동자들에게 알려주고 오는 길이에요. 모두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생산공급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는데서 또 한걸음 내딛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주경동무가 정말 수고많았어요.》

《아닙니다. 솔직히 직장장동지와 로동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겁니다. 그런데 방금전까지도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비는 주경을 보며 정순직장은 밝게 웃었다. 얼마나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을 간직하고있는 처녀인가...

《나도 그랬을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러니 주경동무, 앞으로 기술준비실에 가셔도 우리 치솔직장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 직장장동지는 제가 조동되는것을 이미 알고있었군요?》

《그럼요. 나야 직장장이 아닌가요. 사실 동무의 조동을 견결히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

요? 바로 나예요. 직장의 보배를 잃는것 같아 며칠동안 밤잠을 다 자지 못했단니까요. 호호호...

하지만 끝내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는것이 유익하고 더 큰 일인가 하는것을 깨달았거던. 주경동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동무가 조국을 위해 더 큰일을 해내리라는것을 믿고있다는것을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직장장의 말을 들으며 주경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레 되새기게 되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직장장에게 물었다.

《직장장동지!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서 하세요. 성민연구사한테 하려고 그러지?》

《예. 이번에 성민연구사의 도움도 컸습니다. 그래 기쁜 소식을 알려주됩니다.》

《그가 뭘 크게 도와준게 있다구...》

직장장의 말에 주경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데 그를 더욱 놀라게 한것은 직장장의 다음말이었다.

《아참, 성민연구사는 지금 연구소에 없을거예요. 인민대학습당에 갔으니깐요.》

《아니, 직장장동지는 어떻게 성민연구사에 대하여 그리 잘 아십니까?》

놀라움과 의아함이 비낀 주경의 얼굴을 다정히 바라보며 정순직장장은 가볍게 미소했다.

《그는 내 조카예요.》

《?!》

7

즐거운 기분으로 퇴근길에 오른 주경은 곧장 영화관옆에 자리잡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분명 성민이가 먼저 와있을것이다.

록음이 우거진 공원은 조용했다. 주경이가 짐작한대로 늘 만나곤 하는 의자에는 이미 성민이가 와있었다. 그런데 여느날과는 달리 깊은 생각에 잠겨 정향나무밑을 거닐고있었다.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성민에게 다가간 주경은 그를 놀래울 심산으로 큰소리로 찾았다.

《성민동무!》

《아, 주경동무요.》

주경을 보자 성민의 얼굴은 대번에 밝아졌다. 주경은 소식보파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성민동무, 오늘은 내가 좋은 소식들을 알려주겠어요. 우선 은나노치술이 정식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다음은 내가 공장의 기술

준비실로 조동되었다는거예요. 그러니 날 축하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기뻐할줄 알았던 성민이가 싱긋 웃기만 할뿐이다. 슬그머니 부아가 오른 주경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

《참, 동문 이 모든 소식을 나보다 먼저 알았겠군요. 그래 정순직장장이 동무의 고모라는걸 어째서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해보세요.》

주경의 질책에 성민이는 빙그레 웃으며 오히려 마침인듯 자기의 속심을 내비쳤다.

《아니, 주경동무. 우리 집의 친척관계가 나노치술의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오. 글썄 동무가 나의 선녀라면 몰라두...》

《어마나, 이 동무가 정말 한번 맞아보겠어요.》

기겁한 주경은 두손으로 성민의 잔등을 한바탕 두드렸다. 허나 성민이는 아무재기만 쳤다.

《어이구 이러다가는 내가 선남이 되기 전에 불구가 되구말겠구나. 어이구...》

《흥, 엄살두 많다.》

《아이구, 정말 사실이요. 어이구.》

성민의 노숙바람에 주경은 끝내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호호호.》

《하하하.》

실컷 웃고난 주경은 성민에게 물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시무룩해있었어요?》

《시무룩하긴, 그저 나노분말의 크기를 조절할수 있는 방도를 찾느라 그랬지.》

《내 생각엔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변화시키면 생성되는 나노립자의 간격과 크기를 조절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주경의 말을 듣는 순간 성민의 두눈에서는 무엇인가 번쩍했다.

《아차,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 이거 정말 고맙소.》

흥분한 성민이가 주경의 두손을 와락 부여잡았다. 주경은 얼굴을 붉히며 성민의 손에 잡힌 손을 뺐었다.

《이제부터는 성민동무의 연구를 힘껏 돕겠어요.》

《아 이거 나노치술개발에서 성공하더니 주경동무가 나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아니예요.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현시대에 잠시라도 주춤거리다가는 남들보다 아득히 뒤떨어진다는것을 나도 알고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더 빨

푸른 산 메아리

서 봉 제

새무리 날리며
장쾌히 울리는 기계톱소리
밀림의 새벽산울림에
땀젖은 이 가슴 후련쿠나

흰눈을 떠인 봉우리
파란 하늘과 손을 맞잡고
벌목공 우리들을 반기는
푸른 산 푸른 밀림은 우리의 일터

흐르는 계절따라
풍경도 좋고 노래도 웃음도 많아라
여름엔 드르륵 우뢰가 쏘는 한소나기에
얼굴을 씻고 머리를 드는 푸른 숲

여름에 무지개는 레사롭다
겨울엔 아름다리장대목이 넘어가며
하얀 눈가루 휘뿌리면
온 산판을 수놓는 겨울무지개 더더욱 신비롭다

아, 가슴뜨거워라
이 강산 높은 령마루에
달리던 야전차를 멈추시고
록음길은 산천을 바라보시며
기쁨에 넘쳐 하시던 장군님 말씀
푸른 산 푸른 들...

아버이장군님 뜨거이 외우시던
그 푸른 산에 우리 일터가 있구나

우리 사는 마을이 있구나
림산마을이 아끼며 자래우는
내 고향의 푸른 밀림

이 나라의 푸른 산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현지도의 길에
푸른 밀림은 나라의 재부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애국의 마음 심어주시었으랴

무지개 피고
새들이 우짖고
사연깊은 함박눈 그리움에 젖어내리는
조국땅 한끝에 있어도
백두산을 지척에 바라보며
장군님뜻대로 밀림을 가꾸어가는
벌목공의 이 자랑 푸른 숲이 다 말해주거니

아름다운 풍경에 웃음이 피어나고
청춘의 활무대우에 흥겨운 노래 없이야
어찌 우리 밀림의 정복자라고 자랑하랴
어찌 우리 푸른 밀림이라 자랑할수 있으랴

아, 이 땅우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꽃피워갈
조국사랑의 우리 노래의 뜨거운 메아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강성번영하는 내 나라에 높이 울려가리라
아, 푸른 산의 메아리 조국의 노래여!

리, 더 큰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일용공업부문에
서도 앞선 나라들을 따라앞서자는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힘을 합쳐 더 큰 경쟁을 해보
자는거겠소?》

《예, 그래요.》

그런데 성민이가 불쑥 락심한 표정을 지으며 하
늘을 쳐다보았다.

《하, 그런데 이거 야단났군.》

《왜 그래요?》

《동무같은 이악쟁이와 함께 연구하다가 내가
언제 장가가겠소.》

《예?! 누가 장가를 가지 말래요.》

발끈한 주경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나 성민의

표정과 자세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좋아요. 그럼 잘있으랴요.》

이 말을 남기고 주경은 단호히 그 자리를 떠났다.
뒤를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도도히 걸어가는 주
경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성민은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있었다. 오늘에야 비로소 그는 처녀의 진심을
알게 된것이다.

붉은 저녁해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주경의 모
습은 볼수록 아름다웠다. 정말 사랑스러운 처녀였
고 눈이 높은 처녀였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경의 뒤를 따라가
며 소리쳤다.

《주경동무! 함께 가가요.》

대변에 꽃이 든 처녀

윤 룡 수

단편소설 《천리마를 탄 처녀》〔림봉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100(2011)년 5호〕를 다 읽고 책을 덮었지만 소설속의 그 처녀는 그냥 곁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것만 같다. 소설을 읽는 그 짧은 사이에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천리마처녀에게 대변에 정이 들어버린것이다.

처녀의 용모는 특별히 아름답지 않다. 그렇다고 성격이 빼어난데도 없다. 《남보다 특별한 재간을 가진것도 없》고 《어데 뽕히워다닌적도 없》다.

처녀의 말을 빌면 《콩더미속에 콩알》이랄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출퇴근길이나 생활속 어디서나 맞다들릴수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처녀이다.

그런데도 처녀는 소설에서 독자들의 심장속으로 곧바로 쏙 들어와버렸다. 우리의 심장에 《선군천리마는 오늘에 사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반드시 타고 내달려야 할 시대의 준마》라고, 《값높은 위훈은 직업이 주는것이 아니라 시대가 주》는것이라고 조용히, 그러나 감동깊게 끝없이 속삭거린다.

대변에 정이 든 처녀.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의 진실성은 작품에 그려진 생활이 현실과 같은가, 같다면 어느 정도 같은가 하는것을 재는 척도로 된다. 작품에 펼쳐진 생활이 현실생활과 같으면 진실한것이고 다르면 진실하지 못한것이다.》

성격형상의 진실성, 바로 이것이 소설의 주인공 처녀가 우리 독자들과 대변에 친숙해진 비결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이 소설에서는 산 인간, 생활속에 있는 처녀를 그대로 진실하게 그린것이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처녀 인혜의 성격발전과정이 진실하게 형상되였다.

소설에서 인혜의 초기성격은 말그대로 《뻬람속의 꽃》이였다. 《남보다 특별한 재간을 가진것도 없》고 《어데 뽕히워다닌적도 없》는 평범하고 수수한 처녀...

이 《뻬람속의 꽃》이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된 곳은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직관불장식지도국이였다. 여기서 인혜는 강성국가건설로 들끓는 현실

을 둘러보며 자기도 천리마를 탈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차 깨닫는다. 인민대학습당불장식전투장에서 인혜는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며 나도 여기 있다고 소리쳐보겠다는 《잔디처럼 연한, 하지만 뽕족한 야심》을 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순간적인 충동이나 반발심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이러한 야심을 품고 그가 설계한 천리마동상불장식은 착상이 기발하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만수대대기념비조명에 손상을 줄수 있고 또 천리마동상의 특징을 살릴수 없는것이였다.

처녀는 제대군인 봉성용으로 부터 아버지장군님께서 평양의 불경치를 위해 마음쓰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평양의 거리에 불을 켜기 전에 자기 심장에 먼저 불을 켜야 함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인혜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천리마동상불장식설계안을 완성하며 아슬하니 높은 천리마동상우에까지 올라간다.

처녀는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으는 천리마동상우에 올라서서 온 나라에 나래치는 천리마정신의 진수를 온몸으로,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며 천리마동상불장식을 완성하고 평양시내불장식들에 대한 종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둔다. 마침내 그는 《말은 자기의 일터가 곧 천리마의 드넓은 날개우》라고 소리높이 웨친다.

소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의 주인공처녀는 작가가 억지로 천리마처녀로 끌어올린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론리를 타고 한계단한계단 뚫아서, 때로는 동지들의 도움도 받으며 시대의 전형적인 높이예까지 이르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처녀의 성격발전단계를 서둘러 비약하거나 뛰어넘지 않고 섬세하면서도 진실하게 차곡차곡 밟아서 그려내고있다.

자기 말은 일에 긍지를 느끼지 못하던 인혜가 그 긍지를 느끼는 순간에 《뽕족한 야심》을 앞세우는 세부, 그 야심으로 하여 만수대대기념비조명에 손상을 줄뻔 했다는것을 깨닫는 순간 얼굴을 싸쥐고 주저앉는 처녀, 자신을 천리마동상우에 올라간 첫 녀성으로 자못 자부했지만 불장

식을 위한 전투과정에 《우리 부모, 오빠, 언니들, 정다운 나의 동무들이》 수천수만이나 이미 천리마우에 올라있으며 자신은 맨 마지막사람임을 솔직하게 자인하는, 그러면서도 그 거세찬 시대의 흐름속에 자신도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것만 같은 한없는 궁지와 자부를 뿌듯이 느끼는 사랑스러운 처녀...

이처럼 소설에서는 성격발전과정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심리변화의 단계들을 미화분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이 꾸밈없는 진실성으로 하여 소설의 주인공처녀는 바로 우리곁에서 함께 일하며 오래동안 사귀여온 녀동무같이 정답게 안겨온다. 또한 아득히 높은 곳에 올라 우리를 부르는 선구자의 모습으로 안겨온다.

소설에서는 제대군인 봉성용의 성격 역시 진실하면서도 정답게 그려내고있다.

이름자필에 모두 동그라미가 붙어 《세바퀴》로 불리우는 봉성용, 그도 역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언제나 볼수 있는 그런 청년이다.

뭔가 엉뚱한것을 자꾸만 생각해내어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넣고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며 일을 하면서도 쉴새없이 말하고 노래부르는 랑만적이고 락천적인 청년... 그는 가슴속에 크나큰 꿈과 포부를 지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년이다.

작품에서 봉성용은 주인공 인혜를 손잡아 이끌어 천리마의 넓은 나래우에 올려세워주고있을뿐아

니라 작품전반을 아름답고 랑만적으로 채색하여주고있다.

봉성용의 존재로 하여 우리의 주인공처녀는 더욱 정답고도 진실하게 안겨오고있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오는 비결은 어휘활용의 재능에도 있다고 볼수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루루이 설명한것이 아니라 적중한 표현들로써 력점을 찍어 구획짓고있다.

《빼람속의 꽃》, 《잔디처럼 연한, 하지만 뽀족한 야심》, 《천리마처녀》... 등의 표현들은 주인공의 성격발전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형상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것은 작중인물의 성격에 대한 작가의 정확하고 형상적인 규정이 성격의 진실감과 생동성을 살리는데서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작가들은 인물성격의 진실성이 보장될 때 독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부강조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현실속의 인간들을 산인간으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문학작품에 형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가야 할것이다.

작품은 끝났지만 우리의 주인공처녀는 정답게 웃으며 창공을 나래펴고 날으는 천리마우에서 우리를 손저어 부르르고있다, 모두 함께 선군천리마를 타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밝고 휘황한 미래를 향해 더 빨리, 더 힘차게 달려가자고...

상 식

심 비 디 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란과에 속하는 심비디움은 꽃이 아주 고울뿐아니라 꽃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피는 꽃들중의 하나라고, 어디에서나 쉽게 재배할수 있는 좋은 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심비디움은 란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여러해살이화초이다. 원산지는 우리 나라 남부와 중국, 일본, 월남, 만마, 인디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열대, 아열대지방이다.

심비디움은 윤기나는 싱싱한 잎새에 10송이이상의 큰 꽃이 정연하게 돌려붙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심비디움은 꽃이 피어 3달이상가며 꽃이 핀 대를 잘라 물병에 꽂아놓아도 한달이상 간다.

심비디움은 겹줄기성란으로서 해마다 줄기밑의 마디에서 새싹이 나와 새로운 줄기를 형성

하며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포기가 여러개의 줄기를 가진다.

잎은 짧은 줄기에서 모여나오며 윤기나는 칼모양이다.

꽃은 크고 꽃잎이 두텁다. 꽃의 색은 흰색, 분홍색,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감색, 두가지 색이 섞인것 등 여러가지이다.

꽃은 보통 겨울부터 이른봄사이애 많이 피며 여름부터 가을사이애 피는 품종도 있다.

심비디움은 포기가르기로 쉽게 퍼치울수 있다.

심비디움은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 견딜성이 강하고 생활력도 강하며 쉽게 자래울수있고 꽃이 아름답고 오래가는것으로 하여 화분꽃, 꺾음꽃으로 인기가 높은 란꽃의 하나이다.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김정은

편집부의 말

위대한 추억의 해 주체101(2012)년을 보내며

...

슬픔을 박차고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엔
또 한분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이 서계시거니
조국이며 인민이며 일떠서라
발걸음 척척 앞으로! 앞으로!

우리 인민 수천만의 마음속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애와 상실의 아픔을 새겨놓은 피눈물의 해를 떠나보내는 제야의 종소리 울리던 조국땅에 시 **《김정일**장군의 인민이며 일떠서라》의 힘찬 구절 구절들을 새겨안은 심장들마다가 하나의 약속을 하며 맞이하였던 주체101(2012)년이 저물어갑니다.

하다면 우리 천만군민이 2012년과 나눈 약속은 무엇이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로, 강성국가 건설의 대고조성파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힘껏 받들어갈 신념과 의지의 맹세였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려 노도와 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벽찬 투쟁속에 함께 뛰여든 우리 작가들의 걸음걸음이 한해라는 세월을 누벼왔고 우리 **《조선문학》** 편집부도 나란히 한전호에서 발맞춰 걸어왔습니다.

주체101(2012)년은 그리움의 해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정녕코 지위버릴래야 버릴수 없는 우리 백두산대국의 빛나는 영상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불타는 그리움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그리움의 선물들이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에서, 시들에서, 평론들에서 온한해 끊기지 않고 울려나왔습니다. 이 그리움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원천이고 힘이었습니다.

12월의 강산을 얼어붙게 하였던 비통한 슬픔, 가시지 말라고, 가시면 안된다고 령구차를 막아서며 땅을 치던 백리연도의 그 사무치는 슬픔을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과 의지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갈데 대한 당의 호소는 그대로 우리 시인들의 시 **《김정일**장군의 인민이며 일떠서라》(문용철), **《인민의 태양은 영원하리》**(최남순), **《장군님은 빨찌산복을 입고계신다》**(주명옥),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차영도)의 구절구절들로 천만군민의 심장들에 불이 되었습니다.

단편소설 **《깊은 뿌리》**(최종하), **《사랑의 약속》**(곽성호), **《꽃향기》**(김금옥), **《영원한품》**(김하늘), 수필 **《맹세의 광장》**(최성진), **《기적소리》**(엄성영), 론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 문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박춘택), **《김일성**민족의 100년사와 더불어 빛나는 총서 **〈불멸의 향도〉**는 수령형상문학발전의 새로운 전환》(최언경), **《선군승리의 불멸의 화폭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세계》**(권선철), 함경남도작가동맹 시인들의 시목음 **《영원한 그리움의 불길》** 등 많은 작품들에서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강성조선의 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의 자욱자욱들을 더듬어보고 력사의 갈피들을 하나하나 헤쳐보며 위대하신분에 대한 추억의 노래들을 부르고불렀습니다.

이 추억과 그리움의 감정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감정으로 활화산처럼 분출되었습니다.

올해 주체101(2012)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받들어모신 조국청사에 특기할 뜻깊은 해였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이 민족의 행운을 가슴가슴들에 안고 원수님의 충직한 전우, 혁명동지로 선군혁명의 한길로 가는 천만군민의 환희의 감정이론설 《피끓는 심장으로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포성을 울리자》(김려숙), 시 《조선의 해돋이》(김재원), 《영원한 메아리》(김길성), 《나는 보노라》(김용엽), 수필 《환희의 봄이 왔다》(석남진), 《숭고한 경의》(김옥), 평론 《〈발걸음〉의 메아리는 우렁차고 환희롭다》(권선철), 론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정도를 받들어 주체문학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시 《그이가 우리의 원수이다》(조광철), 련시 《강성원은 노래한다》(백하), 평론 《최후의 승리로 힘있게 추동하는 투쟁의 진군가》(김정평), 가사 《정이 넘치시는분》(홍민식)들에서 세찬 물결기마냥 파도쳐나와 그대로 일심단결의 화원의 줍이 되었으며 우리 주체문단을 품위있게 장식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올해를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천만군민의 투쟁이 최절정에 다달은 주체101(2012)년은 투쟁과 창조의 벅찬 한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설가들은 산과 들, 이 강산 그 어디에나 력력히 살아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자신의 리상으로, 삶과 투쟁의 근본으로 삼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군시대의 애국자들, 시대의 전형들을 찾아 신발창이 닳도록 현실속으로 들어가 인간수업을 하면서 살진 이삭과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단편소설 《재부》(전충일)가 나왔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비날론을 사랑한다》(석남진)가 나왔으며 탄광, 광산들에서 《아이적 목소리》(김혜인), 《의리》(오광천), 강선땅에서 《꽃은 열매를 남긴다》(김철순), 경공업전선에서 《우리 삶의 주로》(김경일), 알곡생산의 전투장인 농업전선에서 《아흐레갈이》(강철), 《대지의 노래》(박종철)들이 훌륭히 창작되어 올해의 우리 《조선문학》잡지를 개성있는 인물형상과 특색있는 구성, 독특한 문제들을 갖춘 단편소설들로 풍요하게 단장하였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안고 생의 자욱자욱을 새겨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은 시인들에 의해서도 왕성하게 창작되었습니다.

시 《숲의 미소》(박상민), 《땅의 고백》(서진명), 《석탄, 너와 나는 불타는 하나》(류정실),

《달이 알아 별들이 알아》(위명철), 련시 《제강소여 너와 함께》(김정삼), 담시 《흙주머니 이야기》(김일왕) 등 시작품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맥맥히 이어가려는 시인들의 창작적열정이 낳은 련시 《백두산을 안고 살자》도 훌륭히 편집되었습니다.

잘 쓴 수필은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와도 같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는바 올해에도 우리 《조선문학》잡지에는 《나는 바다를 본다》(김홍균), 《침묵의 배고동소리》(김경일), 《시에 대한 생각》(변영옥), 《꽃은 무엇을 위해 피는가》(김원영), 《단숨에》(김철이)와 같은 자기의 얼굴을 가진 특색있는 수필들이 많이 편집되었습니다.

정말 《조선문학》잡지를 통한 우리 작가들의 창작성과를 일일이 꼽자면 지면이 모자랍니다.

하많은 사연과 추억을 안고있는 헤어서인지 우리 작가들의 창작성과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조선문단사에 뚜렷한 자기의 자욱을 아로새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혁명전통주제, 계급교양주제의 작품들과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들이 소규모적으로 창작되고있는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줄임부호로 작가들의 심장에 가닿을 하많은 당부와 호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작가동지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당의 영원한 붓대전사로 살라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믿음과 기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제시여 영원불변합니다.

우리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우이고 혁명동지들이라는 성스러운 사명감을 안고 원수님의 호소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총돌격하는 우리 조국땅 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언제나 천만군민을 영웅적위훈으로 떠미는 불길파도 같고 기치와도 같은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입니다.

작가들의 그 걸음에 발맞춰 우리 《조선문학》편집부도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해, 행복과 희망의 또 한해 주체 102(2013)년!

다가오는 2013년과 우리는 무엇을 약속할것인가.

오직 하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서만 빛나는 우리의 삶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투쟁을 약속합니다.

시인 박세영의 창작활동과 서경시 《산케비》

시인 박세영(1902—1989)은 해방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으로서 일제식민지통치하의 무산자들의 비극적처지와 새생활에 대한 갈망을 진실하게 반영한 진보적시인이다.

그가 당대의 사회현실을 계급적안목에서 예리하게 투시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에 대해 훌륭히 시화할수 있는것은 그의 생활체험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의 생활체험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데 따라 많이 좌우된다.》

어린시절부터 가난한 살림살이속에서 근근히 살아오던 박세영은 보통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세상의 불합리와 모순을 미약하게나마 느끼게 되었다.

당시 일제는 1910년 8월에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날조하고 그 무슨 합방기념놀이까지 벌여놓았다. 거리에서 《합방기념대렬》이 지나가는것을 보게 된 박세영의 나어린 가슴에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과도 같은 통분과 우울감이 가득찼고 장차 커서 나라찾는 일에 나서리라라는 결심이 서게 되었다.

그후 조국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정의감으로 더욱 가슴불태우면서 문학을 열렬히 지망하게 된 박세영은 같이 입학한 송영과 함께 회람문학잡지 《새 누리》를 발간하게 되었다.

주체6(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전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인도주의적감정에 머물고있던 시인의 사상의식은 10월혁명소식에 접해서부터는 혁명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 인민, 우리 나라의 운명과 결부시키게 되었으며 3.1인민봉기를 접하면서는 그 혁명적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송영과 함께 조선 청년으로서의 의무를 자각하면서 등교를 중지하고 독립의 사상을 내용으로 한 등사신문 《자유신종보》를 수개월동안 발간하였다.

《자유신종보》는 당시 독립신문의 일종으로서 격문과 보도사설에 기초하여 여러 형태의 문

학작품들을 편집하였으며 그 내용 역시 일제에 대한 저주와 분노, 그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이러한 생활과 투쟁과정은 그에게 새로운 지향과 세계관을 안겨주었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하였다.

192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무산계급의 해방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주체14(1925)년에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문학단체인 카프(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가 결성되자 박세영은 카프에 망라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카프의 영향하에 있던 《별나라》잡지 편집을 직접 담당하였다.

박세영은 송영, 엄홍섭 등과 더불어 《별나라》잡지가 무산소년들을 계급의식으로 교양하는 문예잡지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 많은 동요, 동시, 아동극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아동문학창작은 시기별로 1920년대와 1930년대 두 단계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1920년대 시작품들은 주로 현실적모순을 파헤치면서 무산아동들의 비참한 생활과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호소하는데 머물렀다면 1930년대작품들은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힘을 자각하고 투쟁에 나선 아동들의 모습과 새생활에 대한 리상을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박세영은 그후 아동시뿐아니라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붓을 꺾을 때까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에 자신의 창작을 결부시키고 무산계급의 감정을 담은 많은 시를 썼다.

조국의 아픈 현실을 가슴속깊이 체험하며 시 《해빈의 처녀》라는 처녀작을 발표한 후 카프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좌익서적들과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체득하게 되면서 일제강점하의 모순된 사회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시 《타작》(1928), 《누나》(1930), 《야습》(1930), 《산골의 공장》(1932), 《우리들의 40년》(1931), 《밤마다 오는 사람》(1931) 등과 같은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의식, 투쟁정신을 반영한 시들을 창작하였으며 반일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죄로 하여 여러차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생활도 하였다.

서정시 《산제비》는 해방전 박세영의 대표작품이며 해방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시문학의 성과작이다.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직접적 체험이 있다.

주체22(1933)년 시인은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속리산을 구경하게 되었다. 속리산은 산제비의 령지였다. 속리산의 상상봉에서 하늘을 누비며 날으는 제비는 시인에게 있어서 자유의 화신처럼 느껴졌으며 그로부터 시인은 제비에 대한 선망의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높은 령마루에 올라 천하를 내려다보고 악착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은 자유에 대한 감정으로 더욱 부풀어올랐으며 암흑을 헤치고 광명의 상상봉에 도달할 영웅적인 것의 체험으로 그득찼다. 하여 오래동안 시상을 무르익힌 시인은 주체25(1936)년에 드디어 서정시 《산제비》를 내놓게 되었다.

남국에서 왔다
북국에서 왔다
산상에도 상상봉
더 오를수 없는 곳에
깃들인 제비

너희야말로 자유의 화신같구나
너희 몸을 붙들자 누구냐
너희 몸에 알은체 할자 누구냐?
너희야말로 하늘이 네 것이요
대지가 네 것 같구나

산중에서도 상상봉에 깃들이고 하늘땅을 자유로이 휘저으며 마음껏 날개를 편 산제비에 대한 서정적 주인공의 부러움으로부터 시작된 서정세계는 산제비에 대한 시적 묘사와 결부되어 더욱 감정이 승화되고 있다.

녹두만 한 눈알로 천하를 내려다보고 주먹만 한 네 몸으로 화살같이 하늘을 꿰어 마술사의 채찍같이 가로세로 휘도는 산제비의 장한 모습을 보며 서정적 주인공은 저도 모르게 한숨에 내닫고 단숨에 솟치여 신비하게 날아에는 산제비가 돼보고 싶은 갈망에 휩싸인다.

산제비는 높은 산정에서 살면서 가장 맑고 깨끗한 정기를 한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며 원시림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맑은 패륜패덕을 모조리 헤아려볼 것이다. 당대 사회악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는 자들을 메돼지와 갈범에 비유하여 형상화한 것은 아주 생동한 시적 반영이며 이것을

통해 작가의 시형상수준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 그러면 시인이 그토록 부러워한 자유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자유는 바로 인민대중이 당대의 모든 계급적 모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보려는 열렬한 지향과 갈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산제비는 단순히 자유의 풍유적 표현이나 혹은 자유의 상징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기가 본 산제비의 산 형상에서 체험한 인류의 리상에 대하여, 인민의 해방을 념원하는 투사의 영웅적 정신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구름을 휘정거리고 안개를 헤쳐라

땅이 거북등같이 갈라졌다
날아라 너희는 날아라
그리하여 가난한 농민을 위하여
구름을 모아는 못 올라?
날아라 빙빙 가로세로 솟치고 내닫고
구름을 꼬리에 달고 오라

시의 절정부분에서 느낄수 있는 것처럼 시에서 노래한 리상은 시인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인류의 자유, 조국의 해방이다.

이처럼 서정시 《산제비》에서는 온갖 자유와 권리가 유린되고 노예적 굴종만이 강요되었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과 억압받는 근로대중의 사회적 해방에 대한 지향을 강렬하게 토로하고 있다.

작품은 산제비를 상징적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에 의탁하여 서정적 주인공의 심리정서를 뜻깊게 노래하였으며 자유분방하고 호소성이 강한 언어표현들을 잘 선택하여 쓴것을 비롯하여 예술적형상수준에서도 작가의 창작적개성과 작품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시에 구현된 사회적 해방에 대한 요구를 인민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참다운 투쟁방도와 결부시키지 못한 제한성은 있지만 서정시 《산제비》는 작품이 담고있는 사상의 높이에 있어서나 시의 형상수준에 있어서 박세영의 해방전 시창작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발전에서 일정한 경지에 이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최 경 희

시인 월트 휘트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류문화사에 길이 전해질수 있다.》

월트 휘트먼은 1819년 5월 미국 뉴욕의 농민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극빈한 생활난으로 소학교를 중퇴한 그는 식자공, 소학교 교원, 신문사 기자 등을 하면서 독학으로 문학수업을 해나갔다.

월트 휘트먼은 초기에 소설창작에 달라붙어 20여편의 단편소설들을 창작발표하여 문단에 들어섰다. 그러나 소설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그는 차츰 시창작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1855년에 그는 제 손으로 식자, 인쇄, 장정하여 시집 《풀잎》 제1판을 발행하였다. 처음 이 시집은 문단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 점차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시집에 실린 작품들은 전통적인 정형시형식을 부정하고 자유시형식으로 씌여졌다. 그후에도 그는 계속 시를 써서 1856년 새로운 시 20편을 보충한 《풀잎》 제2판을, 1860년에는 124편을 첨가한 제3판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3판에 이르러 그의 작품들에는 초기에 나타났던 낭만주의적열정이 계속 감퇴되어갔다. 열렬한 민주주의정신은 사라지고 락천주의는 침통한 비판주의로 바뀌었다.

남북전쟁을 계기로 시인의 사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나날에 그는 근로인민대중의 정신세계를 직접 체험할수 있었다. 하여 그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일관된 시들을 창작하여 1865년에 시집 《울리는 북소리》를 내놓았다.

이 시기 창작된 시들에 관통되고있는 기본사상도 역시 열렬한 민주주의, 생활락천주의정신이다.

월트 휘트먼은 미국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에 대한 불철저한 이해와 자본주의미국현실에 대한 부르조아민주주의적견해 등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자기의 시들에서 일련의 심각한 제한성을 발로시키고있다.

시인은 일부 시들에서 미국의 자본주의제도를 민주주의적인것으로 미화하고 당시에 미국대통령감투를 썼던 링컨을 《노예해방자》로 찬양하기까지 하였다. 더우기 시인은 미국의 기술적진보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기도 하였다.

월트 휘트먼의 시는 이러한 심각한 결함들을 가지고있으나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본질을 적발하여 사람들을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미약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나름의 리상을 제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고무하였으며 새로운 시형식을 개척하여 미국사실주의시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오 경 남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12호 (루계 제782호)

편집위원회

| | | | | | | | | |
|---|---|---|---|------------|-----|----|---|---|
| 낸 | 곳 | 문 | 학 | 예 | 술 | 출 | 판 | 사 |
| 인 | 쇄 | 소 | 평 | 양 | 종 | 합 | 인 | 쇄 |
| 인 | 쇄 | 주 | 체 | 101(2012)년 | 12월 | 1일 | | |
| 발 | 행 | 주 | 체 | 101(2012)년 | 12월 | 5일 | | |

ㄱ-26629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